



# 월간 북한동향

제5권 제5호 (2011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월간 북한동향

제5권 제5호 (2011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ontents

## 9 September 2011

---

<b>① 주차_9.01-9.04</b>	1. 대내 ..... 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 12
	3. 대남 ..... 13
<b>② 주차_9.05-9.11</b>	1. 대내 ..... 1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 28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30
<b>③ 주차_9.12-9.18</b>	1. 대내 ..... 3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 4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52
<b>④ 주차_9.19-9.25</b>	1. 대내 ..... 5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 7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74
<b>⑤ 주차_9.26-9.30</b>	1. 대내 ..... 8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 89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95

인쇄: 2011년 11월 발행: 2011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김아영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 10 October 2011

① 주차_10.01-10.02	1. 대내 ..... 100 가. 정치   나. 사회·문화	100
	2. 대외 ..... 10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101
	3. 대남 ..... 103	103
② 주차_10.03-10.09	1. 대내 ..... 10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106
	2. 대외 ..... 117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117
	3. 대남 ..... 121	121
③ 주차_10.10-10.16	1. 대내 ..... 12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126
	2. 대외 ..... 141	141
	3. 대남 ..... 143	143
④ 주차_10.17-10.23	1. 대내 ..... 148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148
	2. 대외 ..... 16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160
	3. 대남 ..... 166	166
⑤ 주차_10.24-10.31	1. 대내 ..... 17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170
	2. 대외 ..... 18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182
	3. 대남 ..... 188	188
■ 9월 일지 / 192		
■ 10월 일지 / 194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01-9.04

9월

1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 1 대내

### 가. 정치

- **‘임수경과 인연’ 北리금철 개성공단 총국장 부임(9/1,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초 개성공단 사업을 관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자리에 ‘리금철’이라는 인물을 앉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일 정부 당국자를 비롯한 북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김일근(55)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을 경질하고 리금철을 새 총국장으로 임명
  - 정부 당국자는 “예전에 임수경씨가 전대협 대표로 방북했을 때 임씨 안내를 맡았던 리금철이 총국장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체된 시점은 3월로 추정된다”고 말함.
  - 북한 관영매체는 2008~2010년 리금철의 직책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평양시 청년동맹 1비서’ 등으로 소개했지만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한 대북 전문가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은 북한에서 차관급으로 높은 직위에 속한다”며 “과거 리금철이 맞다면 현재 진행되는 김정은으로의 세대교체 작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北 김영남 “북일관계 개선 日새정권 태도에 달려”(9/1, 교도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일본 취재진과 회견을 열고 정채된 북일 관계의 개선은 “일본 새 정권의 태도에 달려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또 북일 관계가 장기간 냉각된 데 대해 “(일본이 2002년 9월의 북일 평양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난
  
- **北인권단체 “외교부가 탈북자 인권침해” 제소(9/2, 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2일 각국 영사관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며 생활하는 탈북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외교통상부를 인권침해로 제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징 한국영사관에서 생활해오던 10여 명의 탈북자가 지난 7월 영사관 측에 항의하며 순차적으로 이탈하는 사태가 있었다”며 “그들이 영사관을 떠난 것은 자유지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방치 때문”이라고 주장
- 또 “영사관은 일부 탈북자에 대해 퇴거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각국 이민국 수용소를 찾은 한국 외교관이 탈북자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욕설·구타한 사례도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며 “해외영사관 내 탈북자 인권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

### ■ 김정일동향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9/1, 중방)

###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러시아·중국 방문은 인민을 더욱 굳게 묶어 세우며 조국의 전진속도가 한계단 비약하는 역사적 계기” 강조 및 “2012년을 향한 총공격전에 드세찬 박차를 가하자”고 독려(9/3, 중통 민주조선)
- 최영림 내각총리, 9.1~2 희천발전소 건설정형 현지요해(9/3, 중통)

## 나. 경제

### ● “달라진 北 나선특구..중·러 노동자 목격”(9/1, 38North)

-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대북교류재단인 ‘조선 익스체인지 (Choson Exchange)’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4박5일간 북한측의 초청으로 ‘제1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에 다녀온 경험을 31일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North’에 소개
- 투자자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나선경제특구로 향한 아브라미안 대표는 “지난 6월에만 해도 3시간 30분 걸리던 50km 구간이 나선경제특구의 첫 번째 단계인 도로확장 공사로 넓어져 차량간 추월이 가능해 졌을 뿐 아니라 시간도 2시간 20분으로 단축됐다”고 전함.
- 그는 도로공사 등에 상당수 중국기업이 투자와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을 통

- 한 국제무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른바 ‘부린(富隣. 이웃국가와 더불어 잘산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
- 그는 아울러 도로의 상당부분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철길이 있었으며, 인근 철도 공사장에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약 150명에 달하는 러시아 노동자들도 있었다고 소개

● **FAO, 30년간 6천400만달러 대북 농어업지원(9/1, 미국의소리(VO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30년간 북한에서 보존농법 기술전수 등 200여개 사업을 통해 총 6천40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
- 이 방송은 FAO의 ‘북한과 FAO: 성과와 성공사례’ 보고서를 인용해 “감자, 콩 재배 등 농업과 과일 재배, 원예, 농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전염병 통제 등의 분야도 지원했다”고 밝힘.
- FAO는 “2002~2005년 북한내 20개 협동농장 농경지 2천ha에서 적용한 환경친화적인 보존농법이 배추 재배 등 원예업에도 활용되는 등 주류 농법으로 부상한 게 주요 기술전수 성과 중 하나”라고 밝힘.

● **WHO, 2012~2013년 대북사업예산 30% 감축(9/1, 미국의소리(VOA))**

- 세계보건기구(WHO)의 2012~2013년도 대북사업 예산이 작년과 올해 2개년 예산(3천700만달러)보다 약 30% 줄어들 전망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전함.
- WHO는 예산보고서에서 금융위기에 직면한 회원국들의 예산감축 의견을 감안해 내년부터 2년간 북한 지원사업 예산을 2천600만달러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WHO도 다른 유엔 기구들처럼 대북사업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3월 말까지 모금액이 2010~2011년 예산 3천700만달러의 56%인 2천83만달러에 그침.

● **“北, 러시아 토지 임대해 농사 추진”(9/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1일 전함.

- 이 방송은 “조선(북)이 극동에서 러시아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며 북한 농업성 대표단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아무르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현재 아무르주에는 20만ha의 빈땅이 있다”며 “1일 러시아와 조선은 이 문제와 관련한 첫 회담을 진행했다”고 소개

● **美, 북한 수해복구 구호물품 주말께 지원(9/2, 연합뉴스)**

- 미국이 지난달 북한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약속한 90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품 지원이 수일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밝힘.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구호 물품을 실은 화물기가 주말께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에 (물품 구입을 위한) 자금을 건넬 것”이라고 말함.

● **“北, 이란에 어뢰 배터리 수출”(9/4, 위키리스크)**

- 4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스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2009년 7월 21일자 비밀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그해 7월 9일 북한이 베이징서우두(首都)공항을 통해 어뢰용 배터리를 이란에 수출하고 관련 기술진을 파견한 사실을 포착
- 이후 미국 대사관은 관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군축사(司.한국의 국 해당) 양이 부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면서 중국 측이 북한과 이란 사이의 화물 및 인원의 이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촉구
- 양 부사장은 미국 측의 지적에 대해 증거와 자세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향후 검색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양 부사장은 미국이 문제 제기한 어뢰용 배터리가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안에 저촉되는 것이냐는 물음을 제기했고 미국 대사관 관리는 위반이 ‘자명하다’고 반박

■ **기타 (대내 경제)**

- 북부 철길 개건보수를 다그치기 위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궤기모임, 831 최룡해(黨비서), 조병주(내각 부총리), 임철웅(철도성 참모장) 등 참가자 만포시에서 진행(9/1, 중방)
- VOA(미국의 소리)방송인용, 아시아태평양여행사(美 일리노이주)의 ‘2012년 北 여행상품’ 소개 (9/2, 중통)

- 2012년부터 금강산 관광객들은 '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돌 행사 진행 속에서도 여행 진행 및 6월~9월까지 백두산·칠보산·함흥·원산 등이 포함된 새로운 관광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
- 안악군 청년전위들의 가을걷이 썰기모임, 9.1 오곡리에서 진행(9/2, 중방)
- 이화진(황해남도 黨 비서), 이항준(청년동맹 비서), 이창성(안악군 청년동맹 제1비서/보고) 등 참가
- '라선-금강산 관광' 진행(8.30~9.2/4박5일) 관련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박철수 총재),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 및 휴양,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9/3, 조선신보)

## 다. 군사

### ● IAEA “北 우라늄농축 시설 암시장서 구매”(9/3, AP통신)

-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이란과 마찬가지로 암시장 공급자들과 거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지적했다고 AP통신이 보도
- 2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이 입수한 IAEA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견학한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이 시설의 원심분리기 배치 형태와 덮개의 크기 등이 비밀 공급조직이 판매해 온 장비의 설계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분석
- 북한이 자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한 우라늄 농축설비가 실은 암시장을 통해 조달됐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비밀 공급조직이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와 연계된 공급책일 것이라는 추정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는 북한과 이란, 리비아와 핵 기술을 거래해 온 인물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칸 박사와 연관된 암시장 공급책을 통해 영변 우라늄 농축설비를 구축했을 것으로 분석

## 라. 사회문화

### ● “北, 외국인 전용 휴대전화망 폐쇄”(9/1,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던 휴대전화망 ‘선넷’이 작년 말 폐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
- 이 방송은 북한 내 유일한 휴대전화 사업자로 이동통신회사 고려링크를 설립한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0년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2002년부터 소유와 경영을 해온 제2세대 휴대전화사가 작년 4분기에 폐쇄됐다”고 전함.
- 보고서는 북한이 폐쇄한 업체명이나 폐쇄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2002년부터 가동돼 온 2세대 휴대전화 회사가 하나뿐인 점을 감안할 때 선넷이 분명한 것 같다고 설명
- 북한은 2002년 태국 통신회사 록슬리와 제휴해 2세대 휴대전화사업을 시작했으나 2004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용천역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으나 기존의 휴대전화망을 이용해 외국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망 선넷을 운영하기 시작
- 평양에서 유학 중인 한 러시아인 유학생은 “북한당국이 선넷이라는 외국 인용 통신망을 운영 중이며, 외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북한주민이 쓰는 고려링크와 연계통화가 안되고 요금과 전화번호 체계도 다르다”고 전함.
- 한편 오라스콤 텔레콤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66만6천517명임.

### ● 국제적십자사, 北대학 휴교령 확인(9/2, 미국의소리(VOA))

- 국제적십자사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상반기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대학의 휴교령을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
- 보고서는 “대학생들이 평양시와 다른 지역의 아파트 건설에 동원됨에 따라 모든 대학이 6월에 휴교했고, 2012년 4월까지 이 조치가 이어진다”며 “2012년 4월은 북한 지도자(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때”라고 밝힘.

- VOA는 보고서에 북한적십자회 관계자의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휴교에 관한 내용이 북한 당국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북한 당국이 이처럼 대학생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는 것은 대학생의 경우 일반 노동자에 비해 통제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힘을 잘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이 방송은 전날 “북한 대학생들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노력동원’을 거부하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의 효율이 높다”며 “북한 당국이 사회의 부조리에 물들지 않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노동당 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96)’ 출판(9/3, 중통)

## 2 대외

### ● 北외무성 대표단 내주 EU 방문(9/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이달 둘째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EU 집행위원회의 브람 브랜즈 대외협력국장은 이 방송에 “공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이 EU 집행위와 이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상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일정은 하루 정도로 안다”고 밝힘.
- RFA는 또 브랜즈 국장이 2008년 폐쇄된 평양의 EU 대표부가 재개설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함.
- 앞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30일 궁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유럽 국가순방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한편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회의 한반도관계대표단은 오는 10월 북한과 의원외교를 위해 방북할 예정

기타 (대외 일반)

- 北 인민보안부친선참관단(단장 : 김철웅 인민보안부 참모장), 9.2 中國 공안부장(멍지엔주)과 베이징에서 담화(9/2, 중통)

### 3 대남

- 北 “남측 금강산 국제중재 제소하면 망신자초”(9/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재산권 처분에 법적·외교적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국제사회 앞에서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 당국은 금강산 국제관광이 추진되는데 당황해 양탈을 부리고 있지만 명백히 말하건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정부가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을 통해 국제분쟁해결 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면 우리는 제소할테면 하라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중재재판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았을 때 성립된다”고 주장
- 박근혜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돼야”(9/1, 연합뉴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발전적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박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출석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 9·10월호에 자신의 기고문이 게재된 것을 계기로 외교·안보분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함.
  - 그는 기고문에서 언급한 ‘신뢰외교’에 대해 “힘의 논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신뢰를 우선해 배려할 때 국가간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설명하고, ‘균형정책’에 관해서는 “신뢰외교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 전략으로, 안보-교류협력간 균형과 남북관계와 국제공조간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
-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측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이뤄나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으나 “북측의 의미있는 조치가 관계발전의 전제조건이나”는 질문에는 “그게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함.
  - 박 전 대표는 남·북한-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1998년 국정감사 당시 파이프라인 연결을 주장했었다”면서 “기고문에 언급한 유라시아 철도는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모두가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어젠다”라고 강조

● **민화협, 5차분 밀가루 154t 北에 전달(9/2,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2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154t(약 8천만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민화협의 이번 지원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전남본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등이 마련한 것으로, 지난 7월26일 1차분 300t 전달 이후 다섯 번째임.

■ **기타 (대남)**

-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의 대통령 통일정책특보 내정 관련 “南 당국의 기만극 연출”이라고 비난 (9/2, 중방)
- 괴뢰 집권세력은 현인택을 통일부 장관직에서 해임시켰다고 하지만 대통령 통일정책특별보좌관 자리에 옮겨놓고 통일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종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음.

9.05-9.11

9월

2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 대내

### 가. 정치

#### ● 北 “남북관계 출로는 공동선언 존중·이행”(9/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북남관계 개선의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신문은 ‘출로는 북남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지금이야말로 남조선 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의사를 공식 밝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촉구
- 신문은 또 남한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대화와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북남관계는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 때문에 파국에 처한 것이 아니다. 북남관계 파국의 원인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대결정책에 있다”고 주장
- 한편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및평화연구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 당국이 위험천만한 ‘흡수통일’ 망상에서 깨어나도록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담화는 또 “우리가 주장하는 연방제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는 달라도 공존, 공영하자는 통일방식”이라며 “흡수통일은 전쟁으로 가는 길이고 연방제통일은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주장

#### ● 北총리 “북남관계 발전의 새 국면 열 것”(9/8, 조선중앙통신)

-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는 8일 정권 창건 63주년(9월9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북남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앞당겨 오고야 말 것”이라고 말함.
- 최 총리는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최 총리는 이어 “김정일 동지께서 올해 5월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동(華東)지역에 대한 방문에 이어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의 광활한 대지를

- 오가며 조중(朝中.북중), 조러(북러) 친선의 연대기에 새로운 장을 아로 새기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했다”고 칭송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그는 또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야 한다”며 “군대를 강화하고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함.
  - 이날 행사의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영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문경덕·김평해·태종수·김영일·김양건·최태복 당비서, 로두철·한광복·강석주·조병주·강능수 내각 부총리,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국장, 리병철 공군사령부 사령관, 백세봉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 **김정일父子, 평양건설현장 등 4곳 현지지도(9/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수대지구건설장 등 평양시 4곳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만수대지구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수도 건설자들과 인민군인들의 드높은 정치·사상적 열의와 노력적 투쟁에 의해 지금 만수대지구에는 기존의 도시 건설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의 새로운 거리가 시대적 미감에 맞게 건설되고 있다”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평양 소재 8월 풀가공공장도 돌아보면서 “공장이 새롭게 개건(리모델링), 현대화된 결과 지난 시기 쓴 맛과 떫은 맛을 내던 8월 풀당이 이제는 사탕의 고유한 맛을 내게 됐다”며 “식료공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치하
- 김 위원장은 또 금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밀쌈직장도 방문해 “새로운 밀쌈 생산공정을 꾸려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며 “이동식 밀쌈봉사 매대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면 수도시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운택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함.

- 새로 건설된 보통문거리 고기상점도 찾아간 김 위원장은 “수도시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서 보통문거리 고기상점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상품 진열은 상업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는 수단인 하나이므로 상품진열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의 건설현장 등에 대한 현지 지도에는 후계자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태종수·문경덕 당비서,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제1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일·정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9/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 창건 63주년을 맞아 9일 오전 0시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정권창건일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하기는 1998년 이후 13년 만으로 이는 특히 김정일·정은 부자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보도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일 이후 두 번째로 정권 창건기념일을 맞아 이곳을 참배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강조하고 3대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날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룡해 당비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당 중앙군사위원인 김경옥·김명국·김원홍·정명도·리병철·최부일·김영철·윤정린·최상려·최경성, 국방위원회 국장인 현철해 등이 함께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北정권 창건 63주년 기념연회 열어(9/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9일 정권 창건 63주년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연회에는 노동당과 국가의 간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인민군 장병, 비전향 장기수 등이 참석했고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 사절단, 무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초청됐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한편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8일 일본 도쿄의 조선회관에서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주최로 정권 창건 63주년을 기념하는 연회가 열렸다고 10일 전함.

● **김정일·정은, 목란비디오사 현지지도(9/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평양 소재 목란비디오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목란비디오사 간부들로부터 새로 건설된 DVD공장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최첨단 설비의 생산과정 등을 돌아보고 문화매체의 생산과 보급의 정형을 요해(了解.실태 파악)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는 김기남·박도춘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평양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9/8, 중통)
  - '평양 8월 풀가공공장'과 금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밀쌈직장', '만수대지구 건설장', '보통문거리 고기상점' 현지지도
  - 김정은, 김기남, 김경희, 장성택, 태종수, 문경덕, 박봉주, 한광상 동행
- 김정일, 9.9 0시 금수산기념궁전 찾아 김일성에게 경의 표시(9/8, 중통)
  - 김정은, 이영호, 김영춘, 김경희, 장성택, 김정각, 최용해, 우동측, 이명수, 김경욱, 김명국, 김원홍, 정명도, 이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란, 최상려, 최경성, 현철해, 최고사령부작전지휘성원들, 군 지위성원들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北 정권 창건(1948.9.9) 63주년 관련 動向】
  - 駐北 외교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 9.6 원산청년발전소·고산과수농장 참관(9/6, 중통)
  - '양육출'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 9.6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성의 정권 창건 업적' 선전(9/6, 중통)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8.30) 제1852호 발표, 모범적 단위들에 '2중 26호모범기대영예상'(김책공업종합대학 공업경영학 등), '26호모범기대영예상'(검덕광업연합기업소 2선광직장 등) 수여(9/6, 중통)
- 北, 9.8 '공화국 창건' 6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9/8, 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보고), 이영호 등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등과 재일본조선인총속하단, 해외동포대표단,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참가

## 나. 경제

- “美NGO 10일까지 대북수해지원품 분배감시”(9/5,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지난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북한에서 의약품, 위생용품, 정수기 등의 구호물자가 수재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함.
  - ‘사마리탄스 퍼스’를 비롯한 미국의 5개 민간구호단체 관계자 6명은 지난 2일 평양에 도착해 미국에서 보낸 화물기를 접수하고 강원도와 황해도에서 분배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의 홍수 피해현황도 점검할 계획
  
- “北 WMD수출·수입 잇따라 차단”(9/5, 연합뉴스; 위키리크스)
  -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비밀외교 전문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미국은 북한의 WMD 관련 활동을 저지하고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숨가쁜 행보를 보였는데, 그 중 북한이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무기류를 수출하려다 차단된 경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 국무부는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국가 대사관에 2009년 1월15일 보낸 전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수출을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단이 사하라 주변지역을 여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와 관련 북한 대표단의 도착 시기가 북한 선적 화물선 비로봉호가 이 지역에 도착하는 시기와 맞물렸다면, 이는 화물선에 무기류가 실린 때문으로 추정하고, 이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요구하고, 북한과의 무기거래 중단을 관련국들에 경고토록 자국대사관에 지시
  - 이 밖에 4월29일 주중미대사관에 보낸 전문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전자장비를 남포항에서 2월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고, 현재 닝보항에서 시리아로 보내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중국측에 제공하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와 수출 저지를 요구
  - 2008년 10월7일 스위스주재 미대사관에 보내진 국무부 전문은 북한이 바세나르체제와 핵공급그룹이 통제하는 민감한 장비를 스위스 회사를 통해 구매하려 한다는 정보가 담겨있었으며, 북한이 중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 스위스의 샤푸블린이라는 회사에서 선반기계류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다

면서 스위스 당국의 적극적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미 국무부는 2007년 8월29일 요르단주재 자국 대사관에 보낸 비밀 전문을 통해 북한이 요르단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랍뱅크를 통해 이란, 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이런 정보를 요르단측에 주면서 주의하도록 당부

● **“北주민 하루 식량배급 여전히 200g 불과”(9/6, 미국의소리(VOA))**

- 북한 당국이 지난달 성인 주민 한명에게 하루 2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6일 보도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최근 몇 달간 북한의 공공배급은 수입 곡물로 유지됐다”고 전함.  
 - WFP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하루 배급량은 지난 4월 400g에서 5월 190g, 6월 150g으로 계속 줄었다가 7월과 8월에는 200g으로 약간 늘었음.

● **“김정일, 나선특구는 3대산업으로 부흥시켜야”(9/6,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9년 나선 경제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조업, 물류 및 교통, 관광 등 3대 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라선시 인민위원회 황철남 부위원장(부시장격)은 최근 나선 경제 경제특구 및 금강산 시범관광에 나선 외신기자들에게 “우리의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나선시를 방문했을 당시 우리에게 ‘3가지 핵심산업을 통해 나선 경제특구의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나선 경제특구 당국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제조업, 물류 및 교통,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황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 황 부위원장은 “(나선 경제특구의 경우) 현재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투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이라면서 “수많은 중국의 섬유 기업들, 심지어 대만의 섬유기업들도 나선지역에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

- “지난달 러시아 곡물 1만8천t 北에 전달”(9/7,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8월 한달 동안 러시아가 곡물 1만8천t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전함.
  - 러시아는 지난달 밀 1만1천200t과 밀가루 6천600t을 북한으로 보냈고 이 곡물은 북한의 12개 식품 가공공장에 분배됐다고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이 밝힘.
  
- 北, 中창춘서 라선특구 투자유치 설명회(9/7, 연합뉴스)
  -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 황철남 부위원장이 7일 중국 창춘(長春)에서 라선특구의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황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7회 지린(吉林)·동북아경제무역박람회의 ‘조선(북한)의 날 및 중·조무역투자항목상담회’ 행사에서 “라선은 중국, 러시아와 접해 있고 유럽이나 북미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천혜의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어 국제 무역의 최적지대”라고 밝힘.
  - 그는 중국 훈춘(琿春)-북한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가 오는 11월 완공되고 러시아 하산에서 두만강을 거쳐 라진항에 이르는 광궐 철도 보수공사도 오는 10월 마무리되며 라진과 중국의 연길(延吉)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 개설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그는 또 라선특구 용수 해결을 위해 2천200만m<sup>3</sup>를 저장할 수 있는 수원지를 확보했으며 이곳에 2천100kW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도 건설, 전력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임.
  - 또 태국 기업이 2천688만 유로를 투자, 국제전화가 가능한 유·무선 통신망을 갖췄고 수심이 깊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라진과 선봉, 웅상항 등 3개 부동산이 있으며 경관이 빼어난 20여 개의 섬이 있어 국제적 관광지 건설도 가능하다고 말함.
  - 황 부위원장은 50여 개의 법령을 정비, 라선 투자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투자 원금은 물론 이윤을 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각종 세금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 “北나선특구 근로자 최저임금 80달러”(9/8,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공동개발 중인 나선 경제특구에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으로 80달러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소식통은 8일 “최근 입수한 ‘나선경제무역지대 세금정책’ 책자는 ‘기업경영기간 종업원의 월 노임 최저기준은 80달러’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책자는 나선시세무국이 7~8월 외국인 등에게 세금정책을 소개하려고 만든 자료”라고 밝힘.
- 중국 기업들이 최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선특구의 저임금은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한 북한 전문가는 “나선특구의 최저임금이 개성공단보다 높지만 중국내 임금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 동북 3성 기업들의 투자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봄.

● “北, 극동 아무르주 농지 20만 ha 임대 협상”(9/8, APN)

- 러시아 극동 지역에 곡물 생산을 위한 농업 기지 건설을 추진 중인 북한이 극동 아무르주(州)의 농지 20만 헥타르(ha)를 임대하기 위한 주정부 측과의 1차 협상을 끝내고 이번주 중에 2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현지 인터넷 뉴스 통신사 APN이 8일 보도
- 북한 농업성 대표단은 지난 1일 아무르주 주도 블라고베센스크를 방문해 주정부 인사들과 협상을 벌였으며, 아무르주 주정부 대외경제관계 국장 이고리 고레보이는 “1차 협상에서 1ha당 연 50루블(약 1천800원)에 농지를 임대하는 문제가 논의됐다며 최종 가격은 협상이 끝나야 정해질 것”이라고 전함.
- 북한은 매년 반복되는 식량난 극복을 위해 러시아 극동 여러 지역에 걸쳐 수십만 ha의 농지를 임대해 그곳에서 콩, 감자, 곡물, 채소 등을 재배한 뒤 이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FAO “내달 중순 北에 구제역 백신 전달”(9/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다음 달 중순 북한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
- 이 단체는 “소, 돼지 등 가축 200만 마리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전달할

- 예정”이라며 “가축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욱 허약해지고 구제역에 취약할 수 있어 가을에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
- 북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9개 농장에서 돼지 1만500여 마리, 소 1천100여 마리, 염소 170여 마리 등이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가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黃北道 일꾼들의 ‘신평금강명승지’ 개발공사 적극 추진 및 黃南道 삼천군 등 살림집 공공건물들 100% 水糶복구 보도(9/7, 평방)
- 김정일 著作(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8돌 즈음 “김정일의 영도따라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철저히 관철,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독려(9/7, 중통·노동신문)

다. 군사

- “北 교란거리 100km 이상 전자전 공격장비 개발중”(9/6,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지상 최대 교란거리가 100km 이상인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기 신형 전자전 공격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방부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전자전 공격·교란무기’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구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다양한 통신·레이더 교란 장비 약 20여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 북한이 최근 자체 개발 중인 신형 전자전 공격장비에는 교란거리가 100km 이상인 GPS 교란기도 포함된 것으로 군은 파악
  - 지금까지 북한은 50~100km의 범위에서 GPS 전파교란을 할 수 있는 차량 탑재 러시아제 재밍(jamming, 전파방해) 장비를 도입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2~3개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전자전 부대의 경우, 평양권에 1개 연대가 있고 전방 군단에 각 1개 대대 규모의 전자전 부대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
  - 적의 전자기 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탄을 북한군이 보유했는 지에 대해 군은 “확인된 첩보는 없지만 북한의 신형 전자전 장비 개발

추세와 각국의 EMP탄 개발 추세를 고려할 때 북한도 향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라. 사회·문화

- **北매체 “태권도 세계대회 열기 들끓어”(9/5,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는 6일 일주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막이 오르는 제17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수도(평양)가 들끓고 있다”고 태권도 대회의 열기를 전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5일 “이번 대회에 80여개국 선수 1천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며 “대회 마크와 컵(트로피), 상장, 메달이 제조되고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 보장 사업도 끝났다”고 전함.
  - 대회 주관 기관인 국제태권도연맹(ITF)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룡와이맹 ITF 부총재에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 행사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김경호 북한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팜루 국제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北보건성-WHO,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9/7,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H5N1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변종이 발견되면서 북한 보건성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함.
  - WHO 평양사무소의 요나스 테게근(Yonas Tegegn)박사는 방송에 “북한 보건성에 국제기준에 따른 AI 경계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인 조언과 함께 발병 시 농업성이 보건성에 바로 통지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AI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내 32개 병원을 ‘AI 감시시설’로 지정했다”고 밝힘.
  
- **“北 결핵보균자 매년 10% 증가”(9/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해온 미국 스탠퍼드대 샤론 페리 박사는 7일

- 최근 5년간 북한에서 결핵보균자가 매년 10% 증가했다고 밝힘.
- 페리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를 낸 결과 북한에서 과거 5년간 해마다 10%의 결핵보균자가 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결핵보균자가 1~2%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보균자 증가는 우려된다”고 말함.
  - 그는 “북한 인구의 50%가량이 잠복기 결핵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염성은 없다”며 “문제는 잠재보유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영양결핍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

● 21차 국제태권도연맹총회 평양서 열려(9/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제21차 총회가 7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총회 참석자들은 지난 대회 이후의 사업총화(결산)과 연맹의 강화·발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에 이어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제22차 ITF 총회를 불가리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지난 6일 개막된 제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일정속에 열린 이날 총회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장웅 ITF 총재, 팝루 ITF 사무총장, 룡와이맹·유리 칼라쉬니코프 ITF 부총재, 강능수 내각 부총리,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

● 장웅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체육교류 기대”(9/7, 미국의소리(VOA))

-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에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전함.
- 장 위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라며 “관계가 개선된다 해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남북 공동개최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봄.

● 평양도 휴대전화 소음 골머리…에티켓 강조(9/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7일 오후 ‘공중도덕과 우리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손전화기’(휴대전화)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

- 중앙TV는 벨 소리가 갑자기 크게 울리면 주변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소리를 낮추거나 고상하게 설정하고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 역시 자제하라고 당부했으며, 극장(공연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공연장에 들어갈 때는 전원을 끄거나 공연장 밖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
- 이는 북한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예절을 TV를 통해 가르칠 정도로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北주민 2달러 지폐 수집 열기…폼귀현상”(9/9,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에서 미화 2달러 지폐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폼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
- 평양에 거주하는 한 화교는 “2달러 지폐를 소지하고 있으면 재수가 좋다는 소문이 북한 전역에 번지면서 이를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압달러상에게 부탁하거나 은행에 가도 구할 수 없다고 방송에 전함.
- 2달러짜리가 폼귀 현상을 빚게 되자 요즘 중국 선양이나 단둥, 옌지 등 변경 도시에서 2달러짜리 지폐를 구하는 북한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2달러짜리 거래 가격이 1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방송은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9.5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9/5, 중통)
- 北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8.1 개막/5월1일경기장), 국내외 관심속에 연일 성황리에 진행중(9/6, 평방)
- 제17차 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9.8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진행(9/8,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강능수(내각 부총리/개막연설), 최용해(黨 비서), 박명철(체육상), 김경호(北태권도위원장), 양만길(평양시인민위원장/개막사), 장웅(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개막연설), 부총재들, 하인 버브르겐(스포츠어코드 위원장/개막연설) 등 참가

## 2 대외

### 가. 일반

#### ● HRW·엠네스티, 北 인권개선 유엔 압박(9/7, 연합뉴스)

-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엠네스티(AI) 등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국제 연대 기구를 만드는 등 유엔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7일 오전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메이지(明治)대학교 ‘아카데미 커먼 빌딩’ 2층에서는 HRW 등 세계 15개국 30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창립 대회를 개최
- HRW 등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매년 대북 인권 개선 결의를 하거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개인이 조사하는 수준으로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유엔 산하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만들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현장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 ● 후진타오 “조선 강성국가건설 큰 성과 축원”(9/8,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8일 “조선인민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새롭고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후 주석은 이날 북한정권 창건 63주년(9월9일)을 기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조(中朝·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隣邦)”임을 강조하면서 “중조 친선협조 관계는 두 당,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 노력 밑에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으며 쌍방 사이의 교류와 협조도 여러 분야에서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후 주석은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와 공동 명의로 이 축전을 김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에게 보내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김기남, 9.6 만수대의사당에서 시리아 신문사 대표단과 담화(9/6, 평방)
- 김영남, 9.7 駐北 미얀마 '틴 우' 대사 신임장 접수(9/7, 중통·중방)
- 박의춘 외무상, 9.7 駐北 미얀마 新任 대사와 담화(9/7, 중통)
- 최룡해(黨 비서), 9.7 訪北 베트남 노동총연맹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접수(9/7, 중통·중방)
- 中國 후진타오 주석·우방궈·원자바오, 9.8 '공화국 창건' 63돌 즈음 김정일·김영남·최영림에게 축전(9/8, 중통)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9.8 독일사회민주당출신 유럽의회 의원(페터 지몬) 일행과 담화(9/8, 중통)
- 김영남, 9.8 우간다 내무상(힐라리 오네크) 일행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8,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김외교 “핵안보회의때 북핵 별도논의 있을 것”(9/5,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주변 국가들이 다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양자 또는 몇나라 간 회담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 연합뉴스에 의하면 김 장관은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인 김 장관은 이날 준비기획단과 주관사들 사이의 기본약정 체결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북핵 문제는 의제에 들어 있지 않으나 관련국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함.
- 그는 6자회담 재개 시점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6자회담이 언제 열릴 것이라고 시기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와 3자, 다자간 회의들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핵안보정상회의 북한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를 다 지키면 북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서 “결국 공이 북한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

● 러 “비핵화 등 위해 조선과 긴밀히 협력”(9/8, 조선중앙통신)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선(북한)과 긴밀히 협력해

-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 보로다브킨 차관은 지난 6일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북한정권 창건 63주년(9월9일) 기념 연회에서 행한 축사를 통해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고 호상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이날 연회에는 왕즈귀(王志國) 철도부 부부장, 쉬화이바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전쟁이론·전략연구부 부부장, 우동희(武東和) 중조(中朝·북중)우호협회장 등 중국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

### 3 대남

#### ● 금강산기업들 “北 ‘3대조건’ 수용했다 돌변”(9/5, 연합뉴스)

- 금강산지구 투자기업 모임인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는 5일 북한이 새로 만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추진하는 금강산 국제관광 사업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오정원 회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민관합동협의단이 7월 말 금강산 문제 협의차 방북했을 때 북한은 관광재개를 요구하며 우리 측이 요구하는 ‘3대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했다”며 “깊은 내용은 문서화하자고 한 뒤 헤어졌는데 왜 돌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힘.
- 오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익이 나든 안나든 (북한이 추진하는 금강산 국제관광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그는 “남북 당국은 겨레의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쌓아온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현대아산에도 기존의 금강산관광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

#### ● 北 “금강산중단 피해 총 6억달러…물수는 합법”(9/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5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지난 3년간 직접적 피해 1억달러를 포함해 총 6억달러의 직·간접적 피해를 봤다며 남측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합법적인 주권행사라고 주장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재개발 가망도 없는 금강산 관광을 보며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며 “(국제관광특구법 제정은)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리기를 바라는 해내외(국내외)의 절절한 염원, 세계의 수많은 기업인과 투자가의 요청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남북간 투자보호에 관한 협의서’ 제4조를 인용해 “공공의 목적으로 상대방 투자가의 투자재산에 대한 몰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 지구내 재산은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남측과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이어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자산 전반이 3년간 물에 잠기고 부식·부패된 상태로 조금 더 있으면 완전히 못쓰게 된다”며 “(남측 기업에) 재산등록을 다시 하라고 한 것은 재산침해가 아니라 재산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

● **北대풍, 현대아산에 금강산자산 협의처리 제안(9/6, 연합뉴스)**

- 북한측 외자유치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에 대한 일방적 처리는 있을 수 없다면서 협의 처리를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박철수 총재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측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개인 사유재산 보호가 명시돼 있으며, 이 때문에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해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힘.
- 박 총재는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금강산특구 시범여행 과정에서 여행단이 온정각 등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 방문을 요청했으나 현대아산과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함.
- 그는 그러면서 “조선대풍그룹은 북측 정부로부터 금강산 특구 개발과 관련해 위임을 받은 상태”라며 “정치적인 문제가 배제된 금강산 특구의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조선대풍그룹이 통로이기 때문에 현대아산에 금강산 자산 협의 처리를 제안한다”고 강조
- 그는 아울러 “현대아산이 금강산 내의 해당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든,

아니면 임대 또는 매각하든 간에 선택은 현대아산의 몫”이라며 “그와 관련해 논의하자는 게 조선대풍그룹의 입장”이라고 주장

- 박 총재의 이런 제의는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선포하고나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에 대해 일방적인 몰수후 매각 방식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 25일 신규 금강산 사업자로 선정된 미국 뉴욕의 한국계 무역회사인 미주조선평양 무역회사가 금강산관광특구지도국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조선대풍그룹이 ‘대표성’이 있는 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있다고 뉴스는 전함.

● **관광공사 “금강산재산 몰수 부당, 대화 재개하라”(9/6, 연합뉴스)**

- 한국관광공사는 6일 금강산에 있는 자사 소유의 재산을 동결·몰수한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에게 발송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공사는 전통문에서 “온천장과 문화회관 및 온정각에 대한 동결 및 몰수 조치는 부당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재산권을 귀측(북한)이나 제삼자가 침해 또는 이용하는 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
- 또 “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자산 손상 및 안전사고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으며 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

● **정부, 금강산 관광·투자자제 외교조치(9/6, 연합뉴스)**

- 정부는 6일 북한의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국에 관광 및 투자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국 주재 우리 공관에 관련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외교적 조치의 대상은 금강산지구에 관광하거나 투자할 개연성이 있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이 될 것으로 관측
-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통일부 회의실에서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금강산 관광사업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 北, ‘南 금강산관광 자제요청’ 비난(9/7, 우리민족끼리)

- 정부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금강산 관광 자제와 투자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논평을 통해 “내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애걸하다 못해 이와 관련한 편지까지 외국 대사관에 보낸다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실로 역겹기 그지없다”며 “그런 몸부림으로 금강산 국제관광에 제동을 걸 수 있겠는가”라고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금강산 국제관광을 진행하는 현재도 남측 현대가 관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아직 현대 측과 제소를 논의해본 적이 없다”며 “(국제문제화에)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남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실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80호(9.6)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美國의 요구에 따라 北과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새로운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범죄적 책동”으로 비난하며 ‘기지건설 반대투쟁’ 선동(9/6, 중통)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12-9.18

9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 대내

### 가. 정치

- **김정일·정은, 악연 ‘여맹’ 공연 관람(9/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전국여맹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11일 김 위원장의 공연관람에는 김정은 이외에도 김기남 당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박도춘 당비서, 리영수 당 부장, 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수행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후계자 시절 계모인 김성애 전 여맹 위원장과의 치열한 권력싸움 때문에 한때 조선민주여성동맹 핵심간부를 지방으로 축출하고 지방조직을 해산시켜 조선직업총동맹에 흡수시키는 등 여맹을 무력화할 정도로 여맹과 오랜 악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여맹 공연 관람은 이례적임.
  - 김 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대동하고 여맹의 공연을 관람한 것은 앞으로 후계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여맹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
- **北총리, 평양 식료품공장 시찰(9/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총리가 지난 11일 금성식료공장과 평양8월풀가공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14일 밝힘.
  -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영림은 금성식료공장 밀쌈직장, 8월풀가공공장 내 8월풀당가루생산공장을 돌아본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를 진행
- **北 “5·24조치 철회해야 남북관계 개선”(9/1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남한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의 철회를 요구
  - 노동신문은 이날 ‘제거돼야 할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글에서 “남조선당국이 북남 사이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배격을 받는 5·24 조치를 더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신문은 “북과 남이 불신과 오해의 감정을 풀고 관계개선을 도모해나가자면 남조선 당국이 남은 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북남 사이의 내왕(왕래)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는 5·24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북남관계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

● **김정일 “북러관계 발전 확신”(9/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북러관계의 발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은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생일 축전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조러 친선협조 관계가 최근 우리 사이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계속 좋게 발전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말함.

● **“식량조달 실패 北무역성 간부들 구속·경질”(9/15, 오늘의북한소식)**

-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은 15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20호)에서 대북소식통을 인용, 북한당국이 최근 무역성 부상(차관급)과 참사(차관보급)를 직무태만 및 과제 미완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국장급 직원 7명을 경질했다고 밝힘.
- 구속된 무역성 부상 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서 장기간 활동했지만 중국 측이 후불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식량조달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짐.
- 좋은벗들은 내각 정치국 호위사령부와 국방위원회 연합검열조가 무역성을 대상으로 과거 세입·세출 등에 대한 누수 항목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중앙당 간부 등의 말을 인용, “무역성 간부 구성원 중 약 90%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리용남 무역상도 역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함.
- 한편 좋은벗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성과가 ‘별것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평양에서 쌀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식량난을 의식한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에게 ‘추석을 간소하게 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함.

- **“북한, 키신저 전 미국무에 방북 요청”(9/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중국의 대북소식통은 지난달 초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의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초청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단지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RFA는 전함.
  - 북한은 2008년에도 미국을 방문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통해 키신저 전 장관의 방북을 요청했지만, 당시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 미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편집장은 RFA에 “북한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 있고 친중인사인 키신저 전 장관과 대화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처럼 북한에도 문을 열도록 키신저 전 장관이 설득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고 말함.

####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전국 여행소조종합공연 관람(9/12, 중통·중방)
- 김정은, 김기남, 김경희, 장성택, 최용해, 박도춘, 이재일, 당중앙위와 여행중앙위 책임일꾼들 등이 함께 공연 관람

## 나. 경제

- **1~7월 남북 교역 작년보다 16% 감소(9/12, 연합뉴스)**
  -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남한이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4억4천736만달러, 반입액은 5억1천19만달러로 총 교역규모는 9억5천755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반출액으로는 작년 동기(5억1천976만달러)에 비해 14% 줄어든 것이며 반입액도 1년전 6억2천503만달러에서 18% 감소했으며, 작년 같은 기간 교역액이 11억4천479만달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6% 감소
  - 남북한 교역 감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폭격

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北-中, 나선특구 전력공급 6월 합의”(9/13, 연합뉴스)

- 중국이 나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지난 6월 북한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소식통은 13일 “지난 6월8일 북한 나선에서 개최된 나선시와 중국 지린(吉林)성의 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국이 나선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며 “최근 중국측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힘.
- 북중 전력분야 협력 합의문에는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짐.
- 나선특구의 전력 프로젝트는 훈춘(琿春)~나진 고압배전과 나선화력발전소 건설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 황금평·라선 착공 3달..“투자 실적 전무”(9/14,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황금평과 라선시 공동개발에 3개월이 지나도록 투자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양국이 지난 6월 7~9일 압록강의 섬인 황금평과 한반도 최북단인 라선 지구를 공동 관리하는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착공식까지 공동개최하면서 개발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민간 투자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
- 베이징의 유력한 대북소식통은 14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호응이 없으며 지금까지 투자가 성사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실제 북·중 양국은 두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합의하고서 정부간 인적 교류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본격적인 ‘시장경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와 관련해 베이징 정가에서는 우선 황금평의 경우 여건을 살펴볼 때 인

- 접한 단둥(丹東)은 물론 랴오닝성 전체의 외국 투자를 ‘분산’해갈 존재라는 점에서 중국 기업의 반응이 신통치 않을 조건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음.
- 이와는 달리 라선지구는 중국의 동북3성과 북한의 경제개발을 연계한 ‘창·지·투(長吉圖)계획’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황금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낫지만, 북한측이 라선특구의 부두에 대한 ‘통 큰’ 개방을 꺼리면서 중국 기업들이 투자여부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지적
  - 이와 관련 특히 북한측에서는 장성택 행정부장의 직계인 합영투자위에서 리철(李徹.75) 전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뛰고 있으나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나진~하산 철도 내달 시범운행”(9/14, 레일)

-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의 개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 철도공사가 오는 10월 이 철도에 시범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철도 전문 웹사이트인 ‘레일’(rail.co)이 14일 보도
- 러시아 측은 나진항 화물부두로 이어지는 이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는 연내에 나진~하산의 본선과 지선을 합쳐 64km의 선로를 부설하고 선로 전환장치 56개를 설치할 계획

● FAO·WFP, 곡물작황 조사차 내달초 방북(9/15, 미국의소리(VO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방북해 곡물 작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4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북한 전역에서 수확 중인 곡물을 직접 점검해 수확량과 식량부족량을 산출할 예정이며, 또한 별도로 취약지역의 병원과 가정을 방문해 식량 섭취량과 영양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
- FAO와 WFP는 지난 1995년부터 북한 당국의 초청을 받아 2005~2007년,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한 두차례 방북해 작황 조사를 하고 있음.

● “北 노동당, 주민에 ‘강성대국 현금’ 강요”(9/15,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세워 주민들로부터 현금을 강요하는

-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5일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시장과 도심 거리를 비롯해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강성대국은 우리 자신이 마련하고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강연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함.
- 강연회에서 다른 도(道)·시(市) 주민들의 납부 사례를 비교 선전하거나 강연 후 당에서 동원된 주민들이 돈을 내는 모습을 연출하며 현금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전해짐.
-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희천발전소 건설과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등 각종 계기 때마다 현금을 부과해왔는데 최근에는 군중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모금을 강요하는 새로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함.
- 노동신문도 주민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동신문은 지난달 20일자 정론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7월27일 새벽 큰물(홍수) 피해 현장에서 소를 구원하고 숨진 리성진 동무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그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온 나라가 따라 배우도록 해주시었다”면서 “바치려는 사람보다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허약해지고 결국 조국은 변영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 “北 주민 600만명, 식량 부족 위기”(9/15, 블룸버그통신)

- 국제 사회의 원조 감소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4분의1에 해당되는 600여만 명이 올해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 보도
- FAO 아시아 지역 대표인 코누마 히로유키는 이날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름철 홍수와 지난 겨울 동안의 한파 등으로 북한 쌀 작황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경우 70만t 정도의 식량이 부족해 북한 주민 600만여명이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14일 사흘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방콕에 입국한 코누마 대표는 “미국 등이 김정일 정권의 자금줄 차단을 시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가 감소한데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해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식량 부족분을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코누마 대표는 “북한의 식량 상황은 내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면서 “FAO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

● **北中 합작 자동차조립공장 생산 시작(9/16, 내나라)**

- 북한이 자동차 조립 생산을 위해 중국기업과 함께 설립한 평운중성합영회사가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다고 북한의 공식 포털사이트 ‘내나라’가 16일 전함.
- 내나라는 이날 “평운중성합영회사 차조립공장이 생산을 시작했다”며 “이 공장은 조선의 수도여객운수지도국과 중국 단둥중조변경무역유한공사가 합영기업으로 설립했다”고 밝힘.

● **유럽 산업시찰단 내달 북한 방문(9/16, 미국의소리(VOA))**

- 유럽 기업인들이 다음달 17일부터 2박3일 동안 사업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
-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인 ‘유럽아시아협력국’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북한 산업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북 계획을 밝힘.
- 유럽 기업인들은 북한에서 공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북한의 정책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망을 구축하며 10월17일에는 연례행사인 ‘평양 추계 국제 상품전시회’에 참석할 예정

● **“北-EU 올 상반기 교역 60%↓”(9/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상반기 북한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교역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방송은 EU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올 1~6월 EU와 북한간 교역 규모는 4천580만 유로로 작년 상반기의 1억1천550만 유로보다 60%가량이 줄어든 액수라고 설명
- 북한의 대 EU 수출액은 3천17만 유로, 수입액은 1천560만 유로이며 EU 국가 중에서 북한과의 교역액이 많은 순서는 독일(1천800만 유로), 네덜란드(1천360만 유로), 이탈리아(380만 유로) 등임.
- 북한이 EU에 많이 수출한 품목은 의류(1천만 유로), 소금 및 유황(850만 유로) 순이었고 북한이 EU에서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 광학 물질, 전기제품 등임.

기타 (대내 경제)

- 최영림 총리, 9.11 금성식료공장과 평양8월풀가공공장 현지 了解 및 ‘협의회’ 진행(9/13, 중통·평방)
-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곡식을 허실 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추동할 것”을 煽動(9/14, 중통·민주조선)
- 黃海南道 신천군 새길협동농장 일꾼들, 가을걷이와 낱알탈기에서 성과(9/15, 중통)
- “식량문제의 자체해결은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애국사업”이라며 ‘適期에 가을걷이와 낱알 탈기 畚民 총동원·총집중’ 再次 독려(9/16, 중통·노동신문·중방)
- 咸鏡北道 청진시 ‘염분진호텔’ 건설 힘있게 추진中(9/18, 평방)

다. 군사

● “북-러시아, 합동군사훈련 합의”(9/13, 아사히신문;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과 러시아가 이르면 올해에 합동 군사훈련을 처음으로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서울발로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양국 군이 벌이기로 한 훈련은 전투기 조종사가 조난했을 때에 대비한 수색 구조 훈련으로, 이르면 연내에 러시아 극동 지역 해상에서 양국의 해·공군 병사가 참가해 훈련할 것으로 예상
- 아사히신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8월 정상회담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격 훈련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제안했지만, 러시아측이 난색을 보여 수색 구조 훈련을 벌이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또 북한이 한·미·일 군사 연계 강화에 맞서 중국에도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다거나 8월 북러 정상회담에 수행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나 주규창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장 등이 러시아측에 무기·부품을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응하지 않았다는 정보도 있다고 덧붙임.
- 앞서 이타르타스 통신은 지난 8월 콘스탄틴 시덴코 동부 군관구 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합동 군사 훈련 등 양국의 군사 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전한 적이 있음.

● “북한 군인 절반 굶주림 상태”(9/13, 텔레그래프)

-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는 과거에는 민간인들에게만 국한됐지만 금년에는 상황이 나빠지면서 북한 군인의 절반 정도가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일본에 본부를 둔 비디오 저널리스트 단체인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이 입수한 비디오 화면을 토대로 보도
- 이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군의 한 어린 병사는 ‘부대원 가운데 영양실조를 경험한 군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이 금년 봄에는 5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대답
- 정부의 지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장교는 군인들의 한끼 식량이 단지 100g에 불과하다고 전함.
-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금년 4월 북한에 대한 비상 식량 구조 사업을 개시했으나 금년 여름 북한의 광범위한 지역에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화됨.

라. 사회·문화

● 추석은 北에도 명절…김일성 조상묘 참배(9/12, 조선중앙통신)

- 추석인 12일 북한 주민들도 가까운 친지끼리 모여 전통음식을 먹으며 차분하게 명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어서 추석에는 주민들이 친인척을 만나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성묘를 하며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정도로 조용하게 보내는 것으로 알려짐.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증조부모인 김보현·이보익, 조부모인 김형직·강반석의 묘소에 꽃을 보냈으며, 또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 꽃을 진정(進呈)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태종수·문경덕 노동당비서, 전하철·강능수 내각부총리가 헌화에 참여
-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김기남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최룡해·김평해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

- 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이 찾아 참배
-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통 명절을 쇠지 않다가 1988년에야 추석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명절로 인정

● **北 소설, 프랑스어판 출간..유립서 처음(9/14, 동북망(東北網))**

- 북한 작가 백남룡의 소설 ‘벗’이 최근 프랑스어로 번역돼 현지에서 출간됐다고 중국의 인터넷 매체 동북망(東北網)이 14일 보도
- 동북망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나라인 북한을 들여다볼 창문이 열린 것”이라며 “서구인들이 처음으로 문학작품을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
-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소설의 프랑스어판 출간은 수년 동안 한국 문학과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해 온 프랑스인 패트릭 모리스가 맡았으며, 패트릭 모리스는 “이 소설은 반정부 책동을 위한 것도, 북한 정치를 선전하기 위한 것도 아닌 순수 문학작품”이라며 “이 작품 속에서 한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건설적인 비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 **“평양서 수신 가능 라디오방송은 단 2개”(9/16, 연합뉴스)**

- 북한 평양에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방송은 대내용 평양FM방송과 대내외용 방송인 평양방송 2개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6일 북한 관련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테크([www.northkoreatech.org](http://www.northkoreatech.org))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호주인 마크 파헤이씨는 평양에 머무는 동안 숙소인 양각도호텔 32층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본 결과 단 2개의 방송만 수신
- 파헤이씨의 확인 결과 105.2MHz에서는 평양FM방송이 나왔고 89.2~106.5MHz의 13개 주파수에서는 모두 같은 내용의 평양방송이 수신
- 노스코리아테크는 “커버 지역이 좁은 FM방송은 국내용이고 평양방송은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주변국가에까지 보내는 방송으로 보인다”며 “평양방송은 단파와 중파를 모두 이용해 방송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밤시간대에 가장 수신이 잘 되는 외국방송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여자축구팀, 2012년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 획득 소개(9/11, 중통)
- ‘제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폐막식, 9.12 최룡해, 강능수, 박명철(체육상), 장웅(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下 태권도전당에서 진행(9/12, 중통)
-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정명훈’, 지휘 및 창작가들과 면담 진행(9/14, 중통·중방)
  - 국립교향악단·은하수관현악단 공연 관람 및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
- 문학예술출판사, 여러 주제의 단편소설집들 새로 출판(9/14, 중통)
  - 고귀한 의리, 삶의 보금자리, 전선길, 파도치는 기슭에서, 빛나는 별들, 역센 뿌리 등
- 北 축구대표팀, 9.18 중국팀을 1:0으로 이기고 ‘2002년 아시아 16세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예선 5조 1위 차지(9/18, 중통)

2 대외

가. 일반

● 美 카터 지명자 “北 WMD, 직접적 위협”(9/14,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13일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WMD)는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미국 영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카터 지명자는 이날 의회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미 정부는 북한의 WMD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 확산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
- 그러면서 “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정부 내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런 위협을 줄일 것이며, 동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카터 지명자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 “북한의 대규모 재래 군사력과 확산 행위, 우라늄 농축과 WMD 프로그램 등을 통한 비대칭전력 확충 등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
- 그는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언급, “북한이 한국을 2차례 공격한 것은 북한 정권이 언제라도 도발행위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상기시켰다”고 평가

- 이와 함께 카터 지명자는 “국방부는 북한의 무기 관련 기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해왔다”면서 “국제 비확산 규범 설정, 불법 화물에 대한 감시와 관련한 동맹국과의 협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

● **주북한 中대사, 北량강도·中장백 잇따라 방문(9/14, 연합뉴스)**

-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가 최근 북한과 중국 양국 접경인 량강도와 지린(吉林)성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최대 규모의 헤산 동(銅) 광산을 비롯해 량강도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을 통한 북·중 경제합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류 대사가 지난 2일 량강도를 방문, 북한과 중국 기업이 공동 설립한 헤산의 헤중광업합영회사를 시찰했다고 밝힘.
- 헤중광업은 2007년 중국 완상(萬向)그룹 산하 중광귀지(中광<金+廣>國際)가 51%의 지분을 갖고 북한 량강도광업연합기업과 합자해 설립한 동광 개발 업체로, 생산 책임은 북한의 헤산청년동광이 맡고 있으나 아직 가동은 되지 않고 있음.
- 류 대사는 이어 지난 3-4일에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 운영하는 압록강 상류의 운봉과 수봉 발전소에 들러 수력자원 이용 실태와 발전 계획을 점검
- 류 대사는 헤산 방문에 이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헤산과 마주한 장백(長白)현을 방문, 중국이 량강도의 지하자원 수입을 위해 건설 중인 통상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북·중 교역 현황도 점검
- 이에 따라 류 대사가 북한의 대표적인 지하자원 산지인 량강도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의 중국 반입 통로인 장백현을 방문한 것은 라선특구와 황금평 공동개발에 이어 북·중이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

● **“北통치구조 세계 최하위 수준”(9/16, 미국의소리(VOA))**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새로운 세계통치구조 포럼’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세계통치구조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조사대상 179개

국 가운데 172위를 기록,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함.

- 북한보다 통치구조지수가 낮은 국가는 짐바브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버마,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등 6개국이며, 북한은 이 단체가 평화안보, 법치, 인권, 지속가능 개발, 인간개발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매긴 통치구조지수에서 0.433점(1점 만점)으로 세계 평균 0.616점을 받음.

● **印尼대통령 北정권 창건 축하전문(9/16, 평양방송)**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창건 63주년을 축하하는 내용의 축전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평양방송이 16일 전함.
- 유도요노 대통령은 정권창건기념일(9·9)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보낸 축전에서 “이 기회에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광범위한 국제문제를 다뤄나가며 가장 훌륭하게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밝힘.

● **유엔 北인권보고관, 중국 겨냥 탈북자 보호 촉구(9/16, 미국의소리(VOA))**

-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변국가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당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함.
- 다루스만 보고관이 언급한 북한의 주변국가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24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제3국 현지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과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국들이 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
-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른 시일 내에 고령자, 환자, 장기수, 아이를 둔 여성, 연좌제 수감자를 우선적으로 석방하라”고 북한에 권고하는 한편 정치범수용소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배급제·중앙통제식 경제의 수정 등 북한의 정책 변화도 촉구

● **日, 北 추가 제재조치 유보(9/18, 교도통신)**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부가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이 검토

- 했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
- 이 통신에 따르면 간 전 총리는 지난 6월, 북한이 9월까지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내각에 지시했으나 노다 정권은 추가 제재를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함.
- 이는 일본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 관련국 간에 보이기 시작한 대화 분위기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효과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했고,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금지, 수출입 전면금지 등으로 제재를 확대했으며 천안함 폭침 직후인 작년 5월에는 북한에 대한 송금 규제를 강화

#### 기타 (대외 일반)

- 北 노동당 대표단(최태복 黨 비서)과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대표단 회담, 9.13 평양에서 진행 (9/13, 중통·평방)
- 김영남, 9.13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맥클린 이고니콘 오무소’) 신임장 접수(9/13, 중통·중방)
- 박의춘 외무상, 9.13 駐北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대표(‘퍼시 워차타 미시까’) 신임장 접수(9/13, 중통)
- 박의춘 외무상, 9.13 인도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9/13, 중통)
- 〈아세안의 날〉 즈음 駐北 아세안나라 외교대표들(캄보디아 대사 등), 9.13 박의춘·박길연(외무상·외무성 부상) 등 초청下 연회 개최(9/13, 중통·중방)
-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대표단과 인도 외무성 대표단 및 통일러시아당 연해변강지부 대표단, 9.13 금수산기념궁전 참배(9/13, 중통·평방)
- 김영남, 9.14 쿠바대사(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의 신임장 접수 및 대사와 담화(9/14, 중통)
- 라오스 주석, 김정일 초청에 의해 가까운 시일 내에 訪北 예정(9/15, 중통)
- 駐北 리비아경제협조사무소 소장, 9.14 공화국 창건 63돌 경축 연회 마련(9/14, 중통·중방)
- 김용진(교육위원장), 이창근(당 부부장), 김형준(외무성 부상) 등 초대
- 北 노동신문 대표단(‘김원석’ 부주필/7.11~29 베트남·라오스 방문)의 라오스 방문일정 및 美談을 소개하며 “兩國間 전통적 친선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9/15, 중통·노동신문)
- 김영남, 9.15 訪北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대표단과 담화(9/15, 중통)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9.15 작별방문 ‘피터 휴스’ 英國 특명전권대사와 담화(9/15, 중통)
- 김영남, 9.16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단장 : 고덕우 「총련」 부의장)과 담화(9/16, 중통·중방)

## 나. 6자회담(북핵)

### ● 美 “北에 3가지 제안..반응 기다리는중”(9/16, 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세가지 사전 조치를 분명히 얘기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당국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호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함.
- 그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7월말 미-북 뉴욕 회동을 언급하면서 “6자회담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 북한측에 기대하는 핵과 미사일, 한국과의 문제에 대한 (북한이 취해야 할) 세가지 조치를 매우 분명히 내놓았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전제 조건들(pre-conditions)이 아니라 “사전 조치들(pre-steps)”이라고 강조
- 이 당국자가 밝힌 미국이 요구한 세가지 조치들은 우라늄농축활동을 포함한 핵활동 동결,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인 것으로 관측

### ● 北中 6자수석대표, 19일 베이징 회견(9/16, 연합뉴스)

-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19일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발표 기념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리 부상이 세미나에 참가하고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견할 것”이라고 확인
- 이 세미나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것으로, 베이징(北京) 귀지판톈(國際飯店)의 차이홍(彩虹)홀에서 개최되며, 북·중 양국을 포함해 6자회담 참가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상당수 참가할 것으로 알려짐.
- 장 대변인은 이어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최대 성과로 각 측의 지혜가 발휘된 것이며, 이번 세미나는 공동성명 발표 6주년을 계기로 6자회담의 진전을 토론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
-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주인은 남북한 쌍방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근본은 남북한 관계개선이며 중국은 한결같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해왔다”며 “남북한 서로 마주 보는 태도로 접촉과 대화를 통해 부단하게 신뢰를 쌓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역설

● **“남북 6자수석, 21일째 베이징서 회동”(9/16, 연합뉴스)**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1일 전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1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핵심당국자는 “최근 남북 양측간에 협의가 이뤄져 2차 비핵화회담을 내주 중반에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됐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회의 장소와 일시 등 상세 사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21일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할 경우 이는 7월 하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1차 남북 비핵화회담에 이어 2차 비핵화 회담이 될 전망
- 또한 남북 양측은 이번 2차 회담에서 지난 7월 발리에서의 남북 1차 비핵화 회담과 뉴욕 북미 대화를 통해 협의된 비핵화 사전조치를 포함해 비핵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

■ **기타 (6자회담(북핵))**

- 中 상임대표(‘청징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리이사회(9.14, 오스트리아)에서 “6자회담 재개는 유관 각측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조속한 재개 강조(9/16, 중통)

### 3 대남

- **日に 탈북자 추정 9명..“한국 가고싶다”(9/13, 연합뉴스; 교도통신)**
  - 탈북자들을 태운 배가 2007년 이후 4년 만에 동해 쪽 일본에 흘러왔으며, 일본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3일 오전 7시30분께 동해에 접한 일본 이시카와(石川)현의 노도(能登)반도 앞바다 나나쓰(七ツ)섬 부근에서 탈북자로 추정되는 9명을 태운 어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일본 해상보안청(해양경찰)이 밝혔다. 배 안에는 성인 남성 3명과 여성 3명, 초등학교 정도의 어린이 3명이 타고 있었음.
  - 일본 법무성은 14일 일시 보호 형식으로 이들을 상륙시켰다가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되며,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예를 참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함.
  - 이는 2007년 6월 아오모리(靑森)현 후카우라(深浦)항에 표류해온 탈북자 일가족 4명을 당사자들의 희망대로 2주만에 한국에 보낸 예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교도통신은 “인도적 관점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는 법무성 간부의 코멘트를 전함.
  
- **北수해지원 1차분 전달 불발..“지원입장 변함없어”(9/15, 연합뉴스)**
  - 통일부는 15일 대북 수해지원 1차분 전달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북측의 반응이 오는 대로 수해물자를 조기에 전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1차분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북측의 반응이 없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함.
  -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한적 명의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1차 지원분인 영·유아용 영양식 20만 개를 전달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으며, 통신문에서 구체적인 물자 인도 장소를 통보해줄 것과 남측 인도 요원의 출입 및 편의보장을 해줄 것도 요구

- 북측은 생필품 및 의약품 위주로 50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남측의 제의에 대해 식량, 시멘트, 장비 등을 통 크게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해 “종교·예술 부문에서 앞으로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서 방북을 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허용 확대 가능성을 시사

● **민화협, 대북지원 6차분 밀가루 200t 전달(9/16,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는 16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6차분 밀가루 200t(1억1천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번 지원분은 민주노총,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보내기 대전충남운동본부, 북한수해지역 인도적 쌀지원 도봉구 시민추진본부, 북녘동포 큰물피해나누기운동본부에서 마련함.
- 한편 민화협과 대북지원단체 관계자 10여명은 17일 방북, 사리원시에서 밀가루 지원에 따른 2차 현장 모니터링을 할 예정

● **정명훈 “남북 합동 교향악단 연주 추진”(9/16, 연합뉴스)**

-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유니세프 친선대사는 16일 “(남북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남북 합동 교향악단의 연주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북한 조선예술교류협회와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 감독은 이날 오전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의 젊은 음악가를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이 이번 방북의 목적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사람들인 만큼 서로 일찍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함.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정 감독과 동석한 김주호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방북 기간 북한의 최고위층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이번 방문은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가 목적으로, 최고위층을 만난 일은 없었다. 조선예술교류협회 실무자 등을 만났다”며 말함.

● 北 “南당국과 금강산 협상 언제든 응할 것”(9/17, 조선신보)

- 북한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조성된 남국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에 응한다”고 밝힘.
- 김 부장은 금강산 시범국제관광에 참가한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남측과 관광재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 김 부장은 남측 재산 몰수와 관련, “남측 당국이 소유한 5개 대상은 철저히 몰수했다”며 “남측 민간인들의 재산은 현재 법적 처분을 한 상태로 남측 기업들이 우리의 제안에 호응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
- 그는 현대아산이 금강산 지구에 두고 나온 발전기에 대해 “잘 보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는가에 좌우되지만 일단 법적 처분에 들어갔다”고 설명

● 남북 민간교류 물꼬에 ‘협력사업’도 꿈틀(9/18, 연합뉴스)

- 지난 7월 대북 밀가루 지원 재개로 물꼬가 트인 남북 민간단체 간 교류가 조만간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사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남북 간 협력사업은 5·24 대북제재 조치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교류 또는 신규투자 등의 성격도 갖고 있어 협력사업이 재개되면 5·24조치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작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전면 중단된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통일부에 방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남북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측도 “11~12월쯤 남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는 아직 모든 남북간 민간교류에 대해 “5·24조치 범위 내에서 방북 승인 등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
- 전문가들은 밀가루 등의 인도적 물자 지원, 종교 및 문화계 인사의 잇단 방북으로 이어진 남북간 민간교류가 각종 협력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

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는 최근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대북관계에서 유연성을 강조한 데 이어 최광식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남북 관계를 푸는 복안으로 단절된 남북간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기 때문

#### 기타 (대남)

- 南 공안당국의 '간첩단사건'과 '한진중공업사태' 처리에 대해 "재집권야망실현"이라고 '反政府투쟁' 持續 선동(9/13, 중통·민주조선·노동신문·중방)
- "대결정책 전환"을 지속 요구하며 "남북사이의 내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9/14, 중통·노동신문·평방)
-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資産 몰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觀光·투자자제 등 對内外 협조요청에 대해 "국제관광까지 방해하려는 속심"이라고 비난(9/16, 중통·민주조선)
- 통일부차관의 이산가족관련 발언(北이 전향적 태도로 나서야)에 대해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궁색한 처지를 감싸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이산가족상봉을 정치문제와 결부시키며 제동을 거는 것은 南 당국"이라고 주장(9/17, 중통·노동신문·중방)
- 금강산관광특구 김광윤부장, 나선-금강산관광(8.30~9.2)에 참가한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남측관광의 재개' 등 관련 "南 당국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北)는 언제든지 협상에 응한다"고 주장(9/16, 조선신보)
- "南 당국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대결광신자들(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권력의 자리에서 모조리 쫓아내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억지 주장(9/17, 중통·노동신문·평방)
-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의 대통령 통일정책특별보좌관 任命을 "민심을 기만하고 통치위기를 모면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再次 비난하며 "우환거리는 빨리 떼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선동(9/18, 중통·민주조선)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19-9.25

9월

4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 대내

### 가. 정치

#### ● 국방부 “김정은, 당무·정책전반에 지속개입”(9/19,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군과 공안기관을 기반으로 당무(黨務)와 정책 전반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19일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그 같이 밝힌 뒤 “지난 9일 제63주년 정권창건일에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함.
- 북한은 강성대국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식량 확보와 전시성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 대표부에 식량 긴급도입을 지시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군량미 헌납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평양시 고층아파트 건설 등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116회 공개 활동 중 경제분야에 55회에 집중하는 등 ‘위민 지도자상’을 부각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통해 경제·외교적 지원 획득에 노력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국방부는 보고
- 국방부는 “북한군은 7월 이후 연례적인 하계훈련을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 1일 시작된 꽃게 성어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측 조업어선을 통제하고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국방부는 “동·서해 잠수함 등 북한군 침투세력은 예년 대비 조기에 훈련을 시작한 후 장기간 반복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전략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

#### ● 北 “접촉·교류로 남북관계 개선입장 변함없어”(9/19,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흑심을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도 오늘도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포함

- 해 대화와 협상, 접촉과 교류로 북남관계 개선과 그 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애국애족적 자세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이 매체는 또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한 핏줄을 나눈 부모형제, 친척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로만 그들의 상봉에 대해 떠들 것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최근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
  - 우리민족끼리는 그러나 “통일부는 ‘기다리는 전략’을 운운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해 북남간의 일체 접촉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이며 대범한 대화와 협상제안을 끝끝내 외면하고 방해만 놓았다”고 비난

● 北, 리기범 中선양 총영사 5년만에 교체(9/20, 연합뉴스)

- 리기범 중국 선양(瀋陽)주재 북한 총영사가 부임 5년 만에 교체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006년 9월 부임한 리 총영사는 1990년대 중반 주중 북한대사관 참사관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인맥을 넓혀온 데다 중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해 북한의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혀왔음.
- 그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남북 관계 악화에 따른 교역 중단 등으로 북한이 어려움에 놓인 상황에서 북·중간 경제협력과 교역 확대,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길에 중국 동북지역을 경유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사이에 모두 4차례 있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고, 황금평과 라선특구의 북·중 공동개발이 성사되도록 중국 지방정부들과 막후 조정에도 관여해 능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은, 군·보안기관에 지휘권 행사”(9/21, 연합뉴스)

- 후계 공식화 1주년을 앞둔 북한 김정은이 군과 보안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1일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호 아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과 김정각 총정치국 1국장 등을 통해 군부대 개편과 작전지시 등 실질적인 군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일선 군부대 지휘관을 자신에게 충성심이 강한 30~40대로 교체해 자연스럽게 군내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함.
- 그는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보안기관의 조직과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해 지휘권을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 내 ‘한국풍 척결’ 등 비사회주의 타파를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최근 들어서는 김정은이 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감사권을 행사하면서 비리 간부를 숙청하고 청년층의 대거 입당(100만명 이상 목표)을 추진하는 등 당 업무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
- 소식통은 “김정은 세습체제 구축작업이 가속도를 내면서 이른바 ‘결가지’로 전략한 이복형 김정남의 신변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으며, 그는 “2009년 김정은이 보위부를 시켜 북한 내 김정남 측근 인물들을 탄압하자 위협을 느낀 김정남이 중국 베이징과 마카오 등지를 떠돌며 해외 언론을 상대로 세습체제를 비판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전함.

● 北 “최영림 총리 곧 방중”(9/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 총리가 곧 중국을 공식적으로 친선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중앙통신은 최 총리의 방중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목적 등은 밝히지 않음.

● 北김영남, 춤말리 라오스 대통령과 회담(9/22,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춤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최태복·김영일 당비서, 박의춘 외무상, 박근광 당

중앙위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명산 무역성 부상, 한봉호 라오스주재 북한대사 등이 참석

- 라오스 측에서는 통룬 시수릿 부총리 겸 외무상을 비롯해 분폰 부타나봉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츠잉 솜분칸 당선전교양위원장 등이 나옴.

● **7대 종단 대표, 北김영남 면담(9/22, 조선중앙통신)**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김희중 천주교 대구교를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이 2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동포애의 정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음.
- 모임에는 7대 종단 대표들과 북한의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장,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강철원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김정일, 방북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9/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촘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일·박도춘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이 배석했고, 라오스 측에서 통룬 시수릿 부총리, 분폰 부타나봉 인민혁명당 중앙위 비서, 츠잉 솜분칸 당선전교양위원장 등이 참석

● **“김정일 건강 이상으로 印尼 대표단 회담 취소”(9/25, 지지통신)**

-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등 대표단이 최근 방북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고 지지통신이 25일 인도네시아 방북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가 이끄는 투쟁민주당 대표단은 이달 12~16일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 위원장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고 이 간부는 설명
- 김 위원장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고 이 간부는

설명지시통신은 이런 식으로 예정된 회담이 취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으며,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방북 기간에 최태복 조선노동당 서기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 나. 경제

### ● 윤상현 “北, 3년간 사치품 수입액 1조1천억원”(9/19, 연합뉴스)

- 국제 사회의 규제와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19일 공개한 북한의 사치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치품을 수입하는데 총 10억4천84만달러(1조1천225억원)를 지출
- 북한의 3년간 사치품 수입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제공한 식량지원 총액(7억2천2만달러)보다 44.5% 많은 액수로, 수입사치품은 주로 고위층 전용 물품으로 공급되거나 평양내 백화점과 외화상점에서 부유층을 위한 판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
-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입액이 2배가량 늘었는데 이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따른 체제보위 계층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분석

### ● “이탈리아, WFP 대북지원에 43만달러 기부”(9/20, 미국의소리(VOA))

- 이탈리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에 43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함.
- 개별국가가 WFP에 대북식량지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지난 7월 중순 호주에 이어 두 달 만인데, 이탈리아는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의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북지원에 나서는 것임.

### ● 美 “북한 아시아 최악의 식량부족국”(9/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농무부가 아시아의 23개 식량부족국가 중 북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농무부의 ‘식량안보평가

2011~2021' 보고서를 인용해 20일 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농무부 보고서는 북한이 확보한 식량과 필요한 식량의 차이가 15%를 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인구 70% 이상이 식량 부족상황인 것으로 평가
-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스테이시 로슨 연구원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식량농업기구(FAO)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2천100cal의 영양섭취를 권장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영양분 섭취는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 최저 수준”이라고 말함.
- 또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비료나 연료, 농기구 부족과 함께 잘못된 정책과 경제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잘못된 농업정책을 고집하는 한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

● **중기업, 北해산서 구리 채굴 개시(9/20, 신화통신)**

- 북한 양강도 혜산에서 중국 기업의 구리채굴이 시작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평양발로 보도
- 지난 2007년 11월 북한측 채취공업성과 중국측 완상(萬向)자원유한공사 간에 공동 설립된 혜산-중국 공동벤처 광산회사가 19일 정식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 회사는 구리 채굴과 판매를 겸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인도, 北과 투자협정 체결 잠정보류”(9/22,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인도정부가 협정 체결을 잠정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인도의 영자신문 파이낸셜 크로니클 인터넷판을 인용해 22일 보도
- 이 신문은 인도 재무부 문건을 인용, 지난 6월10일 인도 외교부가 ‘인도-북한 간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투자협정)을 당분간 추진하지 말 것을 연방 각료회의에 제안했다고 전함.
- 이 문건은 인도 정부가 2006년부터 북한과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해 그해 6월22일 각료회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인도 외교부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협정 체결을 보류토록 내각에 요구해 최종 협정문 서명과 의회 비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 신문은 ‘정치적 고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인도 정부가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 사실상 핵실험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

- RFA는 “인도의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글로벌스틸홀딩스가 북한의 무산철광석 광산 개발을 위한 투자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조치로 양국 간 경제협력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봄.

● 北 “日지진에 끊긴 강서약수 60일만에 재분출”(9/22, 우리민족끼리)

-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끊겼던 북한의 국보 ‘강서약수’가 60일 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북한의 대외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22일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60일 만에 다시 태어난 강서약수’란 글에서 “3월11일 일본 땅 대지진의 지각변동으로 12일 아침 완전히 멎었던 강서약수가 꼭 60일 만인 5월11일 다시 터져올랐다”며 “제2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에는 사라졌던 강서약수가 다시 진열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전함.
- 강서약수는 평안남도 강서군에 위치한 약수로 갈슘, 마그네슘, 게르마늄, 아연, 나트륨, 철분 등 필수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 만성위염, 위·십이지장 궤양, 동맥경화, 숙취해소 등에 좋아 북한 당국이 ‘조선국보 56호’로 지정하고 있음.

● 北中 교역액 또 사상최대 경신 전망(9/23, 연합뉴스)

- 올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1~7월 북중간 교역액은 30억9천759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한해 교역액(34억7천182만달러)의 88%를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08년의 기록을 갱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연간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봄.
- 그러나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 및 수입액의 월별 누계 증가율은 1~5월 215.1%, 1~6월 201.9%, 1~7월 169.2%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 한편 이 기간 중국은 북한에 17억8천362만달러를 수출하고 13억1천397만달러를 수입해 흑자구조를 이어갔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 수출은 53.

- 3%, 수입은 169.2% 증가한 것이어서 중국의 무역흑자액은 30.4% 감소
-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디젤화물차량, 질소비료 등이었고 수입품은 무연탄, 철강, 비합금선철, 미합금 아연 등임.

● **北쌀값 1kg에 2,200~2,400원..4월부터 상승(9/23, 연합뉴스)**

- 통일부는 23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이 1kg당 북한 돈으로 2천200~2천4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1kg당 쌀값은 1월 2천원 수준에서 2월 1천600~1천800원, 3월 1천400~1천500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4~5월 1천800~1천900원으로 뛰기 시작해 6월 1천900~2천원, 8월 초 2천~2천200원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는 데다 국제사회의 쌀 지원이 수요를 충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최영림 내각총리, 9.20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 현지 시찰(9/20, 중통)

**다. 군사**

● **“北잠수정 침투훈련 올해 급증..6~8월 특히 늘어”(9/19, 연합뉴스)**

- 북한의 잠수정·반잠수정 훈련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연안 경계를 맡은 해군 초계함의 잠수정 탐지율이 낮아 문제로 지적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8월 북한의 서해상 잠수함정 침투 훈련은 겨우 2차례, 2009년 같은 기간에도 5번에 불과함.
-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2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총 50건의 침투 훈련이 실시
- 동해상의 (반)잠수정 침투훈련이 올해 1~8월 골고루 분포된 것과는 달리,

- 서해상 침투훈련은 6~8월 사이 집중됐으며 특히 이 기간 침투훈련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훨씬 넘을 만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달부터 시작된 서해 꽃게 조업철을 맞아 북한과 중국 어선의 활동량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
  - 이에 비해 북한의 대남 비방은 지난해 1~8월 3천800여 건이었던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3천200여건으로 감소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작년 1~8월 1천400여건에서 올해 700여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
  - 북한은 잠수정과 함께 현재 상륙전력으로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 등 약 26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황해도 고암포 지역에 격납고 신축공사가 1년 이상 지속된 만큼 현재 완공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짐.
  - 신 의원은 “연안 경계는 초계함들이 대부분 맡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 사건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한 기습 도발을 감행할 경우 여전히 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대남 비방 완화 등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꽃게 조업 철이 끝날 때까지 구축함 투입 등을 통해 서북도서 지역의 경계를 강화해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함.

● **北해군 부사령관, 베이징서 中해군 사령관 면담(9/21,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북한 해군의 윤성일 부사령관이 20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해군의 우성리(吳勝利) 사령관과 회동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전함.
- 윤성일 부사령관의 중국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이 내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하고 최근 러시아군 동부군관구 사령관 콘스탄틴 시텐코가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양국 해군을 비롯한 군대 간 교류 재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북러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
- 윤성일은 우성리 사령관과의 회동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북중 양측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라. 사회문화

### ● 北 저명화가 그림, 中경매시장 등장(9/19, 양성만보(羊城晚報))

- 광둥(廣東) 텐하이(天海)경매회사가 19일 열리는 가을철 경매행사에서 북한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등 당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화가 작품들을 경매에 부친다고 양성만보(羊城晚報)가 보도
- 이번 경매에서는 북한 저명 작가들의 대형 그림 12점 등이 경매될 예정
- 중국의 한 화가는 “화가 개인이 그림을 팔 수 없는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북한의 화가들은 영리적이거나 인기 영합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민족성이나 예술성을 표현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지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그림의 중국 내 시장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말함.

### ● 北나선에선 오라스콤 휴대전화 무용지물(9/20,조선익스체인지 )

- 북한이 대외 개방용 경제특구로 개발 중인 나선 지역에서 ‘북한 유일의 이동통신사업자’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아닌 태국기업의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짐.
- 지난 8월 말 나선국제상품전시회 참석차 방북했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 대표는 나선지역에서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대신 태국기업인 ‘록슬리퍼시픽’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록슬리퍼시픽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과 오라스콤 간의 계약과는 별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전함.
- 북한은 지난 2002년 록슬리그룹과 ‘동아시아전화통신회사(NEAT&T)’를 설립한 뒤 평양과 나선시를 시작으로 북한 각지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2004년 6월 갑자기 이 서비스를 중단했고, 2008년 말 오라스콤과 75대 25로 투자한 ‘고려링크’를 통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재개
- 아브라미안 대표는 “나선시에서 외국인은 휴대전화를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국제전화 사용도 불가능하다”며 “2012년 내에 국제전화와 이메일 등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밝힘.

- “北국립교향악단 11월 미국서 공연 추진”(9/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이 11월 미국에서 공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일본에서 중국의 대북소식통을 만난 조총련 관계자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미국에 가는 것은 거의 결정됐다”며 “미국 민간단체를 통해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방미는 2008년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뉴욕의 외교소식통도 “북한이 오랫동안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희망했으며, 이번 방미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 “北국경서 전방위 단속…南드라마CD 나오면 구속”(9/22, (사)좋은벗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를 ‘자본주의의 날라리판’이라고 비난한 뒤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주민단속과 세관검열 등이 대폭 강화
  - 22일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호위사령부 주도 아래 평안북도 신의주, 양강도 혜산, 함경북도 무산, 회령, 온성 등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를 찾아내려고 집중단속을 실시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신의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옷차림과 무질서 등을 보고 “평안북도가 자본주의의 날라리판이 됐다”며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 당국은 탈북을 기도하거나 국외연락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을 색출하는 것을 목표로 단속 중이며, 무등록 전화기만 나와도 지위와 배경에 관계없이 무조건 잡아들이고 있음.
  - 좋은벗들은 북한 중앙당 간부 등의 말을 인용,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 등을 비호해온 보위부원이나 검찰, 보안원 등 법기관 일꾼들도 꼼짝 못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 “전화사용자는 무조건 반역죄로 처분된다. 무역일로 해외주재원과 통화하던 본사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고 전함.
  - 이 단체는 또 “8월20일부터 전국적으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검열도 맹렬히 진행돼 현직간부들이 대거 철직(撤職)되거나 해임돼 새로운 인물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세대교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전함.

● 北, 자전거여행 외국인에 첫 개방(9/22, 텔레그라프)

- 최근 외국인 20여 명이 자전거를 타고 북한의 평양~남포 구간을 여행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 인터넷판이 22일(현지시각) 도쿄발 기사로 전함.
-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고려여행’(Koryo Tours)이 10개국에서 북한여행을 희망하는 외국인 24명을 모집, 최근 열흘간 북한에서 자전거여행을 실시
- 텔레그라프는 이번 여행 역시 최근의 ‘금강산 크루즈 여행’처럼 북한이 잠재적인 여행시장을 개발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여행은 매우 통제돼 있고 여행객은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있다”고 소개함과 동시에 여행객이 백두산을 오르는 장면, 북한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군인들과 조우한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정부, 9.20 김일성종합대학창립 65돌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을 위해 청류관에서 연회 마련(9/20, 중통·평방)
- 강능수(내각부총리), 김용진(교육위원장), 성자립(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관계부문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 참가
- 제6차 9월10일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 폐막식, 9.20 김경호(北태권도위원장/폐막사) 등 참가자 태권도전당에서 진행(9/20, 중통·중방)

## 2 대외

### 가. 일반

- **말聯, 자국 국기 거꾸로 단 北상선 나포(9/19, 뉴스트레이츠타임스)**
  -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가 자국 국기(Jalur Gemlang)를 거꾸로 달고 영해에 정박 중이던 북한 상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 인터넷판이 19일 보도
  -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는 지난 17일 남쪽 수역인 탄중 피아이에 정박해 있던 북한 선적 상선 ‘MT 용안(MT Yong An)’호를 붙잡아 선원들을 구금했다고 밝힘.
  - 해안경비대는 말레이시아 국기의 위 아래를 뒤집어 단 선박을 발견하고 조사에 나섰다가 이 선박이 신고 없이 말레이시아 해역에 들어와 불법 정박 중임을 확인했다고 설명
  
- **솨말리 라오스 대통령 방북(9/21, 조선중앙통신)**
  - 솨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이 21일 북한을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중앙방송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솨말리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전했다지만 방북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방송은 솨말리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조선(북한)과 라오스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강조
  
- **“中, 탈북자 강제복송 대신 한미에 인도해야”(9/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CPNKR)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ICPNKR는 주미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경제난민으로 규정해 강제로 복송하고 있다며 중국도 이미 서명한 유엔난민협

- 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고 한국 또는 미국에 인도하라고 요구
- 서한에는 ICPNKR 상임 공동의장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의원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나가카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이 서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9.19 離任 駐北 영국 대사(‘피터 휴스’)와 담화(9/19, 중통·평방)
- 北 외무성 부상 ‘리용호’, 9.19 베이징에서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 및 미국에 ‘2차 北-美대화 제언’ 사실 공개(9/21, 중통)
- ‘쫄말리 사이나썬’ 라오스 주석, 9.21 평양 도착 및 환영의식 진행(9/21, 중통·중방)
- 김영남·최태복·김영일·박의춘·양만길·駐北 라오스 대사 등 마중
- ‘양형섭’ 상임위 부위원장, 9.21 駐北 나이지리아 및 시리아 대사와 각각 담화(9/21, 중통)
- 라오스 주석, 9.22 금수산기념궁전·만경대방문 및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평양방직공장·만수대창작사 참관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 종합공연 관람 등 訪北 動靜 상세히 보도(9/22, 중통·중방)
- 박의춘 외무상, 9.22 네덜란드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9/22,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中 “남북한과 밀접한 접촉 유지중”(9/19,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9일 “중국은 남북한 양측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6자회담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2차 남북비핵화 회담이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이같이 말함.
- 그의 이런 발언은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 비핵화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온 것임.

● 남북 내일 2차核회담..당국자 “열린 자세로”(9/20, 연합뉴스)

- 남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는 제2차 남북 비핵화회담이 21일

-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번 회담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제1차 남북 비핵화 회담과 뉴욕 북미대화에 이은 ‘2라운드’ 후속대화의 출발점으로 향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담에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집중 논의할 것이며 비핵화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뤄볼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비핵화의 진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지금도 비핵화의 과정에 들어와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6자회담도 중요하지만 (남북·북미) 양자협의로 매우 중요한 과정의 하나”라고 강조
  - 그는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북 비핵화 회담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essential part)”이라고 밝힘.
  - 위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후속 북미대화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면서 “남북대화를 위시해 다양한 양자협의 과정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히, 멀지 않은 시기에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北 ‘조건 없는 6자회담’ 거듭 촉구(9/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0일 외신의 보도 내용 등을 잇따라 전하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거듭 촉구
-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6자회담을 재개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취성(曲星)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의 발언과 함께 “전제조건 없이”가 가장 큰 전제조건”이라는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내용을 전함.
- 중앙통신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쿠바의 프렌사 라티나 통신의 보도내용과 아울러 6자회담 당사국간 상호 신뢰와 호혜, 협조 등을 강조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도 소개

-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베이징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화에 앞서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와 믿음에 상처를 준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강조

● **남북 ‘사전조치’ 평행선..부분적 진전가능성(9/21, 연합뉴스)**

- 남북한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비핵화 회담을 열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가시적인 접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북한이 일부 진전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이날 베이징 시내 장안클럽에서 오전과 오후 모두 3시간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남측과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열자고 주장하는 북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뚜렷한 접점을 마련하지 못함.
- 리용호 부상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북남 쌍방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화를 했다”면서 “우리는 이번 회담결과에 토대해서 앞으로 6자회담을 전제조건 없이 빨리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힘.
- 우리 측은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북측에 제기했으나 북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은 또 남북 경협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부상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
- 남북 제2차 비핵화 회담이 종료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후속 협상은 북미대화라 넘어가게 됐으며, 북한은 최근 미국 측에 지난 7월 뉴욕 북미대화에서 이은 후속 북미대화를 제안했으며 미국은 현재 수송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남북 제2차 비핵화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국과의 교섭을 거쳐 북미대화 개최시기와 의제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후속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다 우리 정부도 동의의사를 표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기에 북미대화가 열릴 것으로 전망

● **위성락·우다웨이 회동..남북접촉 결과 설명(9/22, 연합뉴스)**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2일 오전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전날 열린 제2차 남북 비핵화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 위 본부장은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한 우 특별대표의 질문에 “(기자들이) 제가 얘기한 것보다 항상 박하게 기사를 써 준다. 그런데 제가 사실보다 조금 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제 얘기보다 조금 더 후하게 써 주는 게 사실에 가깝다”고 말해 전날 남북 접촉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한층 긍정적이었음을 시사

### 3 대남

● **류우익 “원칙 지키되 北과 대화채널 열 것”(9/19, 연합뉴스)**

-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일부는 정책의 기초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불안정하지만 우리는 이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래서 북한에 거듭 비핵화 진정성과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이고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미래, 그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다”라고 역설
- 류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 들러 “능동적으로 일할 것”이라면서 “특히 인접국이나 북한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다”고 밝히면서 “대북정책은

어떤 것은 가시적으로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만 어떤 정책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바탕에 스며드는 것도 있다. 인내가 필요하다.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라”고 당부

● **남북경협보험 가입기업·보험금 작년보다 줄어(9/19, 연합뉴스)**

-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남측 기업 수와 전체 보험성립금(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가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경협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11년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8월 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45곳을 포함해 총 148곳으로 보험성립금은 3천703억원임.
- 통일부는 보금가입 기업이 준 것에 대해 “올해 6개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지 등을 판 기업이 보험에 다시 가입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 한편 개성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부동산(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해 거래건수는 2008년 3건, 2009년 6건, 2010년 4건, 2011년 1건 등을 기록

● **대북차관 1조83억원..내년 6월 첫상환 도래(9/19,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공한 차관 규모가 1조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일 통일부가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 차관 현황’에 따르면 대북 차관은 식량 7천842억원, 철도 자재·장비 1천494억원, 경공업 원자재 747억원 등 총 1조83억원으로 이는 청산절차가 진행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경수로대출 1조3천655억원을 제외한 것임.
- 정부는 대북 식량과 철도 자재·장비 차관에 대해서는 연 1%의 이자율로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으로 제공했으며, 경공업 원자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3% 상환, 나머지는 연 1% 이자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
- 이 가운데 첫 상환 기일은 내년 6월7일로, 규모는 2000년 제공한 대북 쌀 차관의 첫 상환분 583만4천372달러나 어려운 경제난 등을 감안하면 북측이 우리 정부의 대북 차관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개성공단 北근로자에 총 1천800억원 지급(9/19, 연합뉴스)**

-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1억6천만달러(1천8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9일 통일부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에게 제출한 ‘개성공단 임금총액’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임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 총액은 1억6천643만8천775달러로 집계
- 연도별로는 2004년 38만8천895달러에서 2006년 701만3천598달러, 2008년 2천686만3천548달러, 2010년 4천868만6천793달러, 올해 6월 말 현재 2천843만7천906달러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최저임금도 최근 들어 매년 5%씩 인상된데 따른 것임.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2005년 6천13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4만7천630명으로 급증했으며, 북측 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임금도 2006년 68.1달러에서 올해 6월 102.9달러로 증가

● **통일부 “北 7월말 현재 식량부족 20만여t”(9/19, 연합뉴스)**

- 통일부는 19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쌀 비축 현황’ 자료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7월 말 현재 20만여t으로 추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준 1일 최소권장량(성인 1일 458g)을 기준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50여만t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수요량이 460여만t에 비해 지난해 생산량은 411만t으로 추산하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북한이 외부로부터 23만7천t의 식량을 도입한 것으로 보여 결국 7월 말 현재 부족량은 20만여t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
- 또 북한군의 연간 식량소비량은 약 27만t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북한 군인수(119만명)에 군인 1인당 1일 배급량 624g을 적용한 것임.
- 통일부는 북한의 1일 정상 배급량은 성인기준으로 곡물 700g이지만 1973년부터 전쟁비축미(12%), 1987년부터 애국미(10%) 등의 명목으로

22% 감량배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통일부는 “북한은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만 올해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아니며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식량수입에 투입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

● **개성공단 소방서·응급의료시설 건립 추진(9/20, 연합뉴스)**

-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등 개성공단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내 건물에 소방차량 8대, 소방인력 36명(남측 4명, 북측 32명) 규모의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들은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 건립 지원을 위해 해당 안건을 이달 중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 상정하고, 다음 달 설계를 거쳐 2012년 4월에 착공하기로 함.
- 정부는 당초 개성공단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상 10개, 의사·간호사 등 10여명의 의료진을 갖춘 응급의료병원을 2010년 말까지 개성공단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연

● **류우익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법’ 바람직”(9/20,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북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거쳐 원만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류 장관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통일경제특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조정안도 이미 외통위 법안소위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힘.
- 류 장관은 “통일경제특구법이 혹시 남북협력기금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특구법 규정에 따라 남북협

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

● <李대통령, ‘원칙있는 대북정책’ 재천명>(9/21,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선(先) 비핵화·후(後) 경제협력 강화’라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남·북·러 가스관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낙관적 전망 속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민화협, 밀가루 7차분 100t 北에 전달(9/22,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2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7차분 밀가루 100t(5천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민화협은 그동안 사리원시에 밀가루 1천45t을 지원했고 10월 말까지 총 2천500t을 전달했으며,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사리원시의 유치원과 애육원 등 밀가루 분배시설을 방문해 2차 모니터링을 실시

9.26-9.30

9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 대내

### 가. 정치

#### ● 北최영림, 中원자바오와 회담(9/26, 연합뉴스)

- 최영림 북한 내각총리가 26일 중국을 방문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회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최 총리는 방중 이틀째인 26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4박5일의 방중 기간에 최 총리는 난징(南京)과 양저우(揚州)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양저우는 지난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투먼(圖們)을 통해 방중하고서 무단장(牧丹江)-하얼빈(哈爾濱)-창춘(長春) 등 동북지방을 돌다가 갑작스럽게 특별열차로 2천여km를 달려 방문했던 곳임.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 총리가 베이징 일정 외에 상하이(上海)와 장쑤(江蘇)성을 찾아가 현지를 참관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또한 “최 총리가 원 총리의 초청으로 정식 우호 방문했다”며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 최근 양국 간에 각 영역에서 교류가 심화하고 있고, 최 총리의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논평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난해 5, 8월 방중에 이어 최 총리가 같은 해 11월 1~8일 중국을 방문해 하얼빈, 창춘(長春), 지린(吉林), 선양(瀋陽), 다롄(大連) 등 동북 3성을 두루 돌면서 북중 경협 행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최 총리의 이번 난징, 양저우 방문도 그와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

#### ● 北 국가건설감독상 교체…김석준 임명(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배달준 국가건설감독상을 해임하고 후임에 김석준 전 백두산건축연구원 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26일 확인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중국 방문에 나선 최영림 내각 총리가 평양을 떠났

다고 전하면서 “노두철 내각부총리, 김석준 국가건설감독상 등이 함께 떠났다”고 밝힌.

- 남한의 국토해양부와 유사한 국가건설감독성은 북한에서 국토·산업·도시·농촌 등 건설관계 분야를 일괄적으로 통합 관할하는데, 북한은 1998년 5월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면서 국가건설위원회를 국가건설감독성으로 개칭
- 북한의 국가건설감독상 교체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진행되는 평양 10만호 주택 건설사업의 성과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이거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세대교체의 일환일 것으로 추정

● **北, 당대표자회 1주년 맞아 세습 정당성 강조(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작년 9월28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 1주년을 맞아 세습의 정당성을 26일 다시 한 번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조선의 대진군’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백두의 혈통을 이어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때 2012년을 향한 대고조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1년간의 투쟁행로가 보여준 총화”라고 주장
- 이 매체는 “이 철리가 9월9일에 진행된 국가 창건 63돌 경축 노동적위대 열병광장에서 확증됐다”며 “당대표자회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라는 것을 체득했다”고 선전
- 매체는 또 지난해 당 창건 65주년 열병식, 평양방직공장 등 경공업 공장의 생산 공정 현대화, 주체철 생산체계 완성,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김일성상 계관작품 선정 등 당대표자회 이후 이룩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열거
- 특히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고려해 지난 2월 열린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소개하며 ‘청년 대군은 강성국가 건설의 주역’이라고 강조했고, 김정은의 대표적 업적으로 알려진 ‘CNC’(컴퓨터수치제어)를 여러 차례 강조

● **북·중, 총리회담서 경협강화 약속(9/27, 신화통신)**

- 북한의 최영림 내각총리와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6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무역·투자·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
- 회담에서 원 총리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당과 정부는 양자

관계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양국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교류, 전략적 접촉 심화 및 공통 이익 보호에 노력하자”고 강조

- 원 총리는 이어 “최근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에 찬사를 보낸다”며 “중국은 북한과 더 많은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가겠다”고 덧붙이면서, “중국은 북한이 자국 사정에 맞는 발전방식을 찾아가는데 지지를 보내며 (그와 관련해) 능력이 닿는 대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 및 “양국이 무역·투자·사회간접시설·자원·농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에 속도를 내자”고 역설

● **김정일, 故 박용길 장로에 조전(9/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고(故)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의 유가족에게 조전(弔電)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조전에서 박용길 여사의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박용길 여사는 것처럼 바라던 통일의 봄을 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애석하게 떠났지만 그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바친 애국의 낮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앞서 북한 김양건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은 2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팩스를 보내 지난 25일 별세한 박용길 장로의 장례에 관해 협의하자며 유족과 장례위원회 관계자의 개성 방문을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

● **“남북선언 실천판 평양·서울서도 대화”(9/28,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8일 “북남선언의 정신을 실천할 때 6자회담 틀에서 북남공조는 그 실효성을 발휘한다. 평양, 서울에서도 민족현안을 다루는 북남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이날 ‘10·4선언, 지금도 유효한 평화합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바로 그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통일의 과정과 병행시키는 방도”라고 주장
- 신문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에서 “재임 중 내가 할 역할은 통일의 날이 오도록 기초를 닦는 것”이라고 연설한 데 대해 “그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정책을 전환해야

- 가능한 것”이라며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
- 신문은 최근 남북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과 관련해 “남측의 의도가 북측이 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 지목하는 미국의 대변자 노릇을 맡는 것이라면 그런 회동은 다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

● “北 당조직 충성파로 세대교체 완료”(9/28, 북한소식)

-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22호)에서 대북소식통을 인용, 한동안 진행됐던 중앙당 검열이 당창건일(10월10일)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함.
- 이미 지난 4~6월 중앙당과 도당 단위 간부들이 대거 교체됐고, 시당과 군당 일꾼 대부분은 당창건일을 전후해 새로 임명될 예정이며, 어떤 부서는 기존 구성원의 70~80%가 바뀌기도 해 거의 전면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 측은 분석
- 연구소는 “새로 등장한 인물들은 대체로 북한정권 창건 이래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거나 혁명 3~4세대”라며 “충성심은 대단하지만 경제난과 식량난은 체감하지 못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힘.

● 北총리, 상하이서 2010엑스포 중국관 참관(9/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28일 중국 상하이시의 기업 2곳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중국관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 내각 총리 최영림과 일행이 상하이시의 바오산철강그룹유한공사, 백련서교상품구입센터를 돌아보고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 중국관을 참관했다”고 전함.

● 방중 北총리, 김정일 다녀간 판다전자 참관(9/29, 조선중앙통신)

- 중국 방문 나흘째인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가 29일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의 판다전자(熊貓電子) 등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 총리 최영림과 그 일행이 이날 장쑤성 소재지(省都)인 난징시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며 “최 총리 일행은 지난 5월 중국 방문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녀간 난징중전판다액정현시과학기술유한공사

(판다전자)를 돌아봤다”고 전함.

- 지난 26일 닷새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 총리는 앞서 중국내 육류가공 기지로 이름난 위룬(雨潤)식품산업집단유한회사와 쑨원(孫文)이 묻힌 중산릉(中山陵) 등지도 돌아봤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김계관, 데니소프 러 외무차관과 회담(9/29, 조선중앙통신)**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9일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과 평양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의 회담이 29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회담 의제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데니소프 차관은 방북 이틀째인 이날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환담했고 북·러 친선을 상징하는 ‘해방탑’에 헌화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일, 후진타오에 中 건국 62주년 축전(9/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0일 중국의 건국 62주년 기념일(10월1일)을 앞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오늘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고 밝힘.
- 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의 공동 명의로 된 축전은 후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전달

■ **기타 (대내 정치)**

- 양형섭, 9.26 쿠바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과 일행 만나 담화(9/26, 중통)
- 박의춘 외무상, 9.26 駐北 수리아아랍공화국 대사와 담화(9/26,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9.27 ‘후진타오’ 中 주석 의례방문(9/28, 중통)
  - 노두철(내각부총리), 리수용(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용남(무역상), 김성기(외무성 부상), 지재룡(駐中 北 대사), 장즈젠(상무부 부장), 류홍차이(駐北 中 대사), 천스쥬(주석 판공실 주임), 장군성(외교부장 조리) 등 참석
- 박의춘 외무상, 9.28 駐北 나이지리아 新任 대사(‘맥클린 이고니콘 오무쏘’)와 담화(9/28, 중통)
- 北 최영림 총리, 9.28~29 ‘한정(상하이시인민정부 시장), ‘리쉬에용(장쑤성인민정부 성장)’과 담

화 및 연회(9/29, 중통)

- 양형섭, 9.29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을 만나 담화(9/29, 중통)
- 김영일, 9.29 中國공산당대표단(단장 : '귀성군' 광시장족자치구위원회 서기)과 담화 및 연회(9/29, 중통)
- 최영림 총리, 9.28~29 '한정(상하이시인민정부 시장), '리쉬에웅(장쑤성인민정부 성장)'과 담화 및 연회(9/29, 중통)
- 양형섭, 9.29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을 만나 담화(9/29, 중통)
- 김영일, 9.29 中國공산당대표단(단장 : '귀성군' 광시장족자치구위원회 서기)과 담화 및 연회(9/29,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일행, 9.30 장쑤성 양저우시(양저우경제기술개발구 지곡전람센터, 정오태양에 네르기과학기술공사 등) 참관 後 귀국(9/30, 중통)
- "김정일의 선군영도따라 軍民대단결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해 2012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며 '인민군대의 전투적 기질 구현과 대담한 최첨단 돌파전' 독려(9/30, 중통·노동신문)
- 최영림 내각 총리, 9.30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訪中 환대 및 朝-中친선 협조관계 확대발전" 표명 「감사전문」 발송(10/1, 중통)

## 나. 경제

### ● 中 조선족 기업가협회, 北라선 방문(9/27, 연합뉴스)

-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이 최근 북한 라선특구를 방문,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7일 조선족기업가협회에 따르면 표성룡 회장을 단장으로 한 회장단 16명이 지난 17-19일 라선특구를 방문해 라선시로부터 라선특구 개발 추진 상황과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소개받았으며, 방문단은 이어 라선의 제조업 시설과 호텔, 시장, 의류 가공 공장, 라선시장 등을 시찰하며 라선 진출의 적정성 등을 점검 및 이들은 또 조선족 기업인들이 라선특구에 독자적으로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북한과 논의
- 표 회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들은 이달 말 라선을 다시 방문해 북한 측과 투자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
- 조선족기업가협회가 대북 투자와 관련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인데, 북한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모든 체류 경비를 부담하며 조선족기업가협회 임원 30여 명을 초청, 투자 설명회를 열었으나, 이번 방북은 조선족기업가협회가 북한에 요청해 이뤄졌고 경비도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리종혁 “가스관사업 남북러 모두에 이익”(9/27, 제4언론)

-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 “남북러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베이징에 기반을 둔 독립언론매체인 ‘제4언론’이 27일 보도
- 이 매체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이 이뤄지면 우리도 덕을 본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보다 남측이 더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북한)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테두리를 벗어나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조선반도와 동북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리 부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남측이 요구하는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최고 수준에서 합의해줬다. 문제는 남조선 당국의 대북 대결정책에 있다”고 주장하고, 남측의 금강산 관광은 새로 제정된 법에서도 현대아산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하며 결국 “남측 당국에 달렸다”고 강조

● 국제적십자사 “北 작년 재해로 9만5천명 피해”(9/28,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9만5천여명에 달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인용해 28일 보도
- IFRC가 최근 발표한 ‘2011 세계 재해 보고서’(World Disaster Report 2011)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해로 사망한 북한 주민이 30명이라고 밝힘.

● “황금평·라선 공동개발 구체안 연말에 나와”(9/28, 차이나데일리)

- 북한과 중국의 황금평·라선지구 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28일 단둥(丹東)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 다이위린 단둥시 당서기는 차이나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북·중 양국이 황금평과 라선에 공동으로 경제개발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후속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힘.
- 다이 서기는 “황금평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북 공동관리위원회가 이미

설립됐다”면서 “황금평과 라선지구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임.

- 그는 아울러 “중국 측은 황금평 공동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지역에 10km<sup>2</sup> 크기의 국가급 경제구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그는 이어 “단둥시 정부는 황금평 공동개발을 위해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운영하며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함.

#### ● “北, 터키에 인도적 지원 요청”(9/29, 미국의소리(VOA))

- 궁석웅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이달 초 터키를 방문해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터키 일간지 ‘후리에트’를 인용해 보도
- 후리에트는 북한 대표단이 지난 7~8일 터키를 찾아 터키 외무부 당국자들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터키측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터키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에 유아용 식품을 지원키로 했고 쌀 등 일반 식량의 지원은 터키 정부가 군대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고 전함.

#### ● “北 탄소배출권사업 순조…3곳 추가 심사”(9/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CDM) 등록을 신청한 9개 사업 중 3개가 추가로 ‘자격심사’를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UNFCCC는 지난 27일 함흥 1호 발전소와 금야수력발전소를 자체 홈페이지에 ‘자격심사’ 대상 목록에 올렸고 28일에는 백두산 선군청년2호 수력발전소도 목록에 추가
- 이미 지난 6월부터 자격심사를 받는 예성강 3·4·5호 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등 4곳을 포함하면 북한이 CDM등록을 신청한 9개 CDM사업 중 7개가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되었으며, 평양방직공장과 함흥 2호 발전소는 아직 ‘사전고려대상(Prior consideration)’ 단계에 있다고 방송은 전함.
- UNFCCC는 CDM등록 신청 사업에 대해 ‘사전고려대상’ 단계를 거친 뒤 사업계획서 검토와 실제 온실가스 감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격심

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탄소배출권 획득까지는 2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

-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은 유럽의 한 민간단체에 탄소배출권 획득 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했으며 이 단체는 기술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RFA는 덧붙임.

● “北, 8월 中서 곡물 수입 급증”(9/29, 연합뉴스)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원장이 29일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교역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중국에서 곡물 4만7천978t을 수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는 지난 7월 1만9천384t에 비해 147.5%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달 1만6천723t보다 186.8% 많은 양으로 올해 들어서는 5월 5만328t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밀가루 1만7천458t, 옥수수 1만3천286t, 쌀 1만417t, 콩류 6천817t 등의 곡물을 골고루 들여옴.
- 권 부원장은 “북한이 가을 수확을 앞두고 8월에 곡물 수입량을 대폭 늘린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며 “곡물 재고량이 많지 않아 수입량을 늘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함.

다. 사회·문화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30차 윤이상음악회’ 개막공연, 9.27 안동춘(문화상), 홍성화(윤이상음악연구소 부소장) 등 참석 下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9/27, 중통)
- 中 신해혁명 100돌 기념 사진전시회 개막식, 9.27 최창식(조종친선협회 위원장/보건상), 駐北 中 임시대리대사 등 참석 下 평양대외문화교류센터에서 진행(9/27, 중통)
- 평양-하얼빈 국제항로 1차 中國관광단, 9.28 국제친선전람관 등 관람(9/29, 중통)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공연, 9.30 양강도 해산시에서 첫 개막(9/30, 중통)

## 2 대외

### 가. 일반

#### ● 美재무부 차관, 北·이란제재 협의차 방중(9/26, 연합뉴스)

-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홍콩을 방문한다고 미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재무부는 “코언 차관의 이번 방문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끊고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
- 재무부는 코언 차관이 이란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도 중국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함.

#### ● 美 “北 진정성 판단할 충분한 증거 없어”(9/26,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대화에 진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쪽으로 판단할 충분한 사례나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의) 판단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신중히 답함.
- 그는 “우리는 여전히 남북간의 개선된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책임은 확실히 북한에 있다”고 말함.

#### ● 월스텐홈 신임 駐北 영국대사 30일 부임(9/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주(駐)네덜란드 영국대사관의 카렌 월스텐홈 1등 서기관이 오는 30일 북한 주재 영국대사로 부임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영국 외무부를 인용해 보도
- 월스텐홈 신임 대사는 198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부영사로 해외근무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영국 부대표로 일함.

● 스티븐스 美대사 “北 말보다 행동이 중요”(9/27, 연합뉴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조만간 재개될 북미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목적의 진정성’(seriousness of purpose)이라고 부르는 진지함을 북한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스티븐스 대사는 서울 정동 미대사관저에서 임기중 국내 언론과는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것이 6자회담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해 “남북 간에 소통을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평양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노력이 이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함.
- 그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 약속했던 국제사회 의무들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6자회담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임.
- 스티븐스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한·미·일이 제시하는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6자회담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풀이
-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지원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없다”면서 “대북 식량지원 결정은 수요에 대한 평가와 타지역 지원과의 균형, 분배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

● 후진타오 “北의 긴장완화 노력 지지”(9/28, 신화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외부 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 후 주석은 27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북한의 최영림 내각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
- 신화통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방중 때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 총리도 김 위원장의 그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함.
-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후 주석은 “중국의 당과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를

소중히 간직해 왔으며, 중·북 우호관계 촉진은 중국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몇년새 양국이 밀접한 정치적 교류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성과있는 협력을 하고 있다”고도 언급

- 후 주석은 이어 “중·북 우호는 여러 대에 걸쳐 양국 지도자들이 이룩하고 지켜온 것으로 양국 당과 인민의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이를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것이 공통된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함.

● **휴즈 전 주북대사 “권력승계에 전폭지지 없어”(9/28, 연합뉴스)**

- 피터 휴즈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28일 “외국인인 나에게 직접 불평한 북한 주민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통해 들은 바로는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휴즈 전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통 중요한 행사에서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든다. 그때 김정은이 누구냐고 물으면 단지 김정은 장군이라고 하지 후계자나 새로운 지도자라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말함.
- 그는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권력승계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리더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부상한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언급
- 휴즈 전 대사는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지만, 중동의 민주화 혁명처럼 확대될 개연성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은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매우 억압적이고 통제된 국가여서 공동대응이나 반발은 어렵다”고 내다봄.

●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 방북(9/28, 조선중앙통신)**

-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이 28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 중앙통신은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으나 방북 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북한과 러시아는 남·북·러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등에 합의

해 테니소프 제1차관은 방북 기간 양국간 경제협력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

● **美 재무 차관 “北, 여전히 WMD 확산에 전념”(9/29, 연합뉴스)**

-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28일 북한이 여전히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용 설비와 부품을 밀수입하고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위장기업을 세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코언 차관의 발언은 이번 주 북한의 최영림 내각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중 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음을 시사

● **프랑스 “평양 상주사무소 수일내 개설”(9/29, 연합뉴스)**

- 프랑스가 북한 평양에 추진 중인 상주 협력사무소가 수일 내에 개설될 것이라고 프랑스 외교부가 29일 밝힘.
- 베르나르 발레로 외교부 대변인은 “상주사무소 설치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수일 내에 문을 연다”면서 “상주사무소는 문화교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현지 언론이 전함.
- 상주사무소는 문화협력 전문가이자 외교관인 올리비에 바이세가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발레로 대변인은 덧붙임.
-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2월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파견해 문화 교류를 위해 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설이 늦어짐.

## 나. 6자회담(북핵)

### ● 양제츠 “6자회담, 비핵화 진전에 가장 유효”(9/27, 신화통신)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가장 유효한 메커니즘”이라고 밝힘.
- 양 부장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반도 이슈를 풀어가는데 대화와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
- 양 부장은 “중국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평화 촉진에 노력해왔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 유지에 유일무이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중국은 최근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환영하고 유관 각측이 이를 기회로 대화를 지속해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양 부장은 아울러 유엔 총회 연설에서 “리비아의 전후 재건 작업은 유엔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중국은 유엔의 ‘리비아 지원 유엔 사절단(UNSMIL)’이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활동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 박길연 “6자회담 재개위해 당사국들과 협력”(9/28, 연합뉴스)

- 북한은 27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회담 당사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평화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당사국들과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 부상의 이날 발언은 기존의 입장에서 특별히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라고 뉴스는 전함.
- 박 부상은 북미관계와 관련,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며 “한반도 핵문제의 모든 근원은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

● 中 “6자틀서 관련국 관심사 해결돼야”(9/2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관련국들의 관심사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말함.
- 그는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해 그 틀 안에서 (2005년의) 9·19 공동 성명 의 각 항목을 철저히 실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해가는 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길이고 관련국들의 공통이익에 부합한다” 고 덧붙임.
- 그는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유관 각 측이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각 측이 현재의 기회를 잡고 서로 마주 보면서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함.

● “北, 한국에 핵연료봉 매입 요청”(9/30, 아사히신문)

- 북한이 한국에 미사용 핵연료봉의 매입을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1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비핵화 협의 당시 한국에 미사용 핵연료봉의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만약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6자 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 요구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할 동의 즉시 중단 등을 수용할 경우 그 대가로 우라늄 101.9t분인 핵연료봉 1만4천800개를 사줄 수 있는지를 타진함.
- 북한이 6자 회담의 사전조치 이행과 관련 한국 등에 대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인데, 한국은 그러나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 이행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교섭하지 않는다는 한·미·일의 합의에 따라 핵연료봉을 사 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함.

### 3 대남

#### ● 홍준표, 30일 북한 개성공단 방문(9/27,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30일 하루 일정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 홍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30일 개성공단을 실무 방문한다”면서 “지난 7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방문 용의를 밝힌 뒤 지난 22일 통일부장관과 협의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의사를 타진했고, 오늘 오후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이 와 방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홍 대표는 “한나라당 창당 이래 당 대표로서는 공식적으로 첫 방북”이라며 “개성공단 입주업체로부터 애로를 청취해 해결하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홍 대표는 방북 배경에 대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판단했다”면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박왕자씨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지만 정치·군사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남북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해 보자는 의미로 시작했던 것”이라고 부연

#### ● 북민협, 수해지역 인도지원차 30일 방북(9/28, 연합뉴스)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박종철)는 30일 개성을 통해 황해북도 강남군에 밀가루 등 약 4억원 상당의 인도지원 물자를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 북민협에 따르면 전달되는 물자는 밀가루 250t을 비롯해 의약품 2억여원 어치, 영양식 12만 캔, 운동화, 아동내의 등으로 강남군 장교리, 당곡리 소재 소학교와 탁아소에 분배될 예정이며, 지원물자는 새누리좋은사람들, 굿피플, 기아대책 섬김, 남북나눔 등 8개 단체에서 마련했다고 뉴스는 전함.

#### ● 협력기금에 ‘北 자연재해 지원’ 신규 편성(9/29, 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당국 차원의 대북 자연재해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 통일부는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5천448억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대북 자연재해 지원’ 명목으로 150억원을 새로 반영
- 올해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은 5천80억원이며, 당국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은 6천429억7천400만원으로 올해보다 6.1% 늘었다고 뉴스는 전함.
  - 예산안은 일반예산 2천139억원과 새로 신설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합친 것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존 일반예산에 포함해왔던 제2하나원 신축(170억원), 하나원 체육관 신축(2억7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예산 가운데 북한정세분석 관리(6.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4.2%), 남북회담(6.7%), 통일교육(28.5%) 등의 예산은 올해보다 모두 늘었다고 뉴스는 전함.

● “대북원칙 유연한 상호주의 전환돼야”(9/30,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개성공단 방문 성과와 관련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원칙이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홍 대표는 이날 7시간에 걸친 개성공단 방문 직후 입경 전용 게이트 앞에서 가진 즉석 기자회견에서 “대북 원칙을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가자고 요구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번 방문이 작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내려진 5·24 조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성공단은 경제공동체로 남북이 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자, 평화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지점”이라며 “5·24 조치 중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성있게 대처하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밝힘.
- 홍 대표는 공단 발전방안에 대해 “개성과 개성공단간 열악한 도로에 대한 (입주 기업측의) 보수 요청이 있어 정부에 이를 요청하고, 5·24 조치로 건축 공사가 중단된 기업들이 있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함.
- 홍 대표는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의 입주율이 37%밖에 안돼 입주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에 있어 삼통(통신·통행·통관)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

기타 (대남)

- 我軍의 '대침투중합훈련·특수전 예비군부대 창설·스파이크 미사일 도입' 등을 비난하며 “대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 촉구(9/27, 중통·민주조선)
- 南 당국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와 인민들에 대한 파쇼적 폭압으로 '독재정권'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持續 왜곡(9/27, 중통·노동신문)
- “남북선언의 정신을 실천할 때 평양·서울에서 남북대화가 열릴 수 있다”며 남측의 '對北정책 전환 결단' 촉구(9.28, 조선신보)
- 【『조평통』 대변인 대답(9.30)】 南 당국의 “故 박용길 여사 조문을 위한 南北間 개성접촉 불허”를 ‘반인륜적 망동’이라고 비난(9/30, 중통)
- “南 보수집권층의 ‘부정부패사건’이 계속 터져나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10.26)를 통한 한나라당 심판론’ 持續 부각(9/30, 중통·노동신문)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01-10.02

10 월

1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 대내

### 가. 정치

- WFP “주북 인도대사, 식량분배 현장방문”(10/1, 세계식량계획(WFP))
  - 산자히 싱 북한 주재 인도대사가 지난달 14일 평양 외곽의 보육원과 병원을 직접 방문해 인도가 지원한 식량의 분배현황을 점검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1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밝힘.
  - WFP는 또 인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콩 900t과 밀 373t 등 1천273t의 곡물이 어린이와 임산부 12만여 명에게 전달됐다고 전함.

### 나. 사회문화

- “北, 올해 국제특허 출원 1건에 그쳐”(10/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올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국제특허는 한 건에 불과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WIPO의 사람 사문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국제특허를 한 건만 출원했다”며 “올해 4월 출원했는데 어떤 종류 인지는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고 말함.
  -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은 2007년 3건, 2008년 7건을 각각 기록하고 나서 2009년에는 전혀 없다가 지난해에는 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RFA는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이 저조한 것은 법체계의 미비로 창작자 개인의 재산과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
- “北 휴대전화, 통치 활용 수단”(10/2, BBC)
  - 휴대전화 확산이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 이를 통치에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2일 보도
  - BBC는 이날 ‘북한, 휴대전화는 좋은 물건인가?(North Korea: Are mobile phones a good thing?)’라는 보도를 통해 대형 풍선을 이용한 남한 보수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현황을 전하면서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지 모른다”고 풀이

- 이 방송은 “요즘 북한내 뉴스는 문자 메시지나 DVD로 유포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북한은 인터넷 접속과 국제전화 통신망은 없지만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소비자들에게 인기 높은 품목으로 새로운 기술이 영향을 미치고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함.
- BBC는 주민들의 이동 통신 접속 가능성이 북한 정권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그 이점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풀이했는데, 이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국이 사용자들을 쉽게 추적 및 도청하고 메시지를 더 교묘하게 퍼뜨리며 접속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제노인의 날」(10.1, 제45차 유엔총회 제정) 즈음 ‘조선년로자보호연맹’ 주최 北送 비전향장기수 등 노인들 참가, 평양 등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낚시질경기·민속유희오락경기·공연·영화관람 등) 진행(10/1, 중통·중방)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46.10.1) 65돌 즈음 김정일의 “1,400여건 著作 발표 등 대학교육사업의 원칙적문제 해결” 칭송 및 전자도서관·수영관 등 完備 선전(10/1, 중통)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제12권(증보판) 출판(10/1, 중통·중방)

## 2 대외

### 가. 일반

#### ● 르몽드 “北-미얀마, 지속적 관계”(10/1,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지 르 몽드가 1일 세계의 불량국가들인 미얀마와 북한이 무기-식량 교환을 매개로 군사분야 협력을 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보도
- 르 몽드는 이날 세계의 편지 시리즈 가운데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에서 온 편지’ 형식으로 게재한 양곤발 기사에서 양곤의 변화가에 지난 7월 ‘평양고려식당’이라는 이름의 북한 식당이 들어섰다면 이렇게 전함.
-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미얀마가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을 겨냥한

북한의 아웅산 폭탄테러 이후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가 2007년 복원했지만 사실상 1993년부터 군사협력을 위해 북한의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미얀마에 입국하는 등의 관계를 맺어옴.

- 특히 미얀마는 북한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에는 2만톤의 쌀을 수출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바 있으며, 르 몽드는 이런 상황에서 양곤에 북한식당이 문을 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북한이 ‘음식’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

## 나. 6자회담(북핵)

### ● “그랜드바겐에 北 관심..6자 열리면 토대될 것”(10/2,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가 제시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안)’에 관심을 표명해 양측간에 세부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당국자는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랜드바겐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리면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랜드바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할 경우 그와 동시에 국제사회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구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9월 공개 제안한 이후 북한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음.
- 이 당국자는 “1차 비핵화 회담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그랜드바겐을 공식 설명했고 북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2차 비핵화 회담에서 상당한 질문을 던졌다”면서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우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됐다”고 소개
- 그는 “북한이 처음에는 그랜드바겐을 남북 간의 일로만 생각했었으나 우리의 설명을 듣고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해한 듯하다”면서 “북한이 질문을 가져왔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
- 이어 “6자회담이 정체된 사이 그랜드바겐을 토대로 사전협의를 해왔다”면서 “미국과는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그

- 랜드바겐의 대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임.
-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해 북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제시했으니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면서 “북한이 북미 후속대화든 남북 비핵화 회담이든 ‘이것을 빨리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
  - 그는 “비핵화 사전조치에는 양보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과의 회담이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란 쉽지 않으며 여러 차례 대화를 거쳐야 일이 된다”고 말해 후속 남북-북미대화 과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
  - 북한이 제2차 남북 비핵화회담에서 한국에 미사용 핵연료봉의 매입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핵연료봉 매입은 이미 2008년 논의됐던 사안으로 과거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매입을 요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사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변

### 3 대남

#### 기타 (대남)

- 北 「체신성」 대변인 담화(10.1), 남측의 對北방송 送出은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망동, 심리모략전”이라며 持續時 “방송본거지들과 가담자들을 섬멸적·무자비한 징벌” 위협 (10/1, 중통·평방)
- 「韓美 상호방위조약」 체결(53.10.1) 58년 즈음 “不平等한 군사조약,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즉각 철폐와 反美투쟁’ 선동(10/1, 중통·노동신문·평방)
- ‘韓美 합동사격연습’(9.30, 경기 포천) 비난 보도(10/1, 중통·중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03-10.09

10 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 대내

### 가. 정치

- **김정일, 단천항 건설현장 등 3곳 현지지도(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천항 건설장을 비롯해 함경남도에 있는 사업장 3곳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단천항 건설장을 둘러보며 “지난 시기 검덕, 단천지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자동차와 열차로 여러 번 이적하면서 멀리 떨어진 항들로 옮기던 불합리한 수송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며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견인불발의 의지가 안아온(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박도춘·태종수 당비서,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곽범기 등이 수행
  
- **北김영남, 中공산당 대표단에 우의 강조(10/4, 신화통신)**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귀성쿤(郭聲琨)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서기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간 우의를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북·중 간 우의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려는 게 노동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는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양국 국민의 공통 이익에도 맞는다”고 강조하며, “1년 새 네 차례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그를 통한 양국 지도자들 간의 역사적 회동으로 우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다”며 “중국이 공산당의 영도 아래 더 많은 업적을 이룩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귀 서기는 “중·북 양국의 우호관계는 지난 수십년간 여러 세대의 노력으로 더 강고해져 가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몇 년간 빈번한 고위층 교류, 경제·무역 심화, 문화 교류 및 전략적 협력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화답

● **北매체, 南에 4주년 맞은 10·4선언 이행 촉구(10/4, 노동신문)**

- 북한은 4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선언 4주년을 맞아 남한 정부에 선언의 이행과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0·4선언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대북정책의 총파산에서 교훈을 찾고 정책을 전환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
- 이어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거나 그에 배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온민족은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가로막는 보수패당의 반통일적 기도를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주장

● **“北 신의주세관 대대적 검열…물같이”(10/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최근 북중 국경에서 최대 규모인 신의주 세관을 대대적으로 검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중국의 단둥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이 소식통은 “지난달 초부터 신의주 세관에 대한 시 당국의 자체검열에 이어 평양의 중앙당 검열 성원들까지 내려왔다”며 “세관장을 비롯해 신의주 세관원들이 대부분 교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함.
- RFA는 신의주 세관의 대폭 개편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쇄신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함.

● **北 “대북방송은 국제법 유린 범죄행위”(10/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논평을 통해 남한의 대북방송을 겨냥, 주파수를 침범해 반공화국적 방송을 내보내는 행위는 국제법과 질서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 중앙통신은 또 “이미 여러 차례 반공화국 심리모략 책동을 걷어치울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계속되는 경우 그 본거지들이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역적패당은 심리모략전을 통해 우리 인민의 불만을 조성해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주의 제도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고 주장

- **北총리, 평양남새·화초 연구소 시찰(10/6, 조선중앙통신)**
  -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가 5일 평양남새(채소)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 온실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함.
  - 두 연구소는 지난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했던 곳임.
  
- **김정일, 평남 합성가죽공장 등 현지지도(10/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안남도 평성 합성가죽공장과 락랑 영예군인수지 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7일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비서,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수행
  - 평성 합성가죽공장에서는 안정수 경공업상과 리병룡 평성시당 책임비서가, 락랑 영예군인수지 일용품공장에서는 조영철 식료일용품공업상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함.
  - 김 위원장은 합성가죽공장을 돌아본 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질 좋은 신발과 가방, 혁대, 점퍼, 벽지 등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北 “해상침범·뼈라살포에 최종통고” 위협(10/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의 우리 군부대 훈련과 시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도발행위가 계속될 경우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협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남북장령급(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이날 남측의 ‘해상침범’과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공공연한 전쟁행위라는 내용의 경고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고 전함.
  - 통신은 “대표단 단장은 경고통지문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도를 넘어 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측은 조성된 사태를 똑바로 보고 화해와 협력이나, 물리적 대결이나 하는 심각한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함.
  -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측의 계속되는 도발적인 전쟁행위에 부득불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으며 그에 따른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남측은 우리 군대의 최종통고에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임.

● **北, 핵실험 5주년…‘역사적 사변’ 자평(10/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6년 10월9일에 실시된 제1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린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
- 조선중앙방송은 9일 핵실험 5주년을 맞아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김성원 부교수, 강좌장 유흥배 부교수를 불러 대담을 진행했으며, 이들은 방송에서 “현대과학의 집합체인 핵실험을 100%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그것도 안전하게 성공했다”며 “과학자들의 가슴마다 민족적인 자부심이 세차게 끓어번졌다”고 당시를 회상함.
- 이들은 또 1차 핵실험 이후 지난 5년간의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연구 성과를 이룩했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은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장쾌한 폭포를 안아오고 CNC(컴퓨터수치제어)기술의 명맥을 틀어진 것을 비롯해 수많은 기적이 창조됐다”고 강조

■ **김정일동향**

- 김정일, 咸鏡南道 단천항 건설장·단천마그네사공장·용전과수농장 현지지도(10/4, 중통)
- 김정일, 平南 ‘평성합성가죽공장’과 개건 현대화된 ‘락랑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 현지지도(10/7, 중통·중·평방)
- 김정일 ‘중앙양묘장’(평양시 교외)과 새로 건설된 ‘태양열설비센터’(평양시 만경대지구) 현지지도(10/9, 중통)
- 김정은(黨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문경덕(黨비서), 주규창(黨부장), 리룡하(黨제1부부장)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北 개천절 기념행사, 10.3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류미영(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천도교청우당 위원장), 강련학(\*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등 참석하 단군릉 앞에서 진행(10/3, 중통)
- 김영남, 10.3 中 공산당 대표단(‘귀성군’ 광시장족자치구위원회 서기)과 담화(10/3, 중통)
- 박의춘 외무상, 10.3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駐北 쿠바 신임특명전권대사와 담화(10/3, 중통)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10.4 新任 駐北 쿠바 대사와 담화(10/4,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10.5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 온실건설장 현지요해(10/6, 중통)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10.6 국제탁구연맹 위원장(‘아담 사라라’) 일행과 담화(10/6, 중통)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0.6 駐北 시리아 임시대리대사와 담화(10/6, 중통)
- 박의춘(외무상), 10.6 駐北 튀니지공화국 신임대사와 담화(10/6, 중통)

## 나. 경제

- **WFP-FAO, 北 농작물 수확량 조사 착수(10/3, 미국의소리(VO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식량농업 기구(FAO)와 함께 북한에서 농작물 수확량을 평가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전함.
  - 이 방송은 WFP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인용해 북한당국의 초청으로 WFP, FAO 소속 전문가들이 3~17일 황해도를 북한의 9개 도, 29개 군을 찾아 '작황과 식량안보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이번 조사는 북한의 주요 곡물과 가축 현황 등 올해의 식량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분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WFP는 덧붙임.
  - 조사에 참여하는 FAO 로마본부의 키산 군잘 박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흉수로 작물 수확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집중호우를 겪지 않은 지역에서는 풍부한 비가 작물 성장에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고 설명
  - WFP 측은 유럽연합이 지원한 5천5백t의 밀이 최근 북한에 도착했고, 북한 주재 인도 대사가 지난달 14일 평양 외곽의 보육원과 병원을 방문해 인도가 지원한 식량의 분배 현황을 점검했다고 전함.
  
- **“北류경호텔 내년 4월 지상25층까지 오픈 계획”(10/4, 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 4월 105층(지하 4층, 지상 101층) 규모의 류경호텔을 지상 25층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소식통은 4일 “북한이 내년 4월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에 맞춰 평양에 건설 중인 류경호텔을 지하부터 지상 25층까지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해들었다”며 “북한은 강성대국 진입을 상징하는 건물인 류경호텔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내년 4월까지 류경호텔 전층의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렵고 이용자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일부 층만 먼저 오픈해 영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류경호텔 영업을 시작하면 평양에 있는 각종 국제기구와 유럽기업의 사무소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러시아지원 식량 5만t 수령 완료(10/4,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식량을 4일까지 모두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지원물자의 종류나 양에 대한 언급 없이 “러시아 연방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조선에 제공하는 식량의 납입이 끝났다”고 전함.
- 북한과 러시아는 4일 평양 밀가루가공공장에서 김지석 수매량정성 부상,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 러시아 비상사태성 대표단, 아브라힘 시디키 주북한 세계식량계획 임시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함.

● **“北고려항공 세계 최악 항공사”(10/4, 비즈니스인사이드)**

- 미국 경제 전문 웹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4일(한국시각)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고려항공을 ‘세계 최악의 항공사’로 꼽음.
- 이 웹사이트는 최근 고려항공을 이용한 호주인이 제공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고려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들을 평가하는 리서치 기관인 영국 스카이트랙스로부터 유일하게 ‘1 star’ 등급을 받을 만큼 형편없는 항공사라고 혹평
- 고려항공에 대한 평가를 항목별로 보면 승무원의 용모와 프레젠테이션, 수하물 배달, 좌석의 편안함 등에서는 별 2개 또는 3개로 평가됐지만 체크인 서비스, 환승, 비행중 엔터테인먼트, 언어능력 등 대부분 항목에서는 별 1개를 받는 데 그침.

● **“北고위층 전용 봉화진료소 확장…헬기장 신설”(10/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고위층 전용 의료시설인 봉화진료소를 확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이 방송은 2006년 11월과 지난해 10월 각각 평양 소재 봉화진료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비교하면서 기존 진료소의 북동쪽에 규모가 비슷한 신축 건물이 들어섰고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까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RFA는 “지난해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봉화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력층이 늘어났다”며 “확장된 봉화진료소가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뒷받침해 줄 이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

- **中 2010년 대북 직접투자 1천200만달러(10/5,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1천2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
  - 중국 상무부 등의 '2010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은 1천214만 달러로, 2009년(586만 달러)에 비해 배 넘게 늘어났으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8년(4천1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약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임.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직접투자한 규모는 1억1천만 달러이지만 2003년 112만 달러, 2004년 1천400만 달러, 2005년 650만 달러 등으로 해마다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다고 VOA는 전함.
  
- **윤상현 “北신권가치 2년만에 1/100로 하락”(10/6, 연합뉴스)**
  - 지난 2009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등장한 신권의 가치가 2년만에 100분의 1로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한나라당) 의원이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북한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환율은 30원대였지만 올해 1~2월 3천원까지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2천700~2천800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는 북한 화폐의 가치하락에 대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정세 불안정 ▲화폐개혁 후 통화 팽창 ▲북한사회의 외화사용 빈도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
  - 윤 의원은 “북한은 애초 화폐개혁을 후계자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려고 준비했지만 계획경제체제가 애초 의도와 달리 오히려 약화하고 곡물가격 폭등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파탄 지경으로 몰리는 등 대혼란만 발생했다”고 지적
  -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북한 주민은 이미 배급이 아닌 시장에 의지해 생활하는 만큼, 대북접근의 원칙을 외부로부터의 지원에서 내부에서의 공급능력 성장에 뒤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의 우수한 제품들이 북한에서 우대 가격에 유통되는 것은 북한에도 직접적으로 득이 되는 일이며, 북한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길”이라고 말함.

● **FAO, 北곡물수확 작년比 증가 예상...440만t(10/7, FAO)**

- FAO는 7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곡물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도정 이후 기준)을 지난해 420만t보다 4.8% 늘어난 44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올해 쌀 수확량은 작년 240만t에서 250만t으로, 밀은 10만t에서 20만t으로 각각 늘어나고 보리, 옥수수, 콩 등의 잡곡 수확은 170만t에서 18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FAO는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이 국지적인 흉수로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꼽음.

■ **기타 (대내 경제)**

- 러시아 정부의 WFP(세계식량계획)를 통한 對北 제공 식량 납입 완료에 따른 기증식, 10.4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서 진행(10/4, 중통·평방)
- 전자공업부문의 9월과 3/4분기 생산초과(110.8%·106.3%) 및 식료일용공업성(102%) 등 각기 공장-기업소들의 9월 계획 완수 보도(10/4, 중·평방)
- 평안남도 ‘숙천 진성피복공장(北-中 합작)’ 조업식, 10.5 현지에서 진행(10/5, 중통)
  - 허태권(경공업성 부상), 최영남(진성합작회사 사장), 쩡중(中 상강화성상사 총경리) 등 참가
- 北, 세계 各國의 핵에너지 개발·이용 및 국가간 협력 상황 등을 거론하며 “세계가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세계적 규모의 평화적 핵에너지개발사업의 확대발전”을 전망(10/8, 중통)
- 제7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10.17~20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예정(10/8, 중통)

## 다. 군사

### ● “北, 중국군과 내년 해상 구난 합동훈련”(10/7, 도쿄신문)

- 북한이 내년 해상에서 중국군과 구조 수색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이 내년 구난 수색을 상정한 해상 합동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북한이 해군의 합동 군사훈련을 강력하게 제안했을 때 한국과 미국을 의식해 소극적인 자세였으나 북한이 러시아와 해상 훈련을 추진하자 북한과의 구조 수색 합동훈련에 응함.
-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교류에 신중한 자세였으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훈련 움직임을 알고 합동훈련에 응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함.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8월 해상에서의 구조활동을 상정한 합동 군사훈련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대두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양다리 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송영선 “北, 자강도에 생화학무기 제조시설 신축”(10/7,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군 정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해 12월 북한 자강도 지역에서 생화학 무기 제조를 위한 시설이 신축된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송 의원은 또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생물학 작용제 균체 13종 가운데 실제 무기화할 수 있는 종류가 탄저균, 보툴리눔, 천연두 등 5가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임.

## 라. 사회·문화

### ● 샤라라 국제탁구연맹 회장 방북(10/5, 조선중앙통신)

- 아담 샤라라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 일행이 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샤라라 회장 일행의 방북 목적 및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ITTF가 11월 카타르에서 개최할 예정인 ‘피스앤드스포츠컵(Peace and Sports Cup)’ 탁구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임.

### ● 자유연애 즐기고 경제능력 중시하는 北(10/5, 연합뉴스)

-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는 5일 북한의 현재 모습을 통해 통일을 조망해 보는 통일교육 교재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교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970년대까지 남자는 군복무, 여자는 노동력을 이유로 결혼연령이 각각 30대, 20대 중반이었지만 최근에는 여성들에게 일찍 결혼할 것을 종용하는 분위기인데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배우자 기준도 바뀌고 있으며, 과거에는 출신성분을 중시해 당·정 기관의 간부나 군관이 인기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외무역 종사자, 외화벌이 일꾼이 ‘1등 배우자감’이고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독신여성이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됨.
- 북한 학부모의 교육열도 남쪽 못지않은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감소하자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원(교사)의 식량배급량은 물론 봉급까지 줄거나 중단된 지역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이 직접 부유층 자녀의 사교육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교재는 소개

### ● 北에 성매매·불륜만연..‘8·3 부부’ 유행(10/9, 연합뉴스)

- 남녀관계를 ‘혁명적 동지애의 결합’으로 강조해왔던 북한에서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유통, 불륜 등 성(性) 문란 행위가 만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 소식통은 9일 “경제난 장기화에 따른 당국의 주민 통제력 약화와

- 서구의 성문화 도입 등으로 북한에서 최근 들어 퇴폐 풍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올해 초 탈북한 함경북도 출신 주민을 인용, 북한에서 생활 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으며, 최근에는 여학생들이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 매춘에 나서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불륜관계를 의미하는 이른바 ‘8·3 부부’가 유행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8·3’이란 1984년 8월3일 당시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장이나 기업소 내 부산물을 활용해 생필품을 만들어 쓰라’는 지시를 내린 날짜를 말하는데 이것이 점차 가짜, 사이비, 조악한 물품 등을 뜻하는 용어로 변질됐다고 뉴스는 전함.
  - 몇몇 대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스트립쇼를 하는 당 및 공안기관 간부 전용 주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평양시 주민이 마약 복용 후 여성들과 집단 성행위를 하다 단속됐고, 신의주에서만 매음이나 퇴폐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연평균 100여 건에 달한다는 얘기도 전해짐.
  - 이에 북한은 특히 2009년 형법 개정 시 ‘퇴폐적 문화 반입·보관·유포죄’를 강화해 성(性) 녹화물을 반입, 보관, 유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뉴스는 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10.4선언」 발표 4돌 기념 ‘평화통일축전’, 10.4 개성에서 개막식과 토론회(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체 ‘호소문’ 채택) 및 통일음악회 진행(10/4, 평·중방·중통)
- 駐北 各國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 「10.4선언」 발표 4돌 즈음 10.4 쑥섬혁명사적지 참관 및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10/4, 중통)
- 北 민족전통음악 발표회, 10.6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진행(10/6, 중통)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공연, 10.6 咸北 청진시에서 첫 공연(10/6, 중통)

## 2 대외

### 가. 일반

- **러' 비상사태부 대표단 방북..식량지원 논의(10/4, 이타르타스통신)**
  - 러시아 비상사태부 대표단이 자연재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이날 평양발로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비상사태부 산하 '국제 인도주의 활동 추진 및 조정국' 국장 올렉 벨라벤체프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마무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평양에 도착
  - 러시아 대표단은 북한 농업성과 외무성 대표 등과 회담한 뒤 식량 지원 완료에 관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며, 양국은 또 북한에 대한 추가적 인도주의 지원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탈북난민 지원은 동북아 안정위한 투자”(10/5, 월스트리트저널(WSJ))**
  -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대규모 탈북 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 비용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투자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
  - 이에 따르면 거의 모든 탈북자는 한국행을 지원해주는 나라로 가기 전 중국을 거치고 있는데, 중국은 이들을 '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제3국에 도착할 때까지 지하세계로 숨어들면서 비용 마련을 위해 저급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곧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등 범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브루킹스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간 탈북자도 25명에 불과했는데 베이징주재 미 대사관을 통해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중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신문은 따라서 탈북자 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일 뿐 아니라 22년 전 동독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탈북자 지원 비용은 앞으로 동북아시아를 안정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덧붙임.

- **北 정치적 안정지수 2009년 이후 계속 하락(10/7, 미국의소리(VOA))**
  - 세계은행이 평가한 북한의 정치적 안정 지수가 2009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
  -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적 안정 지수는 2008년 0.47점으로 세계 상위 40% 안에 들었지만 2009년 -0.11점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0년에는 -0.45점으로 다시 하락
  - 세계은행이 1996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각국의 6개 분야 통치구조 점수를 -2.5점에서 +2.5점 범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은 정부 효율성 부문의 점수가 -1.87점, 규제의 질 -2.44점, 법치는 -1.30점으로 전년보다 각각 0.06점, 0.03점, 0.05점 떨어짐.
  
- **美 “분배 모니터링 보장돼야 대북 식량지원”(10/8, 로이터통신)**
  - 미국이 북한의 식량난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지만 지원에 앞서 식량전용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통신에 밝힘.
  - 그러나 미국이 식량지원 재개를 결정하려면 먼저 북한이 식량 분배 모니터링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눌런드 대변인은 강조
  - 눌런드는 “모든 결정은 인도주의 구호의 타당성과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지원 필요성, 배분 모니터링 보장 여부 등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실사단의 보고를 분석 중이며 북한의 식량 사정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中 외교관계 설정’(1949.10.6) 62돌 즈음 “조-중친선의 전통은 오늘 최고영도자들에 의해 확고히 고수발전되고 있다”며 “김정일의 訪中성과 및 불패의 친선관계는 영원할 것” 선전(10/6, 중통·민주조선)

## 나. 6자회담(북핵)

### ● 北, 미국 6자회담 전제조건 비난(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미국이 부당하게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천만부당한 조건부 타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은 회담 재개를 위해 우리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듯이 그릇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끝내 때를 놓치게 된다 해도 모든 사실자료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
- 중앙통신은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일방적인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대화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함.
- 이어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국내정치 일정상의 고비를 넘기기 위한 땀때기식의 대화가 아닌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
- 통신은 또 “회담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면 다 같이 평등하게 전제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동시행동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촉구

### ● 주러 대사 위성락..새 6자수석에 임성남(10/5, 연합뉴스)

- 정부는 5일 주러시아 대사에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위성락(57)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는 또 후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과거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았던 임성남(53) 전 주중 공사를 기용
- 임 신임 본부장은 서울 태생에 대신고-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외무고시 14회에 합격했으며 유엔 1등서기관과 주대만 대표부 참사관, 북미 3·1과장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6자회담 차석대표를 겸한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맡은 데 이어 2009년 9월부터 주중 공사로 일함.

● **임성남 새 6자수석 방미..‘북미대화’ 조율(10/6, 연합뉴스)**

- 우리 측의 새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6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임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미국 당국자들에 대한 신임 인사를 겸해 북미 후속 대화를 비롯한 향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목됨.
- 임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 후속대화 등 향후 대북대화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
- 임 본부장은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북미대화를 병용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해나가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짐.
- 외교부 당국자는 “임 본부장의 방미는 다음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문제에 관한 실무적 조율을 위한 것”이라면서 “신임 6자회담 수석 대표로서 미측 관계자들과의 상견례 성격도 동시에 띠고 있다”고 설명

● **임성남 6자수석 “대북 투트랙 기초 유지할 것”(10/6, 연합뉴스)**

- 우리 측의 새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초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임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기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중요한 시점에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기여하고 진전을 이뤘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힘.
- 그는 “전임 위성락 본부장이 의미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고 떠났다”면서 “그 토대를 잘 활용해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제 임무”라고 강조
- 그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면서 “저 역시 그런 큰 틀 아래에서 업무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후속 북미대화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걸로 안다”면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임.

### 3 대남

#### ● 정부 대북 수해지원 ‘北 무반응’으로 무산(10/4, 연합뉴스)

- 통일부는 4일 대북 수해지원 제의에 대한 북측의 무반응으로 지원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의 수해지원 의사에 북측이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아 더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원 절차를 종료한다”면서 “지원 물품이 전달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힘.
- 북측은 생필품 및 의약품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남측의 제의에 대해 식량, 시멘트, 장비 등을 통 크게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규모와 품목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북측이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 일본 표류 탈북자 일행 9명 입국(10/4, 연합뉴스)

- 목선을 타고 한국으로 향하다 일본에 표류한 탈북자 9명이 4일 정오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들은 남성 3명, 여성 3명, 아동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남성 1명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동암(東岩) 백남운(白南雲)의 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들은 일본 정부의 조사와 우리 정부관계관 면담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이들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이들의 국내 정착은 통일부 등 유관부처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밝힘.

#### ●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北리종혁 개성서 접촉(10/4, 연합뉴스)

-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이 지난달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개성사업소에서 리종혁 부위원장과 면담하며 금강산관광 재개와 재산권 문제를 협의

- 북측이 금강산 남측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면서 지난 8월 23일 금강산지구 내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는 조치를 함에 따라 접촉 장소를 금강산이 아닌 개성공단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납북자 전담 범정부 TF 추진(10/5, 연합뉴스)

- 통일부가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전담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관계자는 5일 “납북자 문제를 전담할 TF를 통일부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안(案)이 만들어지면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이 어려워지면 통일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는 납북자 TF가 설치되면 오는 10월 임무가 종료되는 전후 납북피해지원단 기능을 흡수할 예정이며, 이는 납북자 가운데 탈북자가 나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임.

● 北, 남하 주민 2명·선박 송환 요구(10/5, 연합뉴스)

- 통일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을 통해 어제 남하한 북한 주민 2명과 선박의 송환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오늘 오전 관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전함.
- 북측은 통지문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즉시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박 부대변인은 “현재 2명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인들의 자유의사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

● “남하 北주민 2명 귀순의사”..대북 통지문 발송(10/6, 연합뉴스)

- 정부가 동해 상을 통해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를 표시했으며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6일 발송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오늘 오전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측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보냈다”고 밝힘.
-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를 표시한 만큼 북측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북측의 송환 요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보임.

● **외통위,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결의안’ 채택(10/6,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강제복송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동시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당부하고 있음.

● **류우익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배제 안해”(10/6,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6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있는 조치 없이 남북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
- 류 장관은 일각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의자체가 자칫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용인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냄.

● **민화협, 8차분 밀가루 300t 北에 전달(10/7,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7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300t(약 1억6천만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민화협의 이번 지원은 월드비전이 마련한 것으로, 7월26일 1차분 300t 전달 이후 여덟 번째로, 민화협은 그동안 사리원시에 밀가루 1천754t을 지원했고, 이달 말까지 총 2천500t을 전달할 계획

- **“2030년 통일시 30년간 813조~2천836조원 소요”(10/7, 연합뉴스)**
  -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7일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0년 후인 오는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는 통일 전 20년간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GDP 대비 0.14%), 통일 후 2040년까지 10년간 통합비용으로 734조6천억~2천757조2천억원(GDP 대비 1.7%~6.76%)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임.
  - 단기형 시나리오(202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10년간 7조7천억원, 통일 후 10년간 371조5천억~1천253조4천억원 등 총 379조2천억~1천261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으며, 장기형 시나리오(204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30년간 235조원, 통일 후 10년간 765조4천억~3천42조6천억원 등 총 1천조4천억~3천277조6천억원이 들 것으로 나옴.
  - 통일부는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해 통일 후 1년간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통일 후 초기 1년간 비용은 단기형 27조4천억~120조1천억원, 중기형 55조9천억~277조9천억원, 장기형 75조1천억~298조1천억원 등으로 조사됨.
  - 제한적이지만 통일에 대한 편익도 제시했는데,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불변가격 기준으로 통일 후 10년간 재정이전으로 인한 북한지역 편익이 90조원, 분단해소에 따른 비용절감 16조6천300억원, 경제활성화 16조3천600억원, 비경제적 편익 16조2천200억원 등 49조2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병력 및 국방비 감축 등 국방부분 편익은 추산의 복잡성 등으로 포함되지 않음.
  -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류우익, 천즈리 中전인대 부위원장 면담(10/7,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7일 오후 방한 중인 천즈리(陳志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 장관과 천 부위원장은 한중관계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양국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10.10-10.16

10 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 1 대내

### 가. 정치

- **김정일, 태양열·양묘장 현지지도(10/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지구에 새로 지어진 태양열설비센터를 현지지도 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현지지도에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 부장이 수행
  - 통신에 따르면 센터 측은 최근 태양열 물가열기(발전기) 생산기지과 에너지 절약형 종합청사를 건설했으며 태양열 물가열기를 매년 수천대씩 대량생산해 보급할 예정
  -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중앙양묘장 현지지도 소식도 알림.
  - 양묘장 현지지도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 부장, 리룡하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함께 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당창건일 맞아 ‘노동당은 김일성당’ 강조(10/10,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10일 노동당 창건 66주년을 맞은 북한은 김일성 주석 동상 참배, 당창건 기념행사로 전역이 온종일 분주
  - 조선중앙방송은 10일 ‘당창건 66돌 반향’ 기사에서 “전체 당원과 근로자는 절세위인들의 영도에 따라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으로 수놓아온 우리 당의 60여 년의 역사를 감회 깊이 돌이켜본다”며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고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빛을 뿌릴 것이다’라는 사설에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과 전략전술도 수령님에 의해 마련됐고 당의 업적도 수령님의 존함과 잇닿아 있다”며 “김정일 동지의 령도 밑에 자기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됐다”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

● **김정일, 은하수음악회 관람·오리공장 현지지도(10/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당 창건 66주년을 기념해 열린 은하수 10월음악회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정은 외에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김평해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비서가 관람을 함께 함.
- 또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 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 당 중앙군사위원,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룡하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제1부부장, 김원홍·윤정린 당 중앙군사위원,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이 참석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최근 개보수를 마친 두단오리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전했으며, 현지지도에는 김경희, 장성택, 문경덕, 박봉주가 수행

● **김정일·정은, 노동당 66주년 연회 참석(10/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 창건 66주년(10·10)에 즈음해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연회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문경덕 당비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등이 참석
- 중앙통신은 리영호 부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했다고 전했으나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회 장소 등은 밝히지 않음.
- 중앙통신은 “연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해 억세계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정이 차 넘치는 속에 진행됐다”고 전함.

- **김정일부자, 대동강과수농장내 신축공장 현지도(10/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신축된 대동강 돼지공장과 대동강 그물공장, 자라공장을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김 위원장은 먼저 대동강 돼지공장을 둘러보고 공사를 맡았던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의 건설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대동강그물공장, 대동강자라공장을 둘러봄.
  - 현지도는 김정은 외에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태종수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비서, 리룡하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수행했으며, 리명수 인민보안부장과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은 현지에서 김 위원장 일행을 맞았다고 통신은 전함.
  
- **北내각, 올 경제계획 완수 방안 등 논의(10/15,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이 최근 최영림 총리 주재로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3분기 사업 평가와 올해 경제계획 완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중앙통신은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5일자를 인용해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3분기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정형·총화(현황 및 평가)와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수행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힘.
  - 회의에 보고된 3분기 사업의 주요 성과는 ▲1분기 대비 방적사 109%, 일반천과 뜨개옷 112%, 종이 165% 증산 ▲제2차 평양 제1백화점의 1천400여종 350만여점 상품 전시 ▲지방예산수입계획 113.3% 초과 수행 등임.
  - 이어 올해 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과업으로 석탄·전력·금속공업 부문의 증산, 철도운수 수송 증대, 제3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준비, 홍수 피해 복구 및 평양 꾸미기, 내각 사업 강화 등의 문제가 논의
  - 이날 회의에는 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성원이 참가했으며 내각 직속기관 책임일꾼과 관리국장, 도·시·군 인민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장·지구계획위원장·식료일용공업관리국장, 주요 공장·기업소의 지배인 등이 방청
  
- **김정일, 함남 단천지역 광산 2곳 현지도(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단천시의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룡양광산을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들 광산에서 과학기술도입 정형과 광물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了解.실태파악)한 뒤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고 광산마을 내 국숫집을 방문
- 김 위원장은 “탐사를 적극적으로 앞세워 더 많은 예비 광량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채굴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줄기차게 내밀어야 한다”며 “채굴설비를 부단히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 비서,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수행했고 현지에서 리찬화 단천지구 광업총국장, 리찬화·석덕환 단천지구광업총국 당 책임비서 등이 영접

● **김정일·정은, 함흥 주요기업소 현지지도(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제련소 등 주요 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소의 생산을 정상화하려면 전기, 무연탄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줘야 한다”며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고 가짓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이어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제련소도 잇따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생산량 증대를 독려
- 이날 현지지도에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 비서,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은하수 10월음악회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 관람(10/12, 중통·중방)
- 김정일, 개건된 ‘두단오리공장’ 현지지도(10/12, 중통·중방)
- 김정일, 黨중앙위·黨중앙군사위 주최 ‘黨창건 66돌 연회’ 참석(10/12, 중통)
- 김정일, 새로 건설된 대동강자라공장과 대동강돼지공장·대동강그물공장 현지지도 및 「감사」 전달(10/14, 중통·중방)

- 김정일, 대흥청년영웅광산과 용양광산 현지지도(10/16, 중통·중방)
- 김정일, 함흥시(咸南道) 중요기업소들(2.8비날론연합기업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룡성기계연합기업소·흥남제련소) 현지지도(10/16, 중통·중·평방)

#### 기타 (대내 정치)

- 【사설】 김일성 父子의 “黨건설·선군영도력” 찬양과 “국방력 강화 및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 조국통일투쟁” 再次 주문(10/10, 중통·민주조선)
- ‘조선노동당은 영원한 사랑의 품’ 및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 복’ 題下 등으로도 金父子의 ‘당건설 위업과 사회주의’ 선전 一色 (10/10, 중통·평방)

## 나. 경제

### ● “나진~하산 철도 13일 시범운행”(10/11, 연합뉴스)

- 러시아 철도공사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시범열차를 13일 운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은 11일 “러시아 측이 13일 나진~하산을 오가는 시범열차 운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시범열차가 도착할 북한 두만강역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차운행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함.
- 러시아 철도공사는 그동안 화물운송을 위해 나진~하산 구간 52km 철로를 보수해왔고, 이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中, 北무산광산 이어 혜산광산도 본격 운영(10/11, 연합뉴스)

- 북한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중국이 51%를 투자한 혜산청년광산이 지난달 준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중국 완상(萬尙)자원유한공사와 북한 혜산동광이 2007년 합자로 설립한 혜중광업합영회사가 운영을 맡은 이 광산은 준공식에 앞서 작년 가을부터 부분적으로 가동을 시작
- 코트라(KOTRA) 중국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측은 현금과 설비 등에 51%, 북한이 광업권과 토지사용권 등에 49%를 출자했다고 RFA가 전함.

- RFA는 “북·중 지하자원 교역의 증대로 북한의 지하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중국이 무산광산의 50년 채굴권 획득에 이어 혜산광산의 운영권도 확보함으로써 북한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두 개 광산을 모두 손에 넣게 됐다”고 논평

● **中관광단, 함북 칠보산·청진시 관광(10/11, 조선중앙통신)**

- 중국 관광단이 함경북도 칠보산과 청진시를 관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리중원 중국 투먼(圖們)시 공산당위원회 상무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관광단이 9일과 10일 칠보산을 유람했고 11일 청진시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밝힘.

● **“北주민 식량배급량 여전히 하루 200g 불과”(10/12, 미국의소리(VOA))**

- 북한 당국이 곡물 수확철인 9월에도 주민에게 정상배급량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하루 20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12일 전함.
- WFP는 최근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7월부터 성인 1명당 하루 20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으며 9월까지 3개월째 200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하루 정상 배급량이 성인기준으로 곡물 700g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셈으로, 북한 당국은 주로 밀, 보리, 감자 등을 배급하고 있는데 이런 식량을 하루에 200g씩 먹는다고 해도 성인 1명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3분의 1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WFP는 설명
- WFP는 지난 4월 말 북한에 긴급구호를 시작하면서 1년간 매달 북한주민 350만명에게 3만2천800t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지부진해 8월에는 단 185t을 전달하는 데 그쳤으나 10월에는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아일랜드 등 국제사회의 기부금으로 구매한 5만4천t의 밀, 쌀, 설탕, 식용유 등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 긴급구호 시작 이후 처음으로 목표량보다 많은 식량을 북측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방송은 전함.

- “北함북, 중국에 道단위 외화별이 식당 개설”(10/12, 오늘의북한소식)
  - 북한의 함경북도가 중국 랴오닝(遼寧)성 안산시에 외화별이를 위한 식당을 개설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가 12일 전함.
  -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24호)에서 대북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며 “평양을 제외하면 지역차원에서는 처음”이라고 밝힘.
  - 소식지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도당 간부는 “식당을 중국에 낸 것은 우리 도(道)의 모든 봉사망들이 원료난, 자재난으로 운영을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어떻게든 외국에서 원료를 자체적으로 구해보려는 목적에서 개설한 것”이라고 말함.
  - 소식지는 “사업장을 해외에 진출시킨다는 것은 지방당에서도 직접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해외진출 식당들은 수입에 관계없이 1년에 10만 달러 이상의 상납금을 중앙당에 바쳐야 해 선뜻 해외에 나갈 수 없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전함.
  - 또 평양에서는 올해 초부터 은행계좌에서 사용금액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가 외화상점이나 호텔식당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소식지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현재 생필품 대란이 벌어져 굶주리는 주민이 더욱 늘고 있지만 중앙당 호위사령부 차원의 ‘폭풍검열’ 이후 새로 등장한 중앙당과 지방당 관료들은 간부용 승용차를 지급받는 등 윤택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
  
- “北 나선 특구에 자본주의 불씨”(10/13, 뉴욕타임즈(NYT))
  -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NYT)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선 특별시를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
  - 이 신문은 현재 나선 지역에는 홍콩 기업이 개발한 카지노 리조트가 있으며 중국 관리들과 기업인들이 이곳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의 한 건설업체는 이곳에 판매장을 확장해 북한 상인들이 중국산 제품을 시장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으며, 오랜기간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에서 시장 가격이 등장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평가
  - 중국 정부가 임차한 항구에서는 중국 북동부 지역 탄광에서 실려온 석탄

이 상하이로 가기 위해 선적되고 있으며, 러시아 기업도 또다른 항구 한 곳을 임차해 사용중인데, 이처럼 물자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의 외딴 항구도시에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

- NYT는 또 북한 당국이 공산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 오랜 기간 정체돼온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문호를 서서히 개방하고 있다고 전함.
- 나선시에서 경제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황철남 부시장은 “나선시 당국은 해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세계에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함.

● “北양강도 수력발전소들 부실공사 논란”(10/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양강도에 건설한 수력발전소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부실공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이 방송은 최근 양강도 지역에서 탈출한 주민의 말을 인용, 북한이 약 10만명의 인력을 투입해 2007년 삼수발전소를 준공했지만 3년이 지나도 룩 발전기는 1대만 가동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전함.
- 이 탈북자는 “삼수발전소 전기로는 혜산시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명절공급도 못한다”며 “원래 이 발전소 건설은 노동당 선전부 아첨꾼들이 김정일에게 잘 보이느라고 시작됐다. 2008년 독이 수압을 이기지 못해 터진 적도 있다”고 말함.
- 삼수발전소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로 댐을 만든 것이 아니라 40m 간격으로 시멘트 기둥을 세운 뒤 그 속에 진흙과 막돌을 넣고 겉에만 시멘트 포장을 한 것이어서 사실상 댐 구실을 못한다고 그는 주장
- 방송은 양강도 백암군에 발전용량 6만kW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 역시 댐에서 물이 새 부실공사라는 비난을 받았고, 올해 안에 1호 발전소를 준공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망

● “폴란드 北대사관 이벤트회사 차렸다”(10/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대사가 있는 폴란드 주재

- 북한 대사관이 최근 ‘AmbasadaStudio’라는 이름의 이벤트 회사를 설립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이 회사는 각종 회의, 교육, 전시회 등을 기획하면서 음식과 장소를 제공하며, 이곳에서 현지 기업들의 신제품 발표회나 기업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한편 북한은 독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새 여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RFA가 전함.
- **北고려은행 전자결제카드 ‘고려’ 발행(10/14, 노스코리아 이코노미워치)**
- 북한의 고려은행이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카드 ‘고려’를 출시해 전자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북한경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가 14일 전함.
  - 이 사이트는 이날 “독일의 민간단체인 한스 자이텔 재단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고려’카드의 모습과 홍보용 전단의 사진을 공개
  - 전단의 안내문에 따르면 이 카드는 고려은행의 전자카드 결제체계에 가입한 외화 취급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안내문에 “(카드를) 현금 대신 대금 지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는 것을 보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데빗)카드의 형태인 것으로 추정
  - 북한에서 전자결제카드가 발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은행에서 외화를 충전한 뒤 호텔이나 외화 상점 등에서 이용하는 방식의 전자결제카드 ‘나래’를 발행하고 서비스를 시작함.
- **“어딜가나 건설장”…北 평양 새단장에 ‘올인’(10/16, 연합뉴스)**
-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선전하는 북한이 내년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 맞춰 평양시 새 단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평양에 주재하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2일 “지금 평양은 어디를 가나 건설, 건설이다. 기중기가 만(滿)가동하고 용접 불꽃이 설 새 없이 튀어나오는 광경을 여기저기서 목격하게 된다”고 전함.
  -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해온 만큼 내년 4월에 주민에게 새롭게

- 단장된 평양을 선보임으로써 강성대국 진입이란 시각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읽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한은 2008년 1월 평양에 10만호의 살림집(주택)을 건설해 2012년까지 주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경제난으로 철강과 원자재가 부족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초중반부터 다시 공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
  - 또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주택공사가 한창인 만수대지구와 마주 보는 동평양지구에는 대중탕과 가족탕 등 목욕시설과 이발소, 미용실, 식당이 입주하는 종합시설(1만7천400㎡)과 4계절 이용 가능한 원형빙상장을 포함한 인민야외빙상장(9천660㎡)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두 시설은 연말까지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손님을 받을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그 외에도 북한은 주택과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일 외에도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도로변 펜스도 새로 설치하는 등 도시 미화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에 강성대국 진입을 공언한 만큼 예년보다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이 만수대지구에서만 진행되는 등 경제난 여파도 관찰되지만 상징물이 될 만한 시설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전국청년돌격대부문 청년기동예술선전대 경연, 9.27~10.11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진행(10/11, 중통)
- 평양 피아노합영회사, 소형그랜드피아노 생산 시작(10/11, 중통)
- 北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평양 남포시), “10.9일까지 연간계획을 103.5% 초과수행” 자랑(10/12, 중통)
- 北 황해간석지건설사업소, ‘능금도(황남 은률군) 간석지 방조제 공사’에서 성과 이룩(10/12, 평방)
- ‘라진↔하산 철도구간 시범열차운행’ 행사, 10.13 ‘北-러친선각’(咸北 라선시 두만강역지구)에서 진행 및 연회 개최(10/13, 중통)
- 北 낙랑영예군인수일용품공장, “지난 10년간 인민경제계획을 130%이상 초과수행으로 인민생활향상에 기여” 선전(10/15, 중통)
- 평양과수농장의 현대화공사 착공 및 봉화화학공장에서 컴퓨터설비구비 등 근로자들 원격교육 실시 자랑(10/16, 중·평방)

## 다. 군사

### ● 북한軍 이상동향..전투기·미사일 전진배치(10/12, 연합뉴스)

-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 상황과 유사한 북한군(軍)의 이상 움직임이 포착돼 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당국자는 12일 “북한군이 최근 후방기지의 전투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기지로 남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군이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을 백령도 북방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NLL 해역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기지에서 이동발사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함.
- 특히 북한군은 최근 동·서해 상으로 여러 기의 대함 미사일과 KN-06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북한군은 사곶기지, 등산곶 등 서해안에 샴릿·실크웜(사거리 83~95km) 등 지대함 미사일과 SA-2(사거리 13~30km), SA-5(사거리 260km)를 비롯한 지대공 미사일을 집중 배치 중이라고 뉴스는 전함.
- 정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정부 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데다 우리 군 수뇌부 교체기인 점을 감안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힘.

## 라. 사회·문화

- “北 검열 강화에도 외부정보 계속 유입”(10/11, 미국의소리(VOA))
  - 북한 당국이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려고 단속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외신이 ‘국경없는 기자회(RSF)’를 인용해 11일 전함.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2004년에 이어 7년 만에 북한의 언론환경을 조사한 보고서를 10일(현지시각) 발표
  - 이 보고서는 “북한정부가 비(非)사회주의 바람을 막기 위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북한당국의 엄격한 언론·정보 통제에도 북한내 정보유통의 자유를 증진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대북방송과 DVD, USB 등에 담긴 동영상 등을 통해 북한 내에서 정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변화와 점진적 개방은 정권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보고서를 작성한 벤자민 이스마엘 RSF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은 VOA에 “북한은 더이상 외부와 단절된 나라가 아니다”라며 “다만 3대세습 체제 구축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더 강하게 탄압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함.
  -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관영언론에 대해 “7년 전과 같은 보도내용과 형식으로 김정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위해 일하는 북한의 언론환경에 우려를 나타냄.
- “北주민 840만명 영양부족…3명 중 1명꼴”(10/11, 자유아시아방송(RFA))
  - 굶주림으로 영양부족 상태인 북한주민 수가 840만명으로 추산한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10일 공동 발표한 ‘2011 세계의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는 북한주민 3명 중 1명꼴인 840만명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평가
  -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굶주리는 인구가 1990년대 초반 420만명에서 90년대 중반 700만명으로 늘었고, 이후 10년 이상 식량난이 이어지면서 2008년에는 전체 인구의 35% 수준인 820만명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다고 분석

● **북한 곳곳에서 보이는 김정은 이상화(10/11, AP통신)**

- AP통신이 10일 평양발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이상화 분위기에 대해 보도
- 이 통신은 김정은을 북한 인민의 마음속에 후계자로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선전이 활발하지만, 그가 북한 내에서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등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며 컴퓨터의 달인이라고 북한에서 알려졌지만 정확한 출생일이나 결혼 여부, 심지어는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고 통신은 전함.
- AP통신은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에 대한 강조가 지금까지 강했던 적은 없다면서 김정은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노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발걸음’은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을 그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라고 지적
- 한편 원산 수력발전소의 표응규 매니저는 발전소 벽에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을 기리는 세 번째 기념판을 붙였다면서 ‘걸출한 장군’이라는 빨간 글자가 새겨 있다고 AP통신에 말함.

● **北 “평양서 고구려 침성대터 발굴”(10/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종합대 역사학부 연구집단이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있는 평양민속공원건실장에서 고구려시기 침성대로 볼 수 있는 건축지 유적을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 건축지가 4각으로 된 중심시설과 다른 7각으로 된 시설로 구성돼 있고, 이 유적에서 나온 숲의 연대측정 결과 5세기 초로 밝혀졌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고구려 시기 침성대터는 신라 경주의 침성대보다 200여 년 앞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은 고구려가 삼국시기 천문학 발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평가

● **北가극단 ‘양산백과 축영대’ 中 순회공연(10/12, 연합뉴스)**

- 북한의 3대 가극단 가운데 하나인 피바다가극단이 내달부터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는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의 중국 순회공연에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피바다가극단은 내달 초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첫 공연을 시작

- 으로 중국 고전을 개작한 양산백과 축영대의 중국 순회공연을 한다고 선양의 소식통들이 12일 전함.
- 피바다가극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지난해 5월 6일 베이징에서 첫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와 창샤(長沙), 우한(武漢), 푸저우(福州), 선전(深川), 충칭(重慶), 시안(西安), 텐진(天津), 창춘(長春) 등 중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2개월여에 걸쳐 홍루몽을 공연
  -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비롯해 방북한 중국 인사들이 빠짐없이 이 공연을 관람하는 등 북한과 중국은 이 가극을 북·중 친선의 상징으로 삼고 있음.

● WHO “北 10만명당 345명 결핵, 아시아서 3번째”(10/12, 연합뉴스)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한해 동안 북한에서 인구 10만명당 345명 꼴로 결핵에 걸렸다고 12일 밝힘.
- WHO가 이날 발표한 ‘2011 세계결핵통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작년 결핵 발병률은 동티모르, 미얀마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높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WHO에서 결핵퇴치사업을 담당하는 필립 글라지우 박사는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북한의 결핵발병률은 세계에서 높은 수준으로 한국(10만명당 97명)과 비교해도 수배”라며 “북한 내 열악한 의료시설, 필수 의약품의 부족, 비위생적인 상하수도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함.

● “北 휴대전화 가입 100명당 1.77명 불과”(10/13, 미국의소리(VOA))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100명당 2명이 채 안 돼 가입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함.
- 방송에 따르면 ITU는 최근 200여개국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를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률은 100명당 1.77명으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에서 2번째”라고 밝힘.
- 그러나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률은 높아지는 추세이며, 방송은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의 조선체신회사와 합작해 세운 ‘고려링크’의 판매

원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VOA 기자에게 “가입자가 70만명 정도 되며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아리랑 폐막...4년 연속 연장 공연(10/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사랑하는 집단체조 ‘아리랑’의 올해 공연이 2차례 연장 끝에 지난 10일 폐막했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방송은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중국의 고려여행사를 인용, “지난 8월1일에 시작한 이 공연은 애초 9월9일까지 진행되기로 했으나 9월16일로 연장됐고 이후 재연장돼 10월10일에 막을 내렸다”며 “북한은 2008년 이래 4년 연속 공연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밝힘.
- RFA는 올해 공연에 대해 관람객들의 관람기와 사진 등을 토대로 “예년에는 없었던 중국어 대사나 카드섹션이 등장하는 등 북중친선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고 평가

● **北피바다가극단, 中서 3개월 순회공연(10/15, 천룡망(千龍網))**

- 피바다가극단 중국 순회공연 대행사인 중국대외문화그룹은 피바다가극단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중국을 순회하며 양측을 공연한다고 밝혔고 천룡망(千龍網)이 15일 보도
- 대외문화그룹은 앞서 지난 11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내달 초 이 가무극을 첫 공연하기로 북한 측과 협약했으며, 따라서 피바다가극단의 중국 순회공연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더라도 이달 말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여 중국 체류 기간은 3개월여가 될 것으로 보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南北 佛教徒’, 10.13 금강산 신계사에서 南 조계종 승려·신자들과 北 조선불교도연맹 교직자·신계사 승려 등 참가해 ‘금강산 신계사 복원 4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 진행(10/13, 중통·평방)
- 국가 책임일꾼들과 내각·중앙기관·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 일꾼 등, 10.13 ‘은하수 10월음악회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관람(10/13, 중통·중방)
- 北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예술영화 ‘미결건은 없다’ 제작(10/15, 중통)

## 2 대외

### ● 中외교부 대변인 “힘 닿는대로 北 도와”(10/10,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겨울을 앞두고 대북 식량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줄곧 힘 닿는 범위 안에서 조선(북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그는 이어 “미국 등의 여러 국가들이 최근 조선에 인도주의적인 식량 원조를 하려는 것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들 간에 쌍방이)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 패네타 “北·이란 핵야욕 중단시켜야”(10/12, 연합뉴스)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 이란 같은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에 처해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 야욕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패네타 장관은 이날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가진 ‘국방 우선순위: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급격한 국방예산 삭감의 위험성을 지적
- 그는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실험했으며, 이란은 필요 이상으로 핵농축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북한, 이란)는 국제적 의무 존중을 거부하고 핵 야욕으로 핵심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핵심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
-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거부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사실상 인정해 왔음.

### ● 후진타오 “中朝 협력관계 계속 발전시킬터”(10/13,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중·조(中朝) 친선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후 주석은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공동 명의로 김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앞으로 보낸 답전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 건국 62주년(10.1)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한 뒤 “중국의 당과 정부는

계속 확고부동하게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넣을 것”이라고 강조

● 클린턴, ‘수주내 北접촉’ 시사(10/13, 로이터통신)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취할 광범위한 문제들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 접촉할 용의를 가져왔다”면서 추가 북미대화 가능성을 밝힘.
- 국무부가 13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지난 11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추가 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함.
- 그는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향후 수주일 내에 더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 수주일 내에 북미간 추가 대화가 있을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
- 그는 구체적으로 이달 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대표간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확정이 된다면 이는 우리가 확실히 발표할 사안”이라고 답함.

■ 기타 (대외 일반)

- 최태복·김영일(黨 비서들), 10.11 駐北 쿠바대사와 담화(10/11, 중통)
- ‘北-러 외교관계 설정(1948.10.12) 63돌’ 즈음 “김정일의 訪러(8.20~27)는 ”전통적 조-러 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킨 중대한 사변“ 평가 및 ”공동의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발전 될 것“ 강조(10/12, 중통·노동신문)
- 北 공보위원회(‘안동춘’ 문화상)-라오스 공보, 문화 및 관광성 대표단(‘보쌩캄 윈다라’ 관광상) 사이 회담, 10.12 평양에서 진행(10/12, 중통)

### 3 대남

-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홍양호 前차관(10/10, 연합뉴스)**
  - 통일부는 10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에 홍양호(56) 전(前) 통일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사장은 재단 이사회에서 구성한 이사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임.
  -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측 법인이지만 원활한 지원·관리를 위해 남측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남측에서 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북측에서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 8명이 파견돼 있음.
  
- **금강산 외국인관광 시작...17일부터 4박5일(10/10, 연합뉴스)**
  -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국제관광이 실시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10일 자체 홈페이지에 “외국 여행사로는 유일하게 금강산 관광상품을 판매하게 됐다”며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나선~금강산 국제관광을 진행하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12일까지 신청해달라”고 공지
  - 이 여행사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들처럼 중국 훈춘에서 북한 나선으로 이동한 뒤 만경봉호를 타고 금강산을 방문하는 코스로 관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 **평불협, 北에 밀가루 60t 지원(10/10, 연합뉴스)**
  -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는 북한에 밀가루 60t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힘.
  - 연합뉴스에 의하면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과 평불협 관계자 등은 오는 13일 방북, 개성 봉동역에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중앙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밀가루 60t을 전달할 예정
  
- **개성공단 건축공사재개 허용..버스노선 확대(10/11, 연합뉴스)**
  - 정부는 11일 5·24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또 개성공단 내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를 개보수하고 출·퇴근 버스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11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개성공단 방문 이후 정부에 요청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차원에서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정부는 신축공사 외에 기존 입주기업 5개사가 진행 중이던 증축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으며, 개성공단 내 소방서 건설을 위해 조만간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착공을 거쳐 내년 말까지는 완공키로 함.
- 북측과 협의를 거쳐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잇는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4.5km) 개·보수 공사는 연내에 착공할 예정이며, 통일부는 도로 개·보수는 우리 측이 직접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2005년 11월 해당 도로 개·보수를 위해 자재와 장비를 북측에 지원했는데 6년 만에 도로 상태가 심각히 훼손된 상황을 감안해 직접 시공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북측 근로자 공급 확대를 위해 출·퇴근 버스를 확대 운용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개성공단 반경 20km 이내 지역인 개성시와 인근지역에만 버스를 운행해왔지만, 운행지역을 반경 40k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황해도 금천, 봉천, 평산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도 개성공단까지 출·퇴근 할 수 있어 근로자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를 견지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

● **정부, 중국·일본에 금강산관광 투자 자제 요청(10/11, 연합뉴스)**

- 북한이 외국과 손잡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중국과 일본 측에 투자 자제를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경주에서 유엔 국제관광기구(UNWTO) 총회에 참석 중인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11일 일본, 중국 대표와 차례로 개별 면담을 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했으며,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대아산을 비롯한 우리 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압류하고 외국 투자자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며, “일본과 중국이 금강산 관광에 투자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

- 면담에는 일본 국토교통성 켄 오크다(Ken Okuda) 부대신과 중국 국가여유국 두 지양(Du Jiang) 부국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의사를 본국에 잘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北 “KAL기 피랍자 생사 확인 불가”(10/11, 연합뉴스)**

-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대표 황인철)는 피랍자 11인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와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힘.
- 연합뉴스에 의하면 가족회는 지난 4월20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서신을 보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에 피랍자에 대한 생사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ICRC로부터 이런 내용의 북한측 답변을 전해 받음.

● **정부, 대북 경협업체 대출금 상환유예(10/12, 연합뉴스)**

-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북 경협업체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4개 대북 경협기업에 대해 이달 초 대출금 상환을 1년간 유예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지난 8월 초 위탁가공업체를 포함한 대북 교역업체 165개사에 대해서도 298억원 규모의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함.

● **민화협, 北사리원에 9차분 밀가루 전달(10/14,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4일 오전 밀가루 100t을 개성육로를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민화협은 이번 지원분까지 총 1천854t의 밀가루를 사리원시에 전달했으며, 3차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방북할 계획

● 남북합영기업 1호 ‘평양대마방직’ 계약파기 위기(10/14, 연합뉴스)

- 남북한 합영기업 1호인 평양대마방직이 계약파기 위기에 처했다고 김정태(68) 평양·안동대마방직 회장이 1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측 사업 파트너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최근 팩스를 통해 합영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건을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내왔다고 말함.
- 민경련은 이 문건에서 공장이 오랫동안 가동되지 못하는 책임은 남한측 사업 파트너에 있다고 전제, 합영사업의 지속적 진행 여부와 김 회장의 10월중 방북 가능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더이상 인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남북 양측이 절반씩 투자해 2008년 10월 평양 선교 구역에 준공한 평양대마방직은 남한 기술자와 북한 근로자들이 삼베와 비단 등 섬유제품을 생산했으나 2009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정부가 북한 내륙 방문을 금지한 데 이어 작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현재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뉴스는 전함.

● 北, 통일부 운영 인터넷 방송 비난(10/1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통일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통일방송’을 “반통일 대결 모략방송”이라고 비난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진실을 오도하는 너절한 모략방송 따위로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자주통일의 흐름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며 “괴뢰 통일부는 민심의 지향과 대세에 역행하는 어리석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모략방송 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

10.17-10.23

10 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 대내

### 가. 정치

#### ● 김정일, 함주군 협동농장 현지시찰(10/17,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주군에 있는 동봉협동농장을 현지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 위원장은 농장 연혁소개실을 둘러보고 올해 농사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了解, 실태파악)한 뒤 일조율이 낮고 냉해가 심한 악조건에서 계획을 달성한 것을 치하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함.
- 김 위원장은 “땅의 지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고 작물재배 과정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다수확 품종의 종자들을 적지에 배치해야 한다”며 “두벌농사를 더 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며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
- 현지시찰에는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 비서, 곽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리재일·박봉주·한광상 당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 김정일 부자, 인민군 감나무중대 공연 관람(10/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민군 3중3대혁명붉은기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감나무 중대는 동해안에 있는 여성 해안포중대로, 김 위원장은 지난 1995년 2월 이 부대를 첫 시찰한 이래 2009년까지 5회 이상 찾아가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함.
- 이날 무대에는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설화와 합창 ‘초소의 감나무야’, 2중창 ‘우리 군대 우리 인민’, 합창시와 합창 ‘여성 해안포병의 노래’등이 올랐으며, 김 위원장의 공연관람에는 김정은 이외에도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리두성 인민군 중장 등이 수행

● 北 “붕괴론 언급 美, 대화 진정성 의문”(10/1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19일 최근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신뢰조성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상대방의 제도를 헐뜯는 것을 보면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입만 벌리면 억압정책이요, 붕괴요 하면서 우리를 헐뜯고 있다”며 “이는 현 미국 정부도 전임자들처럼 우리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적대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
- 대변인의 언급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기자 회견에서 “(북한)정부가 언제 갑자기 붕괴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일 “6자회담 조건없이 조속 재개해야”(10/19,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아무런 전제조건없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힘.
-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 특파원을 두고 있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이행하며, 그럼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
-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함.
- 김 위원장은 이어 “한반도 핵문제는 우리 인민의 주권과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미국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공개적 핵위협과 가중되는 적대 정책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 역지력을 보유하는 길을 택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김 위원장은 북미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만일 미국이 지금이라도 조선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갖고 접근한다면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힘.

- 그는 “미국은 이번 세기 들어 조선에 대한 적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방향에 걸쳐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상황을 위기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 북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만둔다면 우리와 일본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북러관계와 관련, “현재 조선과 러시아에서는 가스관 부설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역동적으로 취해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 김 위원장은 “가스관 부설, 철도 연결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러 양국 경제협력 관계 발전은 양국 국민의 이해에 부합하며 지역 번영도 촉진할 것”이라며 “공화국 정부는 러시아 측과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김정일·정은, 석달만에 군부대 시찰(10/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4304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
- 김정일 부자가 군인들의 공연 관람이 아니라 군부대를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지난 7월25일 해군사령부 시찰 이후 3개월 만임.
- 김 위원장은 “기본 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말했했으며, 시찰에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리두성 인민군 중장 등이 수행

● **김정일, 방북 러시아 아무르주 주지사 접견(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방북 중인 올렉 코제야코 러시아 아무르주 주지사 일행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러시아 방문기간 아무르주 ‘부레이 발전소’를 찾았을 때 아무르주 관계자와 주민이 환대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코제야코 주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지난 8

- 월 북리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르주가 이 합의정신을 실현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로조 친선협조의 모범을 창조하는 주(州)가 되겠다”고 말함.
- 접견에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태종수 당 비서, 리영철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배석함.

● **北리종혁 내달 6일 독일 방문(10/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리종혁 조선-독일 친선의원협회 위원장이 다음달 6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리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남·북·미 3자 트랙 2’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을 차별없이 대해주고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
- RFA는 “리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6명이 11월6일부터 3일 동안 독일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문은 조독 친선의원협회 독일 대표인 스테판 물러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전함.
- 북한 대표단은 독일에 머무는 동안 의회 방문 외에 크레펠트시에 있는 독일의 대표적 철강업체 티센그룹을 시찰하고 곡물생산 농장도 돌아볼 예정

● **北김영남·최영림, 대동강 돼지공장 등 참관(10/21, 조선중앙TV)**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당정간부들이 21일 대동강의 돼지공장과 자라공장, 그물공장 등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김정일, 군부대·돼지공장 현지시찰·지도(10/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985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이날 시찰에는 김정은 외에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경옥 당 중앙군사위원,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현지 시찰(10/17, 중통·중방)
- 김정일,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10/18, 중통·중방)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4304군부대와 관하중대 시찰(10/19, 중통)
- 김정일, 10.20 러시아 아무르주 장관(올레그 꼬쨌야코) 일행과 담화 및 만찬(10/20, 중통)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85군부대 지휘부 시찰 및 광덕돼지공장 현지지도(10/22, 중통·중·평방)
- 김정일, 함경남도 안의 일꾼들과 노력혁신자들·과학자·기술자들을 위해 연회 마련(10/23, 중통)
- 김정은, 이영호, 김기남, 최태복, 장성택, 김정각, 박도춘(연설), 최용해, 태종수, 문경덕, 우동측 등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北 노동당('김영일' 당 비서)과 베닌 사회주의당 대표단('알리 후두') 사이 회담, 10.18 평양에서 진행(10/18, 중통)
- 박의춘 외무상, 10.18 만수대의사당에서 유엔인도주의사업담당 부사무총장('발레리에 아모스') 일행과 담화(10/18, 중통)
- 北 노동당('김영일' 당 비서)과 베트남 공산당('황 빙 꾸언' 대외부장) 사이 회담, 10.21 평양에서 진행(10/21, 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투, 10.21 '희천발전소건설기념메달'(희천발전소건설자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함) 제정 '결정'(10/22, 중통·중방)
- 중앙양묘장 종업원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 10.22 김창룡(국토환경보호상) 등 참가하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궐기모임 진행(10/23, 중방)

나. 경제

● 연변 삼합통상구 올해 北中교역량 287% ↑ (10/17, 연변일보)

- 두만강 유역의 북한과 중국 교역 거점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용정(龍井)시 삼합(三合)통상구의 북·중 교역량이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삼합통상구의 북·중 교역량이 10만5천t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증가했으며 이 통상구를 거쳐 북한을 오간 양국 무역상도 2만3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3% 늘었다고 연변일보가 17일 보도
- 신문은 매일 철광석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꼬리를 물고 북한 회령을 통해 삼합통상구로 넘어오고 있으며 기계 설비와 농약, 식량 등을 채운 트럭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함.

- 삼합통상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북한당국이 광산 자원의 수출 규제를 완화, 철광석의 중국 유입이 크게 늘었으며 중국산 농약과 화학비료, 기계 설비 등의 북한 수출도 증가 추세”라며 “교역 물량이 많을 때는 통관 처리를 하느라 통상구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함.
- 용정시는 대북 교역 활성화를 위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북한도 수출·입 화물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지하자원 수출 물량과 중국산 곡물의 수입 쿼터를 늘리는 등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함.

● “30대 北관료들 싱가포르 경제 배우길 원해”(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경제개발 연수에 참석했던 북한 관료들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이번 연수를 주최한 제프리 시 조선익스체인지 회장은 “북한 관료들이 주로 30대로 젊은 세대라 그런지 매우 개방적이었다”며 “싱가포르의 경제정책 중에서 어떤 점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함.
- 시 회장은 또 “북한 관료들이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과 정책이 매우 인상 깊다며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배우고 싶다고 했다”며 “그들은 한 국가의 정부가 건전한 경제정책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더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전함.

● 北무역성-러 아무르주,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10/18, 조선중앙통신)

- 무역성과 러시아 아무르주(州)가 18일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합의서 내용은 전하지 않음.
- 평양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상, 서길복 무역성 부상, 심국룡 나훗카 총영사 등이 나왔고, 러시아 측에서 올렉 코제먀코 주지사와 발레리 수히닌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
- 러시아 극동의 아무르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러시아 방문때 찾은 ‘부레이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9월에는 북한 농업대표단이 이곳을 찾아 농지 임대를 비롯한 농업분야 협력을 논의

- 아무르주 주정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에서 “북한 노동자 초청, 상호 관광교류, 에너지 분야 협력, 농지 임대, 목재 가공 협력 등을 논의했다”며 “북한 측과 경제협력에 관한 포괄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힘.

● IFAD “대북 농업대출사업 재개계획 없어”(10/19,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파하나 헤이그 라흐만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아직 대북 사업을 재개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라흐만 대변인은 “지난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등과 협조해 대출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며 “IFAD가 1996년 북한에 첫 사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대출한 금액은 6천910만 달러로 대북사업에 배당됐던 9천800만 달러의 예산 중 약 70%가 집행된 상태”라고 전함.
- 카나요 느완자 IFAD 총재는 지난 7월 “지금까지 3개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북한에 지원했지만 2009년 중단했다”며 “IFAD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사업 이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대북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함.

● “유엔, 北 식량부족 과장 가능성 조사”(10/20,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는 20일 유엔이 북한의 식량부족 실태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부풀리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
- 르 몽드는 이날 유엔인도주지역무조정국(OHCA) 발레리 아모스 국장이 지난 1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식량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함.
- 신문은 북한 안전요원들이 유엔 직원과 국제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이번 유엔의 실태 조사는 국제사회의 의문을 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
- 르 몽드는 이달 초까지 유엔이 약속한 2억달러어치의 대북 원조 가운데 3분의 1만이 집행되고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물량도 지난 여름부터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지난 5월말 자체 조사단을 파견했던 미국이 대북

지원식량의 전용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나타난 것이라고 말함.

- 신문은 미국과 한국의 경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는 국제사회의 경제재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따라서 유엔은 대북 원조를 재개하기에 앞서 식량부족 실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함.

● **北 올가을 수확, 식량난 해결에 미흡(10/21, 연합뉴스)**

- 북한의 올가을 농작물 수확이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에 파견된 국제원조기구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올여름 홍수와 치솟는 국제곡물가격, 핵무장한 이 나라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소극적인 원조는 수백만명의 아이들과 임신부들까지 서서히 굶주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뉴스는 전함.
- 원조기구 관계자들은 북한의 원시적 영농기술, 경작지 부족 외에 식량을 빼돌려 군과 당간부들에게 지급했을 가능성까지 겹쳐 북한 식량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
- 월드비전과 머시코프 등 5개 원조단체는 지난달 26일 미국 국제개발청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매우 심각한 식량난 가능성”에 직면해있다고 밝힘.
- 이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식량 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3개도를 돌아보고 나서 6개월-9개월 후 곡물 비축량이 바닥날 경우 훨씬 심각한 식량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해 함흥 일원의 병원과 학교, 고아원 등을 돌아본 발레리 아모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장은 “아동영양실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北 지역·계층 차별배급으로 식량지원 어려움”(10/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배급체계가 거주 지역과 계층에 따라 식량 배급을 달리하고 있어 대북식량지원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럽 구호단체를 인용해 22일 전함.
- 헬프에이지(Helpage), 의료구호기구 멀린, 노르웨이난민위원회 등 유럽의 3개 국제구호단체로 구성된 ‘재난평가프로젝트’는 최근 북한의 재난 현황과 구호단체의 지원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
- 이 보고서는 “구호단체의 식량지원이 북한 정권을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

고 있어 인권탄압 피해자나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식량 배급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도, 강원도 주민 약 680만 명 중 약 300만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는 평양과 인접한 평안도, 황해도 의 주민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라고 밝힘.

-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식량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구호단체들이 북한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 中 “올해 북한과의 교역 87% 증가”(10/23, 신화통신)

-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북한 방문에 맞춰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고 중국 관련 신화통신이 23일 보도
- 신화통신은 그러나 양국 간 교역 증가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음.

■ 기타 (대내 경제)

- ‘홍남가스화 1계열공사 완공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통해 “노동계급의 영웅적 투쟁으로 2년반 사이에 완공, 첫 비료를 생산하였다”며 “자력갱생의 혁명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고 自讚(10/17, 중통·중방)
- 이용남(무역상) ↔ 러시아 아무르주 장관(올레그 꼬쨤마코), 10.17 평양에서 회담(10/17, 중통)
  - 전력공업성 1부상 ‘김만수’, 러시아 나호드까주재 조선총영사 ‘심국룡’ 등 참가
  - 회담은 쌍방 사이의 경제협조를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토의
- 제7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10.17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10/17, 중통·중방)
  - 강석주, 이용남, 박병종, 이학권, 김문정(조선국제전람회 사장/개막연설) 등 참가
- 제9차 전국조선옷전시회(10.19~21, 700여점 출품) 개막식, 10.19 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 등 참석下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10/19, 중통)
- 경제강국건설에 위훈을 세운 ‘함경남도 일꾼들과 노력혁신자·과학자·기술자들’, 10.20 은하수 10월음악회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관람 및 금수산기념궁전·만경대 등 방문(10/20, 중통·중방)
- 김영남·최영남 등 黨·政 책임일꾼들, 10.21 새로 건설된 대동강돼지공장·대동강자라공장·대동강 그물공장 참관(10/21, 중통)
- 함경남도 일꾼들과 노력혁신자·과학자·기술자들, 10.21 대동강과수종합농장·대동강돼지공장 등 참관(10/21, 중통)
-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함주군 동북협동농장 등 전국 본보기 농장들, “가을걷이에서 성과 이룩” 선전(10/21, 중방)
- 평양 ‘두단오리공장’(지배인 : 박성근), “대규모의 고기생산 및 가공기지로 개건” 선전(10/21, 중통)
- 함흥시 방직거리 도로포장 완공 및 강계↔만포 도로포장과 살림집·편의봉사시설 건설 등 자강도 內 면모일신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등 벼 추수 완료 등 短信(10/22, 중·평방)

## 다. 사회·문화

- **北 ‘간첩영화’ 이례적 제작…체제이완에 위기감?(10/17,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간첩망을 색출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의 활약상을 그린 예술영화 ‘미결건은 없다’를 제작했다고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17일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영화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하려는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비열한 음모를 분쇄해버리는 보위일꾼들의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에서는 하나의 미결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
  - 영화를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북한이 체제전복을 노리는 간첩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것은 드문 일이며, 이는 북한이 남한 드라마와 가요 등 외부문화 유입에 따른 체제이완에 위기감을 느끼고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주체의 나라’ 北서 급증하는 외래어(10/18, 조선중앙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우리민족끼리)**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당정간부들이 평양 두단오리공장을 방문했다며 “참관자들이 오리고기훈제장, 과학기술보급센터 등을 돌아보고 자동화, 컴퓨터 화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데 대해 경탄을 표시했다”고 보도
  - 북한 매체가 ‘센터’ ‘컴퓨터’ 등을 쓰는 것은 외래어가 북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북한 매체는 오래전부터 트랙토르(트랙터), 라지오(라디오), 바께즈(양동이) 등의 외래어를 사용해 왔음.
  -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이날 세계화를 꿈꾸는 북한에서 ‘고려링크’ ‘게임’ ‘조선컴퓨터센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산업총국’ ‘내나라정보센터’ 등의 외래어가 크게 늘었다고 소개
  -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부터 산업시설의 CNC화

- 를 선전했고, 현재 평양 시내 대로변과 공장, 기업소 등에서 CNC와 관련된 구호가 많이 붙어있으나 북한은 정보통신 이외 분야에서는 좀처럼 외래어를 쓰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6일 '영어망국병이 부른 결과'라는 글에서 남한이 무분별하게 영어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
  -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남조선에서 지금처럼 고유한 우리말과 글이 짓밟히고 그 순수성이 훼손되면 언어분야에서 민족성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조국통일 위업에 커다란 해독(害毒)"이라고 주장

● “北주민 10명중 9명 ‘김정일=法’ 인식”(10/18, 연합뉴스)

- 북한 주민 대다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에 미치는 뇌물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는 최봉대 경남대 교수 연구팀이 통일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서울, 인천, 대구, 광주에 사는 탈북자 80명을 설문 조사해 최근 내놓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으로 18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는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국가 차원의 도구'가 법인데, 대부분의 법이 공정하지 않고 처벌 또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전함.
- 우선 응답자 90.5%가 '김정일 말씀(지시)이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답했고, 74.4%는 '지도자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내용의 법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52%는 김정일의 말씀(지시)-당 명령-내각 결정-당간부 지시-헌법(일반법) 순으로 '힘이 세다'고 답함.
- 뇌물 등 불법행위에 따른 법의 무력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 두 명 중 한 명(47.4%)은 '형사재판시 뇌물이 없다면 도둑도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 69%는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것을 불신함.

● WHO “북한 작년 결핵 재발률 18%”(10/20,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보건기구(WHO) 결핵근절부서의 헤일이서스 제타운 박사가 지난해

북한에서 결핵이 치료된 뒤 재발한 비율이 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 제타운 박사는 “북한에서 결핵치료 성공률은 83% 정도로 높지만 사후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며 “북한 내 의료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불규칙한 것이 결핵 근절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함.
- WHO는 최근 북한의 작년 결핵발병률이 10만명 당 345명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 버마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오라스콤, 北서 휴대전화 인터넷서비스 계획”(10/21, 미국의소리(VOA))

- 북한 내 이동통신사업자인 이집트 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
- 최근 방북했던 미국 민간단체 ‘조선익스체인지’의 제프리 시 회장은 “오라스콤 관계자가 북한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현재 서비스 시험단계라고 말했다”고 이 방송에 전함.
- 방송은 그러나 “북한 당국은 아직 오라스콤의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가 시작되더라도 가입자를 평양에 상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져 일반 주민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봄.
- 오라스콤은 올해 상반기 실적보고서를 통해 6월 말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66만여명이고, 북한 주민의 92.9%가 휴대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산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일 러시아방문을 기념하여 새 우표(소형전지 3종) 발행(10/17, 중통)
- 北 적십자회 창립(1946.10.18) 65돌 즈음 ‘적십자활동 소개모임’, 10.18 백용호(적십자회 부위원장), 조영남(국가계획위 부위원장) 등 참가자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10/18, 중통)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10.18 사리원시 황해북도예술극장에서 첫 공연 진행(10/18, 중통)
- 北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일의 訪中기념 우표(소형전지 1종) 발행(10/18, 중통)
-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단군릉 소개 다매체편집물 ‘옛시조왕릉을 찾아’ 제작(10/20, 중통)
- 국가우표발행국, ‘2011항저우 세계휴한(休閑)박람회’를 기념하여 새 우표(개별우표 2종) 발행(10/20, 중통)

## 2 대외

### 가. 일반

#### ● 美 “북-버마 관계 주시..우려 남아있다”(10/17, 연합뉴스)

- 데릭 미첼 미국 국무부 미얀마(버마) 담당 정책조정관 겸 특별대표는 17일 (현지시간) 북한과 미얀마간의 관계를 계속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 미첼 특별대표는 국무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신의 지난달 미얀마 방문 결과와 관련, “버마와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의 투명성에 대해 얘기했으며 특히 북한과의 관계의 투명성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함.
- 그는 “우리는 매우 매우 긴밀히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어떤 분야에서는 일부 진전도 봤지만 우리가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도 있다”고 설명
- 그는 현재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화가 미-미얀마 양측간에 계속 진행중 이라면서 “그들은 북한과 자신들간에 특별한 것이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함.

#### ● 북미 유해발굴회담 방콕서 개최(10/18, AFP통신)

- 미군 유해발굴 사업재개를 논의하는 북미 간 회담이 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캐리 파커 공보관은 양국 대표단이 방콕에서 회담을 시작했으며 이번 회담은 2~3일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
- 미국은 이번 회담에 로버트 뉴베리 국방부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실종자 사무국(DPMO)과 국무부, 태평양사령부, 주한 유엔사령부 등의 관계자들을 파견
- 앞서 미 국방부는 17일 북미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대화에서는 오로지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발굴 문제만 논의될 것”이라며 “실종 미군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인도적 사안이며, 양국간 다른 어떤 이슈와도 무관하다”고 강조

● **남북미 美서 난상토론..北 ‘유화’ 조짐(10/19, 연합뉴스)**

- 1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대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남·북·미 3자 트랙 2’ 토론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사석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도 거론됐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남측 인사가 “북측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서 더욱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무엇보다도 토론회의 관심은 북한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온 리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입에 쏠렸으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선지 토론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앞서 리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남 간에 무력충돌까지 빚어져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 일관된 것”이라고 강조

● **中리커창, 23~27일 방북후 방한(10/19, 연합뉴스)**

-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가 다음주 남북한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리 상무부총리가 23~25일 북한을, 26~27일 남한을 찾는다”고 밝혔으며, 또한 “리 상무부총리는 남북한의 요청에 따라 정식 우호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
- 그는 이어 “남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양국과 고위층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리 상무부총리가 남북한 방문을 통해 해당국의 영도자들과 회담하고 쌍방 관계와 국제문제 등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함.
- 그는 특히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은 유관 각측과 적극적인 접촉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중국은 각측이 현재의 유리한 정세를 틀어쥐고 서로 마주보면서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美, 오바마 임기 후반기 대북라인 재정비 완료(10/20,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미국의 대북라인 재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 국무부 내 대북 라인에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특사 라인이 주축이었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가 한반도 정책라인으로서 대북정책에 깊숙이 관여함.
- 2년여를 유지하던 대북 라인업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차례대로 교체되기 시작했는데,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베이더 보좌관이 정부직에서 물러나 학계와 싱크탱크로 각각 자리를 옮겼고, 성 김 특사가 지난 6월 주한미대사로 지명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손을 뗐으며, 이런 흐름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마침내 교체됨으로써 대북라인 재편 흐름의 정점을 찍게 되었다고 뉴스는 전함.
- 당초 전공을 살려서 번스 부장관이 중동·유럽 분야를 관장하고, 서먼 차관이 한반도 등 아시아를 관장하는 분담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장관급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회의(NSC) 부장관급 회의에서 북한 이슈도 중요한 현안만큼 이 회의에 참석하는 번스 부장관이 전임자인 스타인버그의 바통을 이어받아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현안을 챙기는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성 김 대사의 후임에는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가 자리를 메꿨고, 보즈워스 대표 후임에는 글린 데이비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사가 내정된 상태라고 뉴스는 전함.
- NSC 아시아 담당보좌관에는 대니얼 러셀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이 승진, 기용되었으며, 백악관, 국무부 라인에서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만이 유일하게 정부 출범초부터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무부는 번스 부장관-캠벨 차관보-데이비스 특별대표-하트 특사 라인으로 대북정책이 집행되게 됐다고 뉴스는 전함.
- 한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정책 실무입안자들은 바뀌었지만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라인 재정비를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변화의 신호로 읽기에는 무리”라며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말함.

● 中 “리커창 남북방문, 한반도 평화·안정 기여”(10/21, 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상무부총리의 23~27일 남북한 방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 부장이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
- 장 부부장은 먼저 “중국과 북한은 고위층 교류의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리 부총리의 북한 방문은 정치적 접촉을 통해 상호호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가 미화로 34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며 “양측이 압록강 대교와 (황금평과 라선 등의) 두 곳의 경제 지역 등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

● 北中 기상부문 협조 회담록 조인(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기상수문국이 21일 중국 기상국과 기상부문 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6차 회담록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위신원 부국장을 비롯한 중국 기상국 대표단은 지난 17일 방북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류봉철 북한 기상수문국 부국장 등과 회담
- 중앙통신은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으나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4월 방북 직후 중국등 국제사회에 기상관측설비를 북한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2009년 중국이 북한에 기상관측설비를 기증한 전례가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이 남측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조선민족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데 있다”며 “세계최대의 무기장사꾼, 평화와 안정 파괴의 주범”이라고 비난(10/17, 중통·노동신문·평방)
- “미국에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일어난 반월가시위가 전세계에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자본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는 분석 傳言(10/17, 중통·평방)
- 北 「외무성」 대변인, 10.19 美고위관리들의 ‘北 체제비난(억압정책·붕괴)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不變과 대화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선군정치·핵억제력 강화’ 豪言 중통 對答(10/19, 중통·중방)
- 미국이 이처럼 의연히 상대방의 ‘제도붕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는 제쳐놓고 그 무슨 ‘핵포기’에 대해서만 떠들어대고 있음.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7기 제6차 전원회의(10.15~18, 베이징) 소식 상세히 보도(10/19, 중통)
- 中國 국무원 부총리 ‘리커창(李克強), 10.23~25 공식친선 訪北 예고(10/19, 중통·중방)
- ‘北-방글라데시 외무성間 협조에 관한 양해문’, 10.19 박길연(부상) 및 방글라데시 외무성 대표단

등 참석下 평양에서 調印(10/19, 중통·중방)

- 【北 조선중앙통신사 논평(10.21)】 日 우익세력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최 많은 침략역사를 재현 하려는 정치적 망동”으로 비난 및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도덕·법률적 의무 이행” 촉구(10/21, 중통)
- 中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 10.23 北 초청에 의해 공식 친선방문차 평양도착(10/23, 중통)
  - 여우취엔(국무원 부비서장), 장즈쥘(외교부 상무부부장), 천위엔(국가개발은행 이사장), 류지에 이(대외연락부 부부장), 류티에난(국가발전 및 개혁위 부주임), 천지엔(상무부 부부장), 닝지저(국무원 정책연구실 부주임) 등 동행
  - 강석주, 김영일, 문경덕, 김성기 등이 영접
- 최영림(내각총리), 10.23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0/23, 중통)

## 나. 6자회담(북핵)

### ● “美, 北과 직접대화 준비중”(10/17, 월스트리트저널(WSJ))

-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측과의 또다른 직접대화를 준비중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
- 제 2차 북미대화 가능성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과 최근 이뤄진 남북간 대화 이후보다 확실해졌다고 WSJ은 전함.
- 특히 이 신문은 북미대화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대화가 이달 말 이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과거 대북협상에 참여한 바 있고 현재도 이른바 ‘트랙 2’ 대화에 관여하고 있는 에번스 리비어 전(前)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우리는 또다른 만남을 위한 궤도에 올라가 있다”고 말함.
- 또다른 ‘트랙 2’ 이벤트는 17일부터 미국 애틀랜타주 조지아대에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학술회의인 ‘남북 미 3자 트랙 2’에는 미국과 한국의 의원들뿐 아니라 북한의 관리들도 참석

### ● “제2차 북미대화 제네바서 24~25일 개최”(10/19, 교도통신)

-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가 오는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
- 이번 회담에는 미측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측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이 각각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지난 7월말 뉴욕에서 열린 제1차 대화 때도 대표로 참석
  - 약 3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북미대화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핵심 의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 프로그램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 “美 전제조건 고집하면 대결 재연”(10/19,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9일 “미국이 저들의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면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위한 조선의 평화적 핵활동이 먼저 중단돼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 조선신보는 이날 ‘미국이 전제부 고집하면 대결 재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오히려 9·19공동성명에 관통된 동시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조선신보는 또 “미국이 문제해결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두번째 고위급 회담에서 상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쌍방의 행동 순서와 절차에 관한 합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오바마 정권이 고위급 회담을 마련한 목적이 내년의 선거를 무난히 치르기 위한 시간지연전술에 불과하다면 조선은 일찌감치 다른 길을 택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6자회담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

■ 기타 (6자회담(북핵))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6자회담 재개’ 관련 “조선반도 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세우기 위해 기본당사자들인 北-美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한다”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거듭 요구(10/20, 중통)

### 3 대남

● **현대아산, 지난주 북측과 금강산관광 협의(10/17, 연합뉴스)**

- 현대아산 측이 지난주 개성을 방문해 북측과 금강산관광과 재산권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대아산 김영현 상무(관광경협본부장)는 지난 13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북측 김광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과 만났으며,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북측이 법적 처분을 단행한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광재개 등에 대해 협의
-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나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류우익 “대화채널 열기위해 여러가지 검토중”(10/18,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18일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대화채널을 열기 위해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집무실에서 조지 슈워브 NCAFP 회장과 전 주중 미국대사 제이 스타플레톤 로이 키신저 연구소장 등 대표단 6명과 만나 남북관계 전반과 북한의 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류 장관은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민화협, 北사리원에 10차분 밀가루 지원(10/19,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9일 오전 밀가루 300t을 개성 육로를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지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한편 민화협은 26일부터 29일까지 방북해 3차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

기타 (대남)

- 南 당국의 친북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은 “10.26 재보선을 무난히 치름으로써 재집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흥계의 발로” 비난 및 “인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 持續 선동(10/18, 중통·노동신문)
- 南 당국의 ‘10.4선언 발표 4돌 기념행사’ 不許를 거듭 비난하며 “『6.15·10.4선언』 지지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대중적 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리자”고 선동(10/18, 중통·노동신문)
- 李대통령의 美 議會 연설(10.13, 현지시간)에 대해 “親美 충성맹세로 일관됐다”고 왜곡 비판과 ‘美 국방부 펜타곤’ 방문 및 ‘韓美 FTA’ 美 議會 비준 등 訪美성과 폄하(10/19, 조선신보)
- 【조평통 대변인, 李대통령 訪美 관련 중통기자 질의대답】 李 대통령의 訪美 성과에 대해 “오바마행정부의 재집권선거전략에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반민족적 매국행각, 반통일대결행각”이라고 再次 비난(10/20, 중통·평방)
- 서해 5개 섬 일대의 ‘전력증강 및 해상사격훈련’ 관련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 무력충돌의 위험을 조장시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해치는 무모한 행위”라며 “전쟁연습 중지” 요구(10/20, 중통·노동신문·평방)
-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과장 리경진, “5월 금강산국제관광 시작 이후 中·러·유럽 등 20여 개국 외국인들이 금강산을 관광했다”며 “시설·관광형식 개선, 외자 유치에 위한 법률적 환경 완비 등으로 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것” 언급(10/21, 중통)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24-10.31

10 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 1 대내

### 가. 정치

#### ● 北당·내각, 中참전 기념 ‘우의탑’에 헌화(10/24, 조선중앙통신)

- 중국인민지원군의 6·25 참전 61주년을 하루 앞두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공동명의로 화환을 ‘우의탑’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헌화행사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보건상 겸 조중친선협회 위원장, 김성남 당 중앙위 부부장,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보경 인민보안부 부부장, 김성기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등이 참가

#### ● 김정일, 방북 리커창 中부총리 면담(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4일 방북 중인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를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은 면담에서 평양에서 이뤄진 북중간 회담이 잘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전통적인 양국간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려는 노동당과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리 부총리도 “중조(중북) 최고 영도자들 사이에 이룩된 광범위한 합의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시종 전략적인 높이와 전망적인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틀어쥐고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을 견지함으로써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키자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화답
- 면담에는 북측에서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김양건 당비서 등이 배석했고, 중국측에서 여우취엔 국무원 부비서장,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천위안 국가개발은행 이사장, 류제이(劉結一)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테난(劉鐵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천젠(陳健) 상무부 부부장 등이 함께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대장동지’ 일제히 호칭(10/25, 연합뉴스)

- 북한의 매체들이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일제히 ‘대장동지’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의 매체들은 이날 김정일 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의 면담 사실을 보도하면서 배석자 명단에서 김정은을 ‘대장동지’로 소개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은 호칭이 ‘대장동지’라는 사실은 그가 후계자로 공식화되기 이전의 교양(교육)자료나 그를 찬양하는 플래카드 등에서 확인됐으나, 북한의 매체들은 그동안 김정은을 다른 고위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지’로 칭해옴.
- 북한이 김정은에게 ‘대장동지’란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대장복(福)’ ‘발걸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김정은이 후계자임을 암시해온 데서 좀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후계자임을 공식화한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

● 北최영림 총리 농업과학원 현지 요해(10/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25일 농업과학원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了解·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최 총리는 농업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성과를 요해했다”며 “종자혁명과 다수확 품종의 확보를 강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전함.
- 그는 2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당·정 간부들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다녀간 대동강 폐지공장 및 자라공장, 그물공장 등을 참관

● 北총리, 中화전집단공사 사장 면담(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원공민 중국 화전집단공사 사장을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최영림 내각 총리는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원공민 중국 화전집단공사 총경리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며 “이 자리에는 허택 전력공업상, 김형식 석탄공업상, 신남철 조선영광개발총회사 총사장과 왕즈린(王治林)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경제무역 참사가 배석했다”고 전함.

- **김정일·정은, 자강도 공장 5곳 현지지도(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자강도의 강계트랙토르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2·8기계종합공장, 희천연합기계종합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
  - 현지지도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 당비서, 리재일·박봉주 당 제1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이 수행
  - 김 위원장은 강계트랙토르종합공장의 CNC(컴퓨터수치제어)화된 생산공정에 만족감을 표하고 공장에 새로 건설된 도서관을 돌아본 뒤 공장의 노력 혁신자, 과학자, 기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방송은 전함.
  - 김 위원장은 또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의 현대화·과학화를 실현한 데 대해 김일성 훈장을 수여할 것을 제의하고 공장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관람
  -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건설하려는 경제강국은 지식경제형 경제강국”이라며 “이것은 적은 자원, 적은 노력, 적은 에너지로 보다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할 수 있게 하는 CNC화, 무인화를 실현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함.
  
- **北 “무적군대도 붕괴”…리비아사태 간접거론(10/3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1일 “김일성 민족의 운명과 전도는 새 세대들에게 달렸다. 새 세대들의 건전한 성장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사상무장을 독려
  - 이 신문은 이날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이다’라는 개인필명의 논설을 통해 “사회주의 조국은 김일성 민족의 영원한 삶의 요람”이라며 이같이 주장
  - 신문은 “역사에는 위인을 만나 세계에서 존엄을 떨치던 민족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쇠퇴·몰락하고 수백만의 당원을 가진 당도, 무적을 자랑하던 군대도 붕괴된 사실이 적지 않게 기록돼 있다”며 “우리 인민은 김일성 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이 영광을 대대손손 높이 떨칠 것”이라고 전함.
  - 연합뉴스에 의하면, ‘존엄을 떨치던 민족’ ‘수백만의 당원을 가진 당’ ‘무적

을 자랑하던 군대' 등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리비아사태와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사망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일 부자, 인민군 제789부대 시찰(10/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789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
- 시찰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비서, 김경옥·김원홍 당 중앙군사위원,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이 수행
- 김 위원장은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야 하는 군대에게 싸움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훈련을 더 강화할 것을 지시

■ **김정일동향**

- 김정일, 10.24 '리커창' 中 국무원 부총리 접견 및 만찬 마련(10/24, 중통)
- 김정일, 10.31 駐北 중국 대사 '류홍차이'(劉洪才) 접견·만찬(11/1, 중통·중방)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789군부대 시찰(10/31, 중·평방·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우리(北)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김일성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함으로써 이 영광을 대대손손 높이 떨칠 것”이라며 “金父子의 사회주의건설 찬양과 청년들의 사회주의 수호투쟁” 선전(10/31, 중통·노동신문)

**나. 경제**

● **北, 벼 추수 완료(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 농촌에서 벼 가을(벼 추수)을 마무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보도
- 중앙방송은 “평양 만경대구역의 농업 근로자들이 12일 선참(처음)으로 끝낸 데 이어 순안, 형제산, 역포구역 등 모든 농장이 17일까지 벼 가을을 마감했다”고 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평안북도는 매일 8%씩 추수하는 성과를 냈고 서해의

곡창 지역인 황해남도는 1만여 정보(약 99km<sup>2</sup>)에서 벼를 추수  
 - 중앙방송은 “함경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북부지대 농촌들에서도 불리한 일기조건을 이겨내면서 벼가 익는 족족 제때에 수확했다”고 덧붙임.

● 유니세프, 중증영양실조 北어린이 실태조사(10/25, 미국의소리(VOA))

-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북한 함경도, 양강도, 강원도에서 어린이 영양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함.  
 - 유니세프 아시아 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이 방송에 “북한 당국과 함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어린이들을 치료할 예정이며, 올해 1만5천500명의 어린이 중증 영양실조를 완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함.

● 北고려항공에 잇단 흑평...WHO는 이용금지령(10/25, 미국의소리(VOA))

- 세계보건기구(WHO)가 직원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의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WHO 동남아시아 사무소는 지난 5월 내부용으로 작성한 ‘항공사 안전등급표’를 통해 고려항공에 C등급을 부여했는데, 이는 여행 승인 담당관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이용해서는 안 되는 항공사라는 뜻임.

● 1~8월 北美교역 작년동기 7배로 급증(10/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1~8월 북미교역액이 21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30만달러의 7배에 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  
 - 미 인구조사국 산하 해외무역실 교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미 교역은 미국의 대북수출만 210만달러였고 수입은 한 건도 없었으며, 1~8월 교역액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양국 간 교역액 190만달러도 넘어섰다고 방송은 전함.  
 - 미국의 대북수출 상품을 보면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용으로 보낸 구호물품이 대부분으로, 의약품이 절반가량 차지했고 나머지는 축산·수산식품, 수술장비, 침구류, 재봉도구 등이었음.

● WFP “10월 대북식량지원 올해 최대 규모”(10/26,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10월 한달 동안 북한주민 197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지원 담당관을 인용해 26일 보도
- 이는 WFP의 최근 1년 간의 월별 대북 지원식량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규모이며, 스카우 담당관은 RFA 측에 10월에만 약 1만4천t의 곡물이 북한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난달의 4천t보다 3배 이상 많은 곡물을 확보 하면서 지원 규모도 커졌다고 설명함.
- 한편 핀란드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수재민 구호를 위해 95만 달러를 국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함.

● “北-中, 압록강 중류 벌등도 개발 구상”(10/26, 요미우리신문)

-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에 있는 북측 섬인 벌등도(筏登島)를 관광지로 공동 개발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중국측 지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벌등도는 중국 지안(集安)과 북한 자강도 만포(滿浦) 사이의 압록강 중류에 있고, 면적은 약 25ha이며, 지난달 지안과 만포를 잇는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강 하류 쪽으로 10km 정도 내려간 곳에 있는 지역임.
- 이 섬에 북한 식당이나 토산물 판매점을 짓고, 북한 예술단체의 공연을 하게 한 뒤 지안과 벌등도를 유람선으로 잇자는 게 개발 구상의 골자이며, 벌등도는 북측 육지와 떨어져 있어 북한이 사람이나 물자의 출입을 관리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짐.
- 올 5월말 만포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의 대표단이 지안을 방문해 벌등도 공동 개발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과 중국은 두만간 하루 접경 도시인 북한 라선과 중국 훈춘(琿春), 압록강 하류 접경 도시인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함.
- 요미우리신문은 “북중 국경 지대에서 북쪽 끝인 라선-훈춘과 남쪽 끝인 신의주-단둥에 이어 중부 지역에서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

- **北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 내달 완공(10/26, 연합뉴스)**
  -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 활용을 위해 착수한 북한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공사가 내달 중순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연변(延邊) 소식통들은 27일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내달 15일께 완공된다고 밝힘.
  - 한 소식통은 “이미 2차선 비포장도로의 포장과 선형 개선 작업이 완료됐고 정리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북·중이 내달 15일께 완공을 자축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은 지난 1월 처음으로 1만7천t을 라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10만t 가까운 훈춘산 석탄을 남방으로 수송했으며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가 끝나면 운송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석탄 수출 잠정 중단..내년 봄 재개”(10/27, 연합뉴스)**
  - 27일 중국 선양(瀋陽)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자국 무역상들에게 석탄 수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 중국 무역상은 “며칠 전 북한 파트너로부터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석탄 수출이 어렵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미 계약한 물량 이외에는 북한산 석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급증, 내수용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갈수기라 수력발전소 가동이 안 되는 겨울철에 전력과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함.
  - 한 대북 무역상은 “외화벌이를 전적으로 석탄과 철강 등 지하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서는 금수 조치를 오래 끌고갈 수 없는 처지”라며 “연료 사용이 감소하는 내년 봄께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봄.
  
- **北 ‘광물보고’ 단천항 내년 4월 개항할 듯(10/28, 연합뉴스)**
  - 북한이 광물 자원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함경남도 단천항 현대화 사업이 내년 4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8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박지와 방파제 등 단천항 항만 개선 공사가 완공 단계에 들어섰으며 수심을 12-15m로 유지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뉴스는 전함.
- 한 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단천항을 시찰, 공사 진척 상황을 살핀 뒤 흡족해하며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인 내년 4월 15일 대대적인 완공식과 함께 단천항을 개항할 예정”이라고 전함.
- 북한은 단천항에 1만-3만급 선박 3척을 동시 정박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을 건설했으며 항만과 단천 마그네사공장, 단천 제련소를 잇는 벨트 컨베이어를 설치,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물자 운송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中, 북한산 면화 첫 수입(10/28,국문시보(國門時報))**

-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산 면화를 수입했다고 중국 국문시보(國門時報)가 28일 보도
- 신문은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의 한 무역업체가 수입한 북한산 면화 68.5t이 최근 상하이로 통해 입항했다고 전함.
- 북한산 면화가 중국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면화는 kg당 2.3달러(2천550 원)로 총 수입액은 15만7천550달러(1억7천400만 원)임.

● **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금융제재 최고수준 유지(10/28, 연합뉴스)**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부과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대사 허경욱)는 FATF가 27-28일 총회를 열어 북한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번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은 없었다고 OECD 한국대표부는 전함.
- FATF는 지난 2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제재

를 기존 ‘주의조치에’서 이란과 같은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조정함.  
 -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유엔, 대북 식량지원 긴급 호소(10/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발레리 아모스 국장이 지난 27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식량 지원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아모스 국장은 호소문에서 “북한 주민 600만명에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하지만 유엔이 올해 대북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한 예산 2억1천800만 달러 중 7천400만 달러만 걷혀 30%만 확보된 상태”라고 밝힘.
- 그는 또 “북한에서 5세 미만 어린이 3명 중 한 명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
- 이어 “국제사회 기부국의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자료와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며 “북한 당국은 분배감시(모니터링)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임.
- 아모스 국장은 지난 17~21일 북한을 방문해 함경남도과 강원도의 병원, 탁아소, 가정, 농장, 시장 등을 둘러보고 식량부족 실태를 파악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2013년까지 유연휘발유 사용 근절”(10/29, 연합뉴스)

- 2013년까지 북한에서 유연휘발유 사용이 근절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유엔환경계획(UNEP)을 인용해 전함.
- UNEP는 전날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라크, 미얀마, 예멘 등 6개국이 유엔과 협력해 2013년까지 유연휘발유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힘.
- 선진국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유연휘발유 사용을 금지했지만 아직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은 유연휘발유를 쓰고 있으며, 북한은 올해부터 무연휘발유를 판매하면서 유연휘발유와 무연휘발유를 함께 판매하는 국가로 분류됐다고 뉴스는 전함.

기타 (대내 경제)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0.21), 黃南 연안군 송호협동농장 5작업반 前 농장원 '리성진'에게 '노력영웅칭호와 국기훈장 1급' 수여(10/24, 중통)
- 평양시 만경대·형제산구역 등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벼가을’(추수)을 성과적으로 마감” 선전(10/24, 중방)
- 北 부품질석생산사업소(平南 순천시 소재) 생산 ‘부품질석’, “평양시 살림집 및 공공건물 방온·방습 재료로 널리 이용” 선전(10/24, 중방)
- 北 수도건설총국 건설자들, ‘인민야외빙상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中(10/24, 중방)
- 대동강자라공장·대동강돼지공장·대동강그물공장, 10.25 리명수(인민보안부장)·리병삼(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종업원 궤기모임 촉구 진행(10/26, 중방)
- 北,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대화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10.26)]를 통해 “함남의 불길이 낳은 자랑스런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2012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고조 진군길에서 이룩된 비날론공업의 천지개벽은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激讚(10/27,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10.27 중국화전집단공사 총경리(“원공민”) 일행과 담화(10/27, 중통)
  - 허택(전력공업상), 김형식(석탄공업상), 신남철(조선영광개발총회사 총사장), 왕즈린(駐北 中 경제무역참사) 등 참석
-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평양시 청춘거리) 조업식, 10.27 최룡해(黨 비서), 박명철(체육상/조업사) 등 참가下 진행(10/28, 중방)

다. 군사

● 북한군 대표단 베트남 방문(10/29, 베트남통신(VNA))

- 오철산 해군 정치국장(상장)이 이끄는 북한군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국영 베트남 통신(VNA)이 29일 보도
- 북한군 대표단은 28일 오후 응오수언릭 베트남군 총정치국장(중장)을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릭 국장은 북한군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양국 군과 인민 간 우호 증진과 상호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VNA는 전함.
- 오철산 정치국장도 이번 베트남 방문이 당(黨) 활동과 군 정치사업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
- 북한군 대표단은 베트남군 해군사령부, 정치학원, 해군연구소, 7군구 총사령부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VNA는 덧붙였다.

## 라. 사회문화

### ● ‘김일성상’ 계관시인 오영재 사망(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일성상’ 계관시인인 오영재(75)씨가 23일 갑상선암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그의 서거에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고가 23일 발표됐다”며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북한 시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1989년 ‘김일성상’을 수상했고, 1995년 12월 ‘노력영웅’ 칭호에 이어 북한 최고 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받음.

### ● 인세반 “北의료진도 내성결핵 감염”(10/27, 연합뉴스)

- 지난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인세반(미국명 스테븐 린튼) 유진벨재단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보건성 관계자가 북한의 보건문제 1위도 결핵, 2위도 결핵, 3위도 결핵이라고 할 정도로 결핵 환자가 많다”며 북한 결핵치료사업에 관심을 촉구
- 인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결핵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다제내성결핵에 감염되는 등 북한 전역에서 다제내성결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양 인근 3곳 등 6개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센터를 운영해 6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센터마다 100명이 넘는 대기환자가 있을 정도로 예산과 인력, 설비가 모자란다”고 말함.
- 한편 인 회장은 이번 방북때 한 프랑스 지원단체의 부탁으로 황해남도 해주에 옥수수를 전달하고 돌아왔으며 “최근 중국과 가까운 북부 지역은 경제활동이 활발하지만 한국과 가까운 남쪽으로 갈수록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확연하게 관찰됐다”고 전함.

### ● 北TV에 ‘과감한 노출’ 잇따라 등장(10/28,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외국영화 속에 등장하는 노출 장면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TV는 27일 저녁 8시30분 옛 소련의 예술영화 ‘전화로 보내오는 선물’을 방영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야한 복장을 입고 춤추는 장면을 그대

로 내보냈는데, 19세 이상만 관람해야 하는 남한의 성인영화와 노출 수위에 별 차이가 없었고, 남한 지상파 TV라면 방영하기에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조선중앙TV는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저녁에는 중국 예술영화 ‘영웅 정성공(鄭成功)’을 방영하면서 상반신을 드러낸 여배우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방영했는데, 북한TV가 영화나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이처럼 야한 장면을 내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뉴스는 설명
- 특히 주민이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에 방영하고 영화를 북한말로 더빙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이례적이었으며, 이는 폐쇄적 국가인 북한이 외부의 시각과 달리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노출에 항상 민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북한에서는 장마당 등을 통해 한국영화를 비롯한 외부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성문화도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재스민혁명’ 중동에 근로자 파견 중단”(10/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민주화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지역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이 방송과 연락이 닿은 평양 주민 박모씨는 올해 리비아에 건설 노동자로 파견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북한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함.
- 중동의 한 국가에 간호사로 나갈 예정이었던 20대의 김모씨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대기 중이라고 RFA는 소개
- RFA는 “리비아와 이집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계획이 무산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북한이 노동자 파견마저 사실상 금지해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앞서 북한은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우려해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 200여 명에게 귀국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北평양마술단, 中 서커스대회서 우승(10/31, 신화통신)

- 북한의 평양국가마술단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 서커스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1일 보도

- 통신은 평양국가마술단이 지난 30일 열린 중국 우차오(吳橋)국제서커스 대회에서 러시아 서커스단, 중국 허베이(河北)성 곡예단과 공동으로 대상인 금사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힘.

● **개성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봉행(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개성의 영통사 복원 6주년을 맞아 남북 불자들이 31일 영통사에서 조국통일기원 및 열반다례재 합동법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이날 합동법회에 북측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관계자들과 영통사 승려, 신도들이, 남측에서는 천태종 사회부장인 안산 스님 등 천태종 승려와 신도들이 참석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피바다가극단 출연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 첫 공연, 10.25 中 지린성 장춘에서 진행(10/27, 중통)
- 北 '국가우표발행국', 「대동여지도」 발행 150돌 기념우표(개별우표 1종)와 우표들(개별우표 4종) 제작(10/31, 중통)

**2 대외**

**가. 일반**

● **패네타 “北, 무모하고 도발적 행동 계속”(10/24, 요미우리신문)**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일본 방문에 앞서 요미우리 신문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도전을 맞아 미국과 일본 간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
- 그는 “북한이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일본뿐만 아니라 역내 전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군사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점점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려

- 그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방북 리커창 부총리, 김영남 면담(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조(중북)친선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강화발전되고 있다”며 “조선인민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함.
- 담화에는 북한 측에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영일 당 비서, 김성기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이, 중국 측에서는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천위안 국가개발은행 이사장, 류제이(劉結一)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테난(劉鐵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등이 배석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 논평】 최근 美 외교당국자의 對北 인권문제 제기는 “우리(北)에 대한 엄중한 국권침해·인권침해”라며 “인권외교는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발(10/25, 중통)
- 중국 인민군 「韓國戰」參戰(50.10.25) 61돌 즈음 “우리(北)는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北-中친선 不敗’ 力說(10/25, 중통·노동신문)
- 威北 청진시 - 러시아 하바롭스크市, 10.31 친선관계 설정에 관한 협정 조인(11/4, 평방)

나. 6자회담(북핵)

● **중리커창 “6자회담 조속 재개해야”(10/24, 신화통신)**

-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힘.
-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전날 최영림 북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국은 조선(북한)이 접촉과 대화라는 정확한 방향을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함.

- 부총리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지키는 것으로 관련국들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며 “반도 정세를 한층 더 완화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지켜야 한다” 강조
- 그는 북한과 중국이 과거 60년 동안 서로를 지지하면서 우호적인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한 것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
- 리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양국의 전통적 우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양국이 ▲정부 주도 ▲기업 중심 ▲시장 원리 ▲상호 원원의 4대 기본 원칙의 바탕 위에서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
- 최 총리는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 전면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실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며 “이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함.

● 中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 여건 만들길”(10/24,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24일 북한과 미국의 제2차 고위급 회담 개최와 관련해 “(해당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유관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창조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미 접촉과 대화를 지지하며 현재의 대화는 서로 신뢰를 증진하고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대변인은 이어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의 북한 방문에 대해 확인하면서 “중국과 북한은 고위층 상호 방문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

● 보즈워스 美특별대표 “일부 진전 있다”(10/25, 연합뉴스)

-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4일(현지시간) 첫날 회담을 마친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북한 대표단과 공식회담 후 주(駐)제네바 미국대표부에서 만찬 회동을 한 뒤 숙소인 켐핀스키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우리의 목표는 양자 및 다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회의를 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논의 주제를 묻는 말에 “모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나라 농축프로그램(UEP)도 논의됐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음.

● 中 “농축우라늄 문제는 6자회담서 해결”(10/25,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25일 “농축우라늄 문제는 6자회담 내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3~25일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의 방북 기간에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함.
-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접촉 중인 만큼 이번 대화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성과를 내 6자회담이 재개의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북미고위급대화 종료..6자 재개조건 등 진전(10/26, 연합뉴스)

-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한 북한 핵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의제로 한 북한과 미국의 2차 고위급 대화가 이틀 만인 25일 오후(현지시간) 종료됐으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당초 예상됐던 대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측 대표단장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고 밝힘.
- 김 부상은 “1차 대화 때 합의한 데에 따라 조미(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힌 뒤 “아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문제도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고 다시 만나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 미측 대표단장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같은 시간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우 유용한 회담이었다”며 “북한 대표단과 매우 긍정적이고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평가

- 하지만,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양측의 지속된 노력으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정식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합리적인 토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해 김 부상의 발표보다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문제와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측이 언급한 ‘진전’의 내용과 관련,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나 대량살상무기(WMD) 모라토리엄 선언 등에 일부 진전된 입장을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그러나 핵심 사안인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공은 남북 및 북미간 3차 대화 등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미측은 이른바 ‘뉴욕채널’로 불리는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향후 대화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美 “북미대화, 중요 이슈 미해결”(10/26,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무리된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와 관련, “일부 의견차를 좁혔으나 아직 중요한 이슈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화에서는 모든 이슈가 다뤄졌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돌파구(breakthrough)를 찾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강조
- 이는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사전조치’ 가운데 일부는 이번 제네바 대화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졌으나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뉴스는 전함.
- 실제로 눌런드 대변인은 6자회담과 관련한 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먼저 남북대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고,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반복하면서 “차이는 좁혀졌으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거듭 지적
- 그는 이밖에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미·중) 양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조하고

- 있다”면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최근 방중을 언급
- 이어 놀런드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함.

● **北 “2차 북미대화서 일련의 전진 이룩”(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최근 북한과 미국의 제2차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지난 7월 말에 이어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일련의 전진이 이룩됐다”고 평가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쌍방은 신뢰조성의 견지에서 미결문제를 토의해결하기 위한 조미(북미) 접촉과 회담을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대변인은 또 “6자회담을 전제조건 없이 하루빨리 재개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이행해나가기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 **“北美 새 비핵화 로드맵 초안 단계”(10/27, 조선신보)**

-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금 조(북)미는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확인될 새로운 비핵화 노정도(로드맵)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
- 이 신문은 27일 ‘제네바 조미회담, 비핵화 노정도에 대한 집중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미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조치의 순번과 시점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6자의 전체 구도에서 그것이 선차적인 과제로 상정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밝혀 북미 양측 간에 관계개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는 “조선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교전상태로 인해 발생한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에 대한 조미 간의 논의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관련, “신뢰구축의 과정에서 풀어갈 수 있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행해야 할 9·19공동성명의 항목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도, 조선에 대한 경수로 제공도 있다”고 밝힘.

### 3 대남

- 류우익 장관 “이산가족 정기 상봉 여건 만들겠다”(10/24,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4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며 “조만간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만나 북한과 협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류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경기도·연천군의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해 전곡읍 마포리 사업 부지를 둘러보며 “이산가족 문제는 온 국민이 공유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함.
  - 이에 따라 통일부가 사업 주체로 재원을 마련하고 센터 건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도(道)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행정협의를, 군(郡)은 관련 인·허가 처리와 토지보상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고 뉴스는 전함.
  
- “청년이 앞장설 때”…北 재보선 막바지 선동(10/24,)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새 정치는 청년들이 앞장설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역적인 한나라당 정치를 매장할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며 “청년들이 앞장설 때 남조선 인민들이 바라는 새 정치를 안아올 수 있고 새 사회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한나라당 정치는 청년들의 앞길을 망치고 미래를 말아먹는 정치”라고 비난
  - 또 이 매체는 ‘절실히 요구되는 진보세력의 단결’이라는 글을 통해 “남조선의 진보애국 역량은 강력한 투쟁으로 보수패당의 독재통치와 집권연장 기도를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선동
  
- 北, 대북지원단체 대표단 평양 초청(10/25, 연합뉴스)
  - 북한이 정부의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지원단체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내 50여개 대북지원단체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따르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지난 22일 북민협에 “평양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해보자”는 취지의 전통문과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뉴스는 전함.

- 5·24조치 이후에도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모니터링 방북시 평양을 경유하거나 북측 민화협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한 적은 있었지만 북측이 남측 지원단체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해 실무협의를 하자고 제의한 것은 처음임.
- 통일부는 그러나 24일 북민협이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불허 방침을 통보해 지원단체 대표단의 평양방문은 무산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발휘 하겠다던 통일부가 원칙만 앞세워 북측의 입장은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남북, 만월대 공동발굴 조속 재개키로(10/28, 연합뉴스)**

- 고려의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추진해온 남북 양측 실무자들은 28일 실무협의를 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하일식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획총괄위원장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등 전문가 5명은 이날 개성 민속여관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발굴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이른 시일 내 만월대 사업에 나서기로 함.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7~8월 개성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발굴 지역의 수해가 컸다”며 “토사가 흘러내려 축대가 붕괴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대응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함.

● **北, 南호국훈련 “북침전쟁연습” 비난(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남한 군대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 호전광들이 미제 침략군과 함께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또다시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
- 조평통은 이어 “괴뢰패당이 반공화국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수록 자멸을 앞당기는 것으로 될 뿐”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전쟁도

발책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무모한 군사적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류우익, 취임후 첫 방미..대북정책 조율(10/31,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1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3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류 장관은 빌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조 리버먼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통일장관 “이산상봉 확대·정례화 기대”(10/31, 연합뉴스)

-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은 31일 “통일부와 한적(대한적십자사)이 서로 협력하고 북측에서도 호응하도록 해 이산가족상봉 숫자도 늘리고 가능하다면 정례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를 찾아 유증근 신임 한적 총재와 면담을 한 류 장관은 “총재도 이산가족상봉이 금년에 안 이뤄진 것에 아주 섭섭해 한다고 들었는데 같이 노력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며 이같이 밝힘.
- 유 총재는 또 “겨울이 되기 전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보낼 준비가 됐다. 문이 열려 북한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가기를 바란다”며 대북 영유아 분유지원을 승인해줄 것도 요청, 류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기타 (대남)

-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보수당국의 반인민적 정책을 비호한 인물”로, 박근혜 前 대표를 “내년 대선을 노리고 선거 지원에 나선 인물”로 폄하하며 “한나라당은 썩은 정치의 오물장”이라고 비난(10/24, 중통·노동신문)
- 李大통령의 訪美성과(동맹강화 韓-美 FTA 등)에 대해 “사대매국·반통일대결행각, 선거(10.26)에 영향을 주려는 打算” 등으로 持續 왜곡 비난(10/25, 중통·노동신문·민주조선·중앙)
- 北,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當選 소식을 전하며 “이번 선거결과는 보수세력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간략 보도(10/27, 중통)

9·10월

북한동향 일지

<9월 일자>

보도일자	내 용
9/1, 중통·중방	김영남, 9.1 訪北 '교도통신사 및 가맹사 대표단'과 담화
9/1, 중통·평방	김영남·최영림·박의춘, 9.1 베트남 창건 66돌 즈음 同國 주석과 수상 및 외무상에게 各各 축전
9/1, 중통	김영남·박의춘, 9.1 우즈베키스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各各 축전
9/1, 중통·중방	김영남·최영림·박의춘, 9.1 슬로벤스코 헌법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수상 및 외무상에게 各各 축전
9/3,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9.1~2 희천발전소 건설정형 현지요해
9/3, 중통	김영남, 9.3 산마리노공화국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9/4, 중방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848호」(8.30), 남포시 천리마구역을 '모범교육구역' 칭호 수여
9/5, 중통·평방	김영남, 9.5 쿠바 '국가이사회 부위원장' 사망 관련 위문전문
9/6, 평방	김기남, 9.6 만수대의사당에서 시리아 신문사 대표단과 담화
9/6, 중통	김영남, 9.6 스와질랜드 독립 43돌 즈음 同國 국왕에게 축전
9/7, 중통·중방	김영남, 9.7 駐北 미얀마 '틴 우' 대사 신임장 접수
9/7, 중통	박의춘 외무상도 9.7 駐北 미얀마 新任 대사와 담화
9/7, 중통·중방	최룡해(黨 비서), 9.7 訪北 베트남 노동총연맹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접수
9/7, 중통·중방	김영남·박의춘(외무상), 9.7 브라질 독립 189돌 즈음 同國 대통령·외무상에게 各各 축전
9/8, 중방	김정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훌륭한 소행을 발휘한"정창호(벽성군 장천리 부문농근맹 위원장) 등에 「감사」 전달
9/8, 중통	김정일·정은, 평양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
9/8, 중통	김정일·정은, 9.9 0시 금수산기념궁전 찾아 김일성에게 경의 표시
9/8, 중통·중·평방	北, 9.8 '공화국 창건' 6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9/8, 중통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9.8 독일사회민주당출신 유럽의회 의원(페터 지몬) 일행과 담화
9/8, 중통	김영남, 9.8 우간다 내무상(힐라리 오네크) 일행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9/9, 중통·중방·중앙TV	北 정권 창건'(1948.9.9) 63주년 경축 '노동적위대 열병식', 9.9 김정일·김정은 등 참석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9/9, 중통	김영남과 박의춘, 9.9 타지크스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축전
9/9, 중통	北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9.9 양각도국제호텔에서 '하인 버브르겐' (스포츠 어코드(*前 국제스포츠연맹기구)위원장)과 담화
9/10,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목란비디오社 현지지도
9/10, 중통·평방	김정일, 9.9 러시아 대통령의 '北 水害피해 위문 전문'에 대한 '謝意 표명 답전' 발송
9/10, 중통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9.10 訪北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접수
9/10, 중통·평방	김영남, 9.10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同國 국가이사회 위원장 '보피공' 사망관련 弔電
9/10,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전국 여맹소조총합공연 관람
9/13, 중통·평방	최영림 총리, 9.11 금성식료공장과 평양8월플가공공장 현지 了解 및 '협의회' 진행

보도일자	내 용
9/13, 중통·중방	김영남, 9.13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맥클린 이고니콘 오무쏘) 신임장 접수
9/13, 중통	박의춘 외무상, 9.13 駐北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대표(피시 워차타 미시까) 신임장 접수
9/14, 중통	김정일, 9.14 러시아 대통령에게 생일관련 축전
9/14, 중통	김영남, 9.14 쿠바대사(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의 신임장 접수 및 대사와 담화
9/15, 중통	김영남, 9.15 訪北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대표단과 담화
9/15, 중통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9.15 작별방문 '피터 휴스' 英國 특명전권대사와 담화
9/16, 중통·중방	김영남, 9.16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단장 : 고덕우 「총련」 부의장)과 담화
9/16, 중통·중방	김영남·박의춘 외무상, 9.16 멕시코 독립 201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축하 축전
9/19, 중통·평방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9.19 離任 駐北 영국 대사(피터 휴스)와 담화
9/19, 중통·중방	최영림 총리, 9.19 세인트 키츠 네비스 독립 28돌 즈음 同國 수상에게 축전
9/21, 중통	'양형섭' 상임위 부위원장, 9.21 駐北 나이지리아 및 시리아 대사와 각각 담화
9/21, 중통	김영남, 9.21 아르메니아 국경절·말타 독립 47돌 즈음 兩國 대통령에게 각각 축전
9/21, 중통	최영림, 9.21 벨리즈 독립 30돌 즈음 同國 수상에게 축전
9/22, 중통·평방	김영남, 9.22 라오스 주석과 회담(만수대의사당) 진행
9/22, 중통·중방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9.22 중국 단둥(丹東)市 인민정부 친선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접수
9/22, 중통	박의춘 외무상, 9.22 네덜란드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
9/22, 중통·평·중방	김기남 黨 비서, 9.22 중화전국기자협회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접수
9/23,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9.23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연회 마련
9/25, 중통·중방	김영남, 9.24 잠비아공화국 '마이클 칠루프야 싸타'에게 대통령 當選 축전
9/26, 중통	양형섭, 9.26 쿠바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과 일행 만나 담화
9/26, 중통	최박의춘 외무상, 9.26 駐北 수리아아랍공화국 대사와 담화
9/27, 중통	최영림(내각총리), 9.26 中 '원자바오'총리와 인민대학습당에서 회담
9/27, 중통·중방	김정일, 9.26 故 박용길 여사 유가족들에게 弔電
9/27,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9.27 '자칭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담화
9/27, 중통	黨 창건(1945.10.10) 66돌 즈음 駐北 경제 및 무역참사단, 9.27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참관
9/28,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9.27 '후진타오' 中 주석 의례방문
9/28, 중통	박의춘 외무상, 9.28 駐北 나이지리아 新任 대사(맥클린 이고니콘 오무쏘)와 담화
9/29, 중통	北 최영림 총리, 9.28~29 '한정(상하이시인민정부 시장)', '리쉬에웅(장쑤성인민정부 성정)'과 담화 및 연회
9/29, 중통	양형섭, 9.29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을 만나 담화
9/29, 중통	김영일, 9.29 中國공산당대표단(단장 : '귀성쿤' 광시장족자치구위원회 서기)과 담화 및 연회
9/29, 중통·중방	김영남, 9.29 보츠와나독립 45돌 즈음 동국 대통령에게 축전
9/30, 중통	김정일·김영남·최영림, 9.30 中國 정부 창건(10.1) 62돌 즈음 후진타오·우방궈·원자바오에게 축전
9/30, 중통	박의춘 외무상도 9.30 양지예츠 中 외교부장에게 축전

<10월 일지>

보도일자	내 용
10/1, 중통	최영림 내각 총리, 9.30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訪中 환대 및 朝-中친선 협조관계 확대발전" 표명 「감사전문」 발송
10/2, 중방	김정일, 援軍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10/3, 중통	김영남, 10.3 中 공산당 대표단(귀성군) 광시장족자치구위원회 서기와 담화
10/3, 중통	박의춘 외무상, 10.3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駐北 쿠바 신임특명전권대사와 담화
10/4, 중통	김정일, 咸鏡南道 단천항 건설장·단천마그네사공장·용천과수농장 현지지도
10/4, 중통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10.4 新任 駐北 쿠바 대사와 담화
10/5, 중통·평방	김영남, 10.5 駐北 튀니지 대사에게서 신임장 접수 및 담화
10/7, 중통	박의춘 외무상, 10.6 新任 말라위 외무 및 국제협조상 '아더 피터 무타리카'에게 축전
10/7, 중통·중·평방	김정일, 平南 '평성합성가죽공장'과 개건 현대화된 '락량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 현지지도
10/9, 중통	김정일·정은, '중앙양묘장'(평양시 교외)과 새로 건설된 '태양열설비센터'(평양시 만경대지구) 현지지도
10/11, 중통	최태복·김영일(黨 비서들), 10.11 駐北 쿠바대사와 담화
10/12,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은하수 10월음악회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 관람
10/12, 중통·중방	김정일, 개건된 '두단오리공장' 현지지도
10/12, 중통	김정일·정은, 黨중앙위·黨중앙군사위 주최 '黨창건 66돌 연회' 참석
10/12, 중통	北 공보위원회('안동춘 문화상)-라오스 공보, 문화 및 관광성 대표단('보쌈캄 윈다라' 관광상) 사이 회담, 10.12 평양에서 진행
10/13, 중통	'라진↔하산 철도구간 시범열차운행' 행사, 10.13 '北-러친선각'(咸北 라선市 두만강역지구)에서 진행 및 연회 개최
10/13, 중통·중방	김영남, 10.13 新任 駐北 영국 대사 '카렌 쉰잔 월스텐홀' 신임장 접수
10/13, 중통·중방	김영일(黨 비서), 10.13 브라질 자유조국당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접수 駐北 시리아 대사, 10.13 '北 당창건' 66돌 즈음 박의춘(외무상)·리룡남(무역상)·리창근(黨 부부장)·서호원(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문재철(외교단사업총국 부총국장) 등 초청下 연회 개최
10/14, 중통·중방	김정일, 새로 건설된 대동강자라공장과 대동강돼지공장·대동강그물공장 현지지도 및 「감사」 전달
10/14, 중통	김영남, 10.14 라오스공보, 문화 및 관광성 대표단(단장 : '보쌈캄 붕다라' 공보, 문화 및 관광상)과 담화 및 '김정일선물' 접수
10/14, 중통	최영림, 10.14 덴마크 수상에 임명된 '헬렌 토르닝-슈미트'에게 축전
10/15, 중·평방	김정일,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0/15, 중통	北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최영림(내각총리)·조병주(부총리/보고)·직속기관 책임일꾼 등 참가下 진행
10/16, 중통·중방	김정일, 대흥청년영웅광산과 용양광산 현지지도
10/16, 중통·중·평방	김정일·정은, 함흥시(咸南道) 중요기업소들(2.8비날론연합기업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룡성기계연합기업소·흥남제련소) 현지지도

보도일자	내 용
10/16, 중통	김영남과 최영림(내각 총리) 등 黨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黨중앙委·내각·성·중앙 기관·사회단체 일꾼들, 10.16 현대화된 '두단오리공장'(평양) 참관 및 예술소품공연 관람
10/17, 중통·중방	김정일,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합동농장' 현지 시찰
10/17, 중통	이용남(무역상) ↔ 러시아 아무르주 장관(올레그 꼬쨌마꼬), 10.17 평양에서 회담
10/17, 중통	조선노동당 중앙위, 10.17 김영일 등 참가下 '베닌사회주의당대표단'(단장 : '알리 후두' 위원장)을 위해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 마련
10/17, 중통·중방	제7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10.17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
10/18,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
10/18, 중통	北 무역성('리용남' 무역상)과 러시아 아무르주 정부('올레그 꼬쨌마꼬' 장관) 사이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 10.18 평양에서 조인
10/18, 중통	北 기상수문국('류봉철' 부국장)과 中國 기상국('위신원' 부국장) 사이 '기상부문 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6차 회담', 10.18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10/18, 중통	北 노동당('김영일' 黨 비서)과 베닌 사회주의당 대표단('알리 후두') 사이 회담, 10.18 평양에서 진행
10/18, 중통	김영남, 10.18 駐北 에스파냐 대사('로메로 루이쓰') 신임장 접수
10/18, 중통	박의춘 외무상, 10.18 만수대의사당에서 유엔인도주의사업담당 부사무총장('발레리에 아모스') 일행과 담화
10/18, 중통	黨·軍·政 간부들(김영춘, 김기남, 양형섭 등), 10.18 리보익 사망(김정일 증조모) 52돌 즈음 만경대 墓에 헌화
10/18, 중통	北 적십자회 창립(1946.10.18) 65돌 즈음 '적십자활동 소개모임', 10.18 백용호(적십자회 부위원장), 조영남(국가계획위 부위원장) 등 참가下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
10/19, 중통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4304군부대와 관하중대 시찰
10/19, 중통·중방	'北-방글라데시 외무성間 협조에 관한 양해문', 10.19 박길연(부상) 및 방글라데시 외무성 대표단 등 참석下 평양에서 調印
10/19, 중통·평방	최영림(내각 총리), 10.19 러시아연방 '아무르주' 장관(올레그 꼬쨌마꼬) 및 일행과 담화
10/20, 중통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단장 : 김병호 사장), 10.20 류원산(中國 黨중앙위 서기처 서기인 선전부장)과 담화
10/20, 중통	김정일, 10.20 러시아 아무르주 장관(올레그 꼬쨌마꼬) 일행과 담화 및 만찬
10/20, 중통·중방	김영남, 10.20 유엔인도주의사업담당 부사무총장 및 일행과 담화
10/21, 중방	김정일, 모범적인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강연 강사들에게 감사
10/21, 중통	北 노동당('김영일' 黨 비서)과 베트남 공산당('황 빙 꾸언' 대외부장) 사이 회담, 10.21 평양에서 진행
10/21, 중통	김영남·최영남 등 黨·政 책임일꾼들, 10.21 새로 건설된 대동강댐지공장·대동강자라공장·대동강그물공장 참관
10/21, 중통	北-中 기상부문 및 과학기술교류 협조에 관한 16차 회담록, 10.21 평양에서 조인

보도일자	내 용
10/22, 중통·중방	최고인민회의 상임족, 10.21 '희천발전소건설기념대탈'(희천발전소건설자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함) 제정 '결정
10/22, 중통·중·평방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85군부대 지휘부 시찰 및 광덕대지공장 현지지도
10/23, 중통	김정일·정은, 함경남도 안의 일꾼들과 노력혁신자들·과학자·기술자들에 대해 연회 마련
10/23, 중통	北-中, 10.23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비롯한 여러 건의 합의문건들 조인
10/24, 중통	김정일·정은, 10.24 '리커창' 中 국무원 부총리 접견 및 만찬 마련
10/24, 중통	김영남, 10.24 의례방문 '리커창' 中 국무원 부총리와 담화
10/24, 중통	黨 중앙위·상임위·내각·무력기관 등 정권기관들, 10.24 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1950.10.25) 61돌 즈음 '우의탑'에 헌화
10/24, 중통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0.21), 黃南 연안군 승호협동농장 5작업반 前 농장원 '리성진'에게 '노력영웅칭호와 국기훈장 1급' 수여
10/25, 중통·중방	최영림 총리, 10.25 농업과학원 사업(과학자·기술자들 연구 성과) 현지 了解
10/25, 중통	김영남, 10.25 터키의 지진피해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전문'
10/25, 중통·중방	김정일, 10.25 故 오영재(시인) 빈소에 화환 전달
10/26, 중통·평방	김영남, 10.26 중국 화전집단공사 총경리 '원궁민'과 일행을 만나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접수
10/27,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10.27 중국화전집단공사 총경리('원궁민') 일행과 담화
10/27, 중통	김영남·박의춘 외무상, 10.27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 외무상에게 축축 축전
10/27, 중통	최영림, 10.27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독립 32돌 즈음 同國 수상에게 축전
10/28, 중방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0/28, 중통	김정일, 러시아 '스파니슬라브 깔리닌'(차이콥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 지휘학부장 교수) 생일 70돌 즈음 「선물」 전달
10/29, 중통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10.28 러시아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 진행
10/29,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자강도內 공장 5곳(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기동예술선전대 공연도 관람), 2.8기계종합공장, 희천연합기계종합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 현지지도
10/30,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10.28~29 黃南 협동농장들(재령군 장국협동농장, 신원군 무학협동농장 등) 영농사업 현지요해
10/30, 중통	김영남, 10.30 '노로돔 시아누크' 캄보디아 대왕에게 생일 89돌 축전
10/30, 중통	최영림, 10.30 캄보디아 수해 관련 '훈 센' 수상에게 위문전문
10/31, 중·평방·중통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789군부대 시찰
10/31, 중통·평방	김영남과 최영림 총리, 10.31 알제리 혁명개시 57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수상에게 축축 축전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